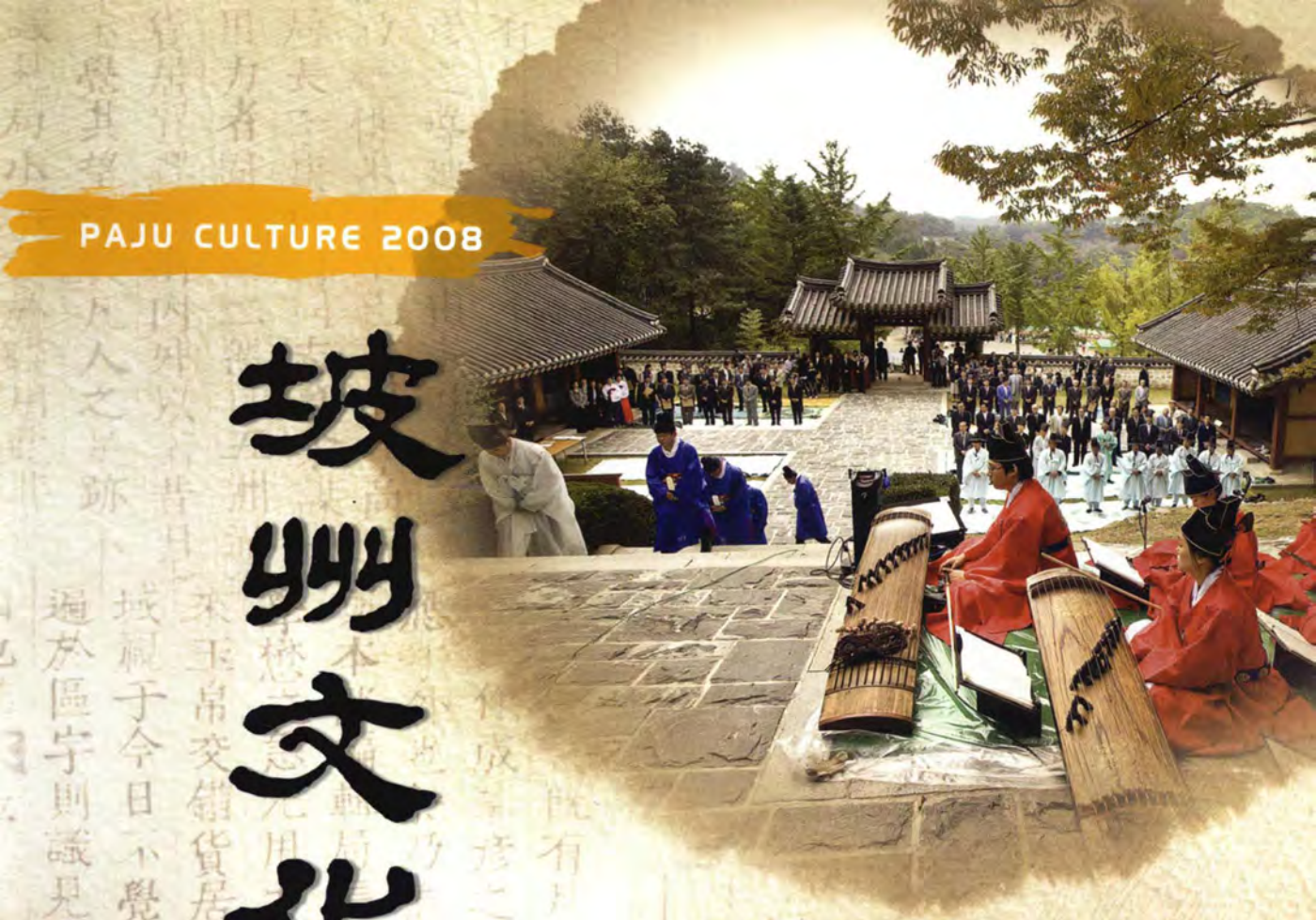
PAJU CULTURE 2008

坡州文化

22



파주문화원

파평예찬

서당 이 기 호 (前파평중학교 교장)

임진강 물 밀려오듯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격렬하게
넓고 깨끗한 도로에는
변화를 맞는 길

파평은 즐겁게 와서
머무르고 싶은 곳
세상사가 즐겁기만 하다

파평산 넘어 햇빛 솟으니
온 산과 들 청정의 지역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
가족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
이곳 머무르고 싶은 곳

삶의 슬픔과 기쁨에
눈물 흘리고
임을 그리워
애틋한 마음이 있어
가슴 아파하는 것
임진강 흐르는 물에
시름의 번뇌 보내시구려

행복하기 때문에
웃으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거
입가 늘 미소 짓는 얼굴들
눈웃음 꽃이 끊이지 않는
내 삶의 젖은 가슴으로
나는 파평에 산다.

2008년 제22호

파주문화

파주문화원

발|간|사|

파주는 삼국시대 때부터 치열한 전투의 역사적 현장의 중심이었으며, 고려와 조선에 와서는 도읍지를 인근에 둔 근기(近畿)로서 역사의 중심과 빠르게 연계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는 유럽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신 실크로드의 출발점으로 복선화가 이루어진 경의선이 힘찬 동맥으로 북한 땅까지 쭉쭉 뻗어나가 중국을 잇고, 러시아를 잇고, 유럽까지 대장정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의 유구함과 아울러 이같은 지역적 특수성이 녹아있는 문향 파주에서 해마다 발간되는《파주문화》가 어느덧 성년의 나이를 막 벗어나 22호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 수록 연륜이 주는 풍요로움과 성숙함을 두루 갖추고 보다 발전된 《파주문화》의 모습을 보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파주 문화의 변화상도 함께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22호에는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2009년 이 달의 독립운동가'에 파주출신 독립운동가가 두 분이나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난 1997년과 2005년도에 선정되었던 파주의 독립운동가와 올해 '2009 경기도 문화인물(4월)' 에 선정된 독립운동가에 대해 정리한 '독립운동가의 고장, 파주' 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복과 생활도구들의 재료가 되는 목화와 짚의 효용성에 대해 짚어본 '日常속에 투영된 목화와 짚, 그 소박함과 투박함의 美', '21세기와 율곡의 중용 정신의 성찰' 그리고 성재(性齋) 허전(許傳)의 문집인 『성재집(性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하빈신공행장(河濱愼公行狀)', 대한뉴스에서 뽑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파주 지역의 다양한 모습들을 흑백과 컬러 영상으로 보여주는 '영상으로 만나는 파주의 옛 이야기' 등 여러 옥고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파주의 얼과 문화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열정이 담긴 이 글들이 파주의 문화가족 여러분들에게 널리 읽혀지길 바라며, 아울러 바쁜 시간 속에서도 훌륭한 원고를 보내주신 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 12
파주문화원장 **민 태 승**

제22호

파주문화

Contents

발간사

22호를 펴내며 ····· 민태승 ····· 02

화보와 단신

2008년 파주문화 이모저모 ····· 편집실 ····· 04

2008문화예술 - 단신 ····· 편집실 ····· 21

기획

독립운동가의 고장, 파주 ····· 편집실 ····· 27

日常속에 투영된 목화와 짚, 그 소박함과 투박함의 美 ··· 이윤희 ····· 34

영상으로 만나는 파주의 옛 이야기 ····· 서교송 ····· 43

파주의 여성인물과 문화유산 ····· 권효숙 ····· 55

기고

21세기와 율곡의 중용 정신의 성찰 ····· 심성구 ····· 72

파주의 명당 분수원 (分水院) ····· 이덕형 ····· 77

하빈(河濱) 신후담 (愼後聃)의 행장 ····· 신용면 ····· 81

향토의 맥

경의선 이야기 ····· 이기상 ····· 86

〈斷想〉반학영 지사여! 이제 편히 잠드소서 ····· 이윤희 ····· 99

율곡이이 시묘살이 이야기 ····· 이기현 ··· 104

창녕성씨 회곡공파의 파주관련 일화 ····· 이기현 ··· 107

파주의 팔경(八景)과 십경(十景)의 유래 ····· 우관제 ··· 110

〈제언〉 임진강에서 전쟁용사를 위한 추모행사를 ··· 신우석 ··· 116

해외문화유적답사기

신들의 정원 앙코르와트 ····· 강근숙 ··· 117

율곡문화제 수상작품

백일장 ····· 133

전국 漢詩 백일장 ····· 137

사생대회 ····· 138

전국율곡서예대전 ····· 141

표지 사진
2008 율곡문화제

파주문화 22호

발행일 : 2008년 12월 / 발행처 : 파주문화원 / 발행인 : 민태승 / 편집 : 권효숙 / 인쇄 : 승림디엔씨

※ 이 책은 비매품이며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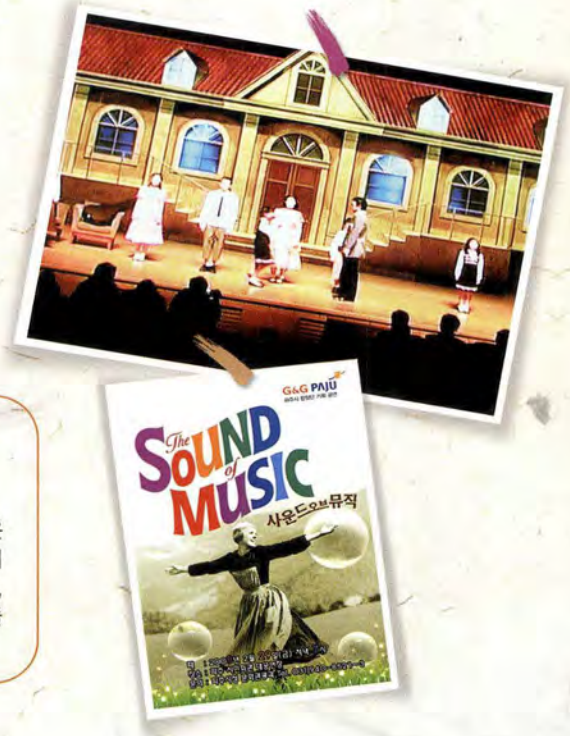
임진강 민속축제

- **일　　시** : 2008. 2. 17.(일) 11:00~16:00
- **장　　소** : 임진각 평화누리
- **주최/주관** : 파주시/파주문화원
- **행사내용** : 2008 통일기원 임진강 민속축제가 지난 2월 17일 내빈과 시민, 관광객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평화누리 내 짚풀문화공예품 전시장에서 짚 · 풀문화공예품 시상식과 함께 공모전 출품작 전시, 짚풀문화공예품 만들기 시연 및 체험행사가 열렸다. 평화누리에서는 연날리기 한마당이 펼쳐져 연 만들기 체험과 묘기연. 대형연 시연과 창작연 경연, 연싸움, 연 높이멀리 날리기 경연이 있었다.
  또한 오곡밥, 나물, 떡국, 호두, 땅콩 등 대보름 전통음식을 먹어볼 수 있도록 판매하였으며, 떡메치기 체험과 윷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굴렁쇠 굴리기 등 각종 민속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이어졌다. 전통민속 공연으로는 금산리 농요, 모듬북 공연, 취타대, 전통무용 등으로 정월 대보름의 민속 정취를 흠뻑 맛볼 수 있었다. 한편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한 먹거리 한마당은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전통먹거리인 오곡밥, 나물 등을 판매해 이곳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되었다.

파주문화원 원장 이취임식

- **일 시** : 2008. 3. 13.(목) 오전 11시
- **장 소** : 파주교육문화회관
- **행사내용** : 8년 간 문향파주 얼의 계승을 위해 헌신한 파주문화원 제10대 신춘범 원장의 이임식과, 새로이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짊어지게 된 제11대 민태승 원장의 취임식이 파주교육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제 10대 신춘범 문화원장은 재임시 율곡문화제, 임진강 민속축제, 파주해넘이 축제등 지역축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특히 향토사료 발굴에도 앞장서 파주실록, 파주문화 15호부터 20호, 파주연구 1호부터 4호, 역사속의 임진강, 임진강, 금석문대관 II 등 다수의 자료발간과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해 왔다.
  또한 생활문화 교육지원사업으로 문화원내에 부설기관 개설(문화학교)로 서예, 경기민요, 향토유적답사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한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렇듯 파주의 문화를 빛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커 제23회 〈파주시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향후 4년간 파주문화원을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게 된 민 신임원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파주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 며 '문화원 지원 조례의 제정을 시에 건의하고 문화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화보



뮤지컬 "Sound of Music"

- **일　　시** : 2008. 2. 29.(금) 19:00~20:20(80분)
- **장　　소** : 파주시 시민회관 대공연장
- **주최/주관** : 파주시/파주시합창단
- **행사내용** : 오스트리아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환상적인 무대, 아름다운 음악까지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Sound of Music" 이 공연되었다. 세월을 뛰어넘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에델바이스〉, 〈도레미송〉, 〈My Favorite Things〉 등의 노래들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스토리와 함께 공연을 보는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파주시 역사자료 찾기 공모전

- **기　　간** : 2008. 4. 1.(화) ~ 2008. 5. 31.(토)
- **장　　소** : 역사자료실(공설운동장 내)
- **주　　관** :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 **행사내용** : 파주시 역사찾기를 통해 잊혀져가는 파주의 옛 모습을 되살려 파주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파주시 역사자료 찾기 공모전' 이 개최되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개인부문에서 최창현씨가 1950~60년대 및 새마을 운동 당시 사진 기증으로 대상, 최우수상에 지내용씨, 우수상(3명)에 이기철, 민원용, 이계성씨가 월급봉투, 신분증, 임명장 및 각종 개인 관련 박물류 수집을 통해 당대 사회상 파악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여 수상하였다. 단체부문에서는 파주문화원, 최우수상에는 금산리민요보존회, 우수상에 문산1리 읍사무소,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상하였다.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2008

- **일　　시** : 2008. 5. 3.(토) ~ 5. 7.(수)
- **장　　소**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및 파주출판도시 일원
- **주최/주관** : (재)출판도시문화재단
- **후　　원** : 문화관광부, 파주시, 파주출판단지사업협동조합
- **행사내용** : '글과 그림으로 읽는 세상' 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 100여개 출판사가 참여하는 책거리 도서전을 시작으로 무박이일 12시간 책읽기, 스크린에서 만나는 베스트셀러, 북트루먼쇼, 유명 베스트셀러 저자와의 팬 사인회 및 만남, 탤런트 한지민의 북한 어린이돕기 사인회, DMZ 내 초등학교 어린이 초청행사 등의 이벤트도 진행되었으며, 이번 책 잔치는 KBS 1-TV 독서 권장 프로그램 '책을 말하다' 7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는 북-쇼와 함께 진행되어 풍성한 가을맞이 독서 잔치가 되었다.

2008 한여름밤의 공원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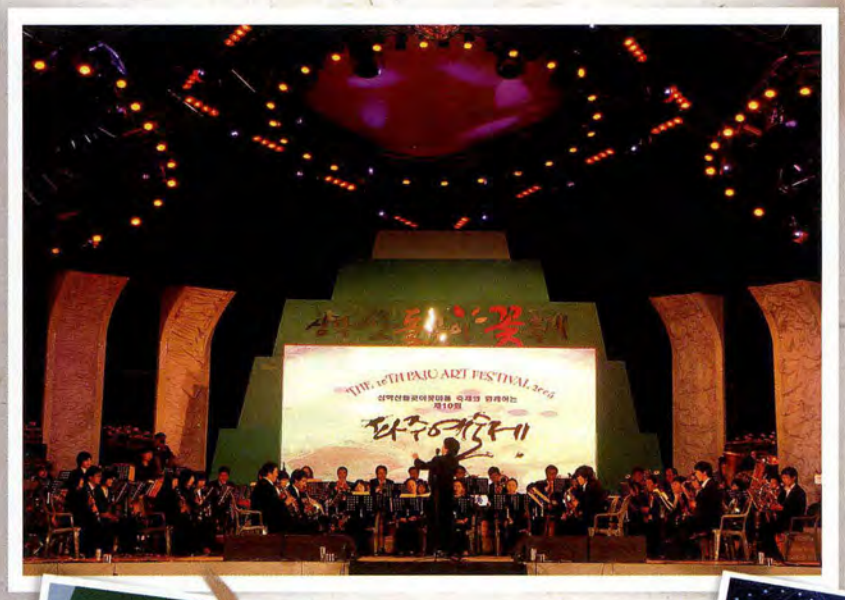
- **일시 및 장소** :
- 2008. 7. 25(금) 저녁 8시/ 적성면사무소
- 2008. 7. 26(토) 저녁 8시/ 금촌 로데오거리 분수대
- 2008. 7. 27(일) 저녁 8시/ 탄현 통일동산 공원
- 2008. 8. 1(금) 저녁 8시/ 문산 당동주공아파트
- 2008. 8. 2(토) 저녁 8시/ 교하신도시 중앙공원
- **주최 / 주관** : 파주시 / 파주음악협회(지부장 이상주)
- **행사내용** : 7월 25일 적성면사무소에서의 한여름밤의 공원음악회를 시작으로 5회에 걸쳐 2008 한여름밤의 공원음악회가 개최되었다.
  파주윈드오케스트라 이용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클래식 명곡과 함께 비틀즈 노래 중 'Hey jude' 쥬얼리의 '원 모어 타임' 등을 들려주며 그동안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클래식 음악을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자리였기에 많은 파주시민들이 참여하여 한여름밤의 정취를 느꼈다.

화보

'꽃, 책 그리고 자연' 파주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 **일　　시** : 2008. 5. 31.(토) ~ 6. 8.(일)
- **장　　소** :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파주 출판도시 일원, 헤이리
- **주　　최** : 파주시, 한국방송플러스, 씨앤엠 경기케이블TV
- **주　　관** :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추진위원회, 파주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헤이리
- **행사내용** : 따사로운 햇살과 들판에 만발한 꽃들… 자연의 빛깔과 꽃의 향기를 담은 축제가 '꽃, 책 그리고 자연' 이라는 주제로 파주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에서 펼쳐졌다. 야생화가 뿜어내는 꽃향기 속에 다랑논 꽃밭의 농촌 시골 정취도 느껴며 파주 출판단지 책잔치와 헤이리 예술마을의 문화향연도 함께 즐기는 꽃축제이다. 주요행사로는 꽃퍼레이드, KBS 특집 평화콘서트, 딩동댕~ 독서 · 한자 골든벨, 세계문화공연,TBS 라디오 특집공개방송, 꽃밭시네마, 심학산 돌곶이 가족걷기대회, M.net 슈퍼콘서트, 송승환 난타, 무한도전 12시간 책읽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대상에 이어 2008 경인히트상품 종합 대상을 수상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5월31일부터 6월8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개최, 32개국 대사가족 등 외국인 5백명 포함 내외국인 150만 명이 다녀갔다.



파주예술제

- **일　　시** : 2008. 6. 2.(월) ~ 6. 4.(수)
- **장　　소** :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일원
- **주　　최** : 파주시
- **주　　관** : 한국예총 파주지부
- **행사내용** : 파주예술제는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장에서 펼쳐지는 야외 축제 프로그램으로 6월 2일부터 4일까지 교하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일원에서 열렸다. 음악, 무용, 국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미술전시, 퍼포먼스 등을 즐길 수 있는 종합예술제로서 다양한 체험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관객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축제기간동안 많은 가족과 연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파주예술제는 전년까지는 시민회관과 금촌 구도로(문화로,명동로)에서 펼쳐졌었는데 올해는 장소를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장으로 옮겨 진행되었다.

화보

2008년 파주시 청소년 종합예술제

- **일　　시** : 2008. 6. 13.(금) ~ 6. 14.(토)
- **장　　소** : 시민회관 대공연장
- **주　　최** : 파주시
- **주　　관** : 금촌청소년문화의집
- **행사내용** : 국악, 대중음악, 무용, 사물놀이, 영상, 문학 등의 분야에서 공모전과 경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최우수 참가자(팀) 개인 20명과 단체 14팀(총 200명)이 6개 부문 20개 종목으로 파주시 대표로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대회에 참가하였다. 2008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대회에서 개인부 한국음악 기악독주부문에서 천현초교 김동열이, 단체부에서는 문산초교 태평소반, 금촌초교 사물놀이 아해, 파주공고 가요반 등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금화초교 변영진(개인-한국음악 성악독창)과 김은희 청소년 무용단(단체)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헤이리 판 페스티벌

- **일　　시** : 2008. 9. 20.(토) ~ 10. 4.(토)
- **장　　소** : 헤이리 내 문화시설 및 야외공간
- **주　　최** : 사단법인 헤이리
- **주　　관** : 문지문화원 사이
- **후　　원** : 파주시, 경기문화재단, 문학과 지성사
- **행사내용** :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헤이리 판 페스티벌' 이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개막됐다. 이날 갈대광장에서는 남미 음악의 '에스꼴라 알레그리아' , 사물놀이의 '울림굿' , 재활용품 타악의 '노리단' 이 길놀이 공연을 하며 이번 페스티벌의 개막을 알렸다. 10월 4일까지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전시 프로그램인 '큐브 프로젝트' 와 공연 프로그램인 '광장 프로젝트' 로 나눠 진행되어 '헤이리 2020' 을 주제로 작가들이 상상하는 10년 후 헤이리 마을의 모습이 담긴 10개의 큐브가 곳곳에 전시되고, 야외무대에서는 주말마다 연극, 영화, 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6개 장르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이밖에 마을 곳곳에서는 음악, 무용, 마임 등 거리 퍼포먼스, 환경과 생명의 중요성을 알리는 '찾아가는 녹색 영화관' , 사진 촬영 · 인화 서비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었다.

화보

제12회 전국율곡서예대전

- **일　　시** : 2008. 10. 4.(토) ~ 10. 7.(화)
- **장　　소** : 파주시민회관 전시실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파주지부
- **주　　관** : 전국율곡서예대전운영위원회
- **후　　원** : 파주시, 파주문화원
- **행사내용** : 율곡 이이선생을 배출한 파주에서 선생의 유덕을 추모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한국 서예계를 빛낼 참신한 신인들을 발굴, 육성코자 전국율곡서예대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서예대전에서는 한문 대상에 피재천(여주군 여주읍 교리), 문인화 최우수상에 박은준(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한문 우수상에 김난향(서울시 영등포구 양평2가), 한문 우수상에 박영옥(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문인화 우수상에 박소영(광명시 철산3동), 한글 우수상에 배옥희(서울 동작구 사당2동)씨가 수상하였다.

메뚜기와 함께 자란 파주농산물 축제

- **일　　시** : 2008. 10. 5.(일) 10:00 ~ 18:00
- **장　　소** :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광장
- **주　　최** : 파주시
- **주　　관** : 파주농산물축제 추진위원회
- **후　　원** : 파주시의회, 농협중앙회파주시지부, 각 지역농협, 파주축협, 김포파주인삼농협, 파주시친환경쌀연구회
- **행사내용** :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파주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다. 브랜드쌀인 '파주임진강쌀'을 비롯 버섯, 포도, 배, 열무, 감자, 옥수수, 호박 등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햇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전시 · 판매되고, 또 청정환경에서 양육된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달걀도 함께 판매되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오리/우렁이 등 친환경 재배방법 전시, 농산물 시식회, 메뚜기 잡기, 가을걷이 체험 (발탈곡기, 벼훌트기 등), 임진강 참게 낚시, 뱀장어.메기 잡기, 송편 만들기, 민속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나무곤충 만들기, 젖소 젖짜기, 곤충 표본 만들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즐거운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제21회 율곡문화제

- **일　　시** : 2009. 10. 9.(목) ~ 10. 11.(토)
- **장　　소** : 자운서원
- **주　　최** : 파주시
- **주　　관** : 파주문화원, 제21회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 **행사내용** : 조선시대 성리학자이며 기호학파의 거두인 율곡 이이 선생의 유덕을 추앙하고 정신을 계승하고자 열리는 파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제이다. 이번 축제는 10일 율곡고등학교에서 자운서원에 이르는 3.1㎞ 구간에서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율곡 선생의 장원급제 후 귀향 행렬 재연 및 시민 길놀이를 시작으로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으며 이어서 자운서원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거행되었다.
  이후 추향제, 율곡사상 학술회의, 놀이마당과 장원급제 퀴즈대회, 사생 휘호대회, 율곡백일장 등의 다채로운 문화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축제를 즐겼다.행사 2일째인 11일에는 화창한 날씨로 인해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많이 몰렸으며 특히 어르신들은 금산리 민요보존회 정기공연, 어르신 초청 잔치마당 전통문화 기로연, 어르신 참여 가요 경연대회 효 가요제, 전통문화 어울마당 등 축제를 즐기며 즐거운 휴일 한때를 보냈다. 12일에도 전국 한시백일장, 전통혼례, 강호중과 뮤지꼬레 공연, 전통줄타기, 서원음악회가 열려 참가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으며 율곡선생과 황희정승, 윤관장군 등 파주3현 관련 유적을 답사하는 파주 3현 유적지순례 프로그램도 참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율곡선생 일화전과 전국 율곡서예대전, 서각체험, 다식만들기 체험, 염색 및 도자기 체험 등의 다채로운 전시 체험행사들이 펼쳐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행사를 즐겼다.

화보

파주문화원 - 종로문화원 자매결연

- **일　　시** : 2008. 10. 12. 오후 1시
- **장　　소** : 자운서원 행사장
- **행사내용** : 문화원 간 사업 교류를 통해 문화사업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사업별 협조관계 구축으로 원활하고 발전적인 문화사업 전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문화원과 종로문화원간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

사업추진의 배경은 2007년도에 문화원간 교류 및 사업협조를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협의하였고, 제21회 율곡문화제 '파주3현 유적지 순례' 에 종로문화원이 참여하면서 자매결연식 개최를 합의하여, 2008년 율곡문화제 행사 기간중 자운서원에서 파주문화원 이사, 감사, 자문위원, 내빈, 향토문화연구소 등 80여 명과 종로문화원장 및 회원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 자리에서 파주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의 축하인사가 있었으며 파주문화원 민태승 원장은 "파주 · 종로문화원간의 자매 결연은 양문화원간 사업 교류를 통한 문화사업의 다양화와 사업별 협조를 통한 발전적인 문화사업 전개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고 전했다. 자매결연 조인식이 끝나고 사물놀이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파주3현 유적지 순례' 가 진행되었다.

2008 파주개성인삼축제

- **일　　시** : 2009. 10. 16.(목) ~ 10. 18.(토)
- **장　　소** : 파주 임진각 광장
- **주　　최** : 파주시
- **주　　관** : 파주개성인삼축제추진위원회, 인삼농협
- **행사내용** : '파주인삼이 개성인삼입니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친환경 고품질의 6년 근 인삼을 직접 구입, 건강까지 생각함은 물론 파주 개성인삼 캐기, 인삼경매, 인삼우유마시기 등 인삼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가족단위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파주개성인삼 캐기, 인삼경매, 인삼우유 마시기, 파주 개성인삼 밥 시식회, 인삼주 담그기 퍼포먼스 등의 체험 먹거리 프로그램과 함께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파주개성인삼포 전시, 파주개성인삼 약초동산 조성 등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또 주세붕 관찰사 행차 및 보부상 재현, 인삼 조형물 제막식 등 기념행사와 세계 민속공연, 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축제 조직위가 파주개성인삼을 비롯해 각종 나물을 넣어 만든 2000인분의 대형 웰빙 인삼비빔밥을 지어 무료로 나눠주어 방문객들은 두 배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2008년도에는 75만명이 방문하고 65억원의 매출을 올려 축제가 성황리에 끝나 파주가 청정 6년근 인삼 특산지로 자리매김하게 됨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 인삼 허브기지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화보

2008 파주 장단콩 축제

- **일　　시** : 2009. 11. 21.(금) ~ 23.(일)
- **장　　소** : 파주 임진각 광장
- **주　　최** : 파주시
- **주　　관** : 파주장단콩축제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기도, 파주시의회, 경기관광공사, 대한주택공사,(주)C&M경기케이블 TV, 파주장단콩연구회
- **행사내용** :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웰빙 명품! 파주 장단콩! 세상' 이란 주제로 3일간 진행되었으며 행사장에는 약 8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지난해 대비 전체매출액도 1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기간 35억 상당의 콩 8천 5백 가마와 기타 농산물 등 총 70억 원 어치의 파주 농특산물이 판매됐으며 장단콩떡 자르기, 웰빙 두유마시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맛을 보고 구입하게 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2천여 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대형 전통 가마솥이 특별히 제작, 가마솥으로 지은 파주장단콩 밥맛 시식회가 열렸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30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파주장단콩을 주제로 요리경연대회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또 파주의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의 하다노시 다이코팀의 일본전통북 공연과 세계민속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진행된 '어울마당' 이 축제기간 내내 계속돼 단순한 직거래 장터가 아닌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주문화원 제8기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

- **일　　시** : 2008. 12. 11.(목) ~ 13.(토) (서예) 10시~17시
- **장　　소** : 파주시민회관 4층 소공연장 및 전시실
- **행사내용** : 2008년을 마무리 하면서 제8기 파주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 전시회가 마련되었다. 문예창작반, 향토유적답사반, 경서강독반, 서예반, 문화유산해설사반, 실용서예반, POP예쁜손글씨반, 향토문화체험반의 강좌에서 총 82명이 수료했다. 7개월이라는 짧지만은 않은 기간 동안, 이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은 보다 완성된 '나' 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 전시회를 통해 세상에 선보이는 자리가 되었다.

화보

청소년동아리 박람회 &경진대회

- **일　　시** : 2008. 12. 19(금)~ 20.(토)
- **장　　소** :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 전시실
- **주최/주관** : 경기도, 문산청소년문화의집
- **후　　원** : 파주시, 파주문화원, 경기도파주교육청
- **행사내용**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성과를 발표 · 소개하고 동아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교류의 장으로 12월 19일(금)부터 20일(토) 이틀간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과 전시장에서 각 학교 및 동아리의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공연(댄스 · 가요 · 밴드 · 연극), 전시분야의 경진대회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 경진대회에서 대상은 광탄중학교 사물놀이팀 '넓은여울' 이 차지하였다. 우수상은 율곡고등학교 '예터밟기' , 금촌고등학교 '네이팜' 장려상에는 지산중학교 '방황하는 별들' , 문산청소년문화의집 '푸른 길잡이' 인기상은 문산여자고등학교 '수화반' 이 받았다.
  또한 파주시장 수여 지도자상은 광탄중학교 '4-H' 김신년 선생님과 율곡고등학교 '예터밟기' 구종형 선생님이, 파주교육장 수여 지도자상으로는 금촌고 '네이팜' 백옥진 선생님, 지산중학교 '연극부 ; 방황하는 별들' 오승훈 선생님이 수상하였다.

책읽는 파주 2008 '내 인생의 책 한권'

- **일　　시** : 2008. 8. 20.~ 9. 25.
- **장　　소** : 파주 중앙도서관, 파주문화원
- **주　　최** : 파주시, 파주교육청, 파주문화원
- **주　　관** : 책읽는 파주추진협의회
- **행사내용** : 시민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마련한 책읽는 파주 2008 행사가 '내 인생의 책 한권' 이라는 주제로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중앙도서관 및 파주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책 읽고 표현하기' 와 '파주시민이 읽은 내 인생의 책 100선' 을 응모하는 범시민 독서활동대회로 치러졌다. 특히 '책 읽고 표현하기' 의 경우 기존의 독서감상문대회와는 달리 지정된 도서 없이 그 동안 읽은 책 중 가장 인상깊은 책을 선택하여 글은 물론 그림, 영상(UCC), 연극, 퍼포먼스, 음악 춤 등 몸으로 표현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은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였다. 심사결과는 책 읽고 '글로 표현하기' 대상에 양동용(일반), '그림으로 표현하기' 대상에 황가현(금릉초 4), '글과 그림, 영상으로 표현하기' 대상에 금화초 1학년 1반(단체), '몸으로 표현하기' 대상에 Love, Happy and Frends(와동초-단체)등이 수상하였다.

제3회 곡릉천 보리축제

- **일　　시** : 2008. 6. 15.
- **장　　소** : 금촌동 곡릉천 칠간다리
- **행사내용** : 보리수확의 즐거움을 나누는 제3회 곡릉천 보리축제가 6월 15일 금촌동 곡릉천 칠간다리 아래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에는 시가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 곡릉천 자전거도로 주변 4.3km 구간에 심은 보리수확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인 태평 12지 놀이, 개회사, 보리타작시연, 보리 체험 마당,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가족단위로 참여한 주민들은 보리구워먹기, 보리피리 만들기, 보리타작, 보리방아찧기, 보리알꾸미기 등 보리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또 3km구간의 곡릉천을 완주하는 가족걷기대회에는 약 250가구가 참가해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화선 파주시장 등 시 관계자와 주민 등 약 3천명이 참석했다.

화보

2008 파주해넘이축제

- **일　　시** : 2008. 12. 31.(수) 오후 4시~7시
- **장　　소** : 파주시 교하읍 심학산
- **주최/주관** : 파주시/파주문화원
- **행사내용** : 지나온 한 해 서로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함께 나누고자 노을이 아름다운 곳, 교하 심학산에서 해넘이축제가 마련되었다. 오후 4시 심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풍물놀이 한마당을 시작으로 심학산에 올라 일렉쿠키 등 해넘이 공연과 송년메세지 전달, 희망풍선 날리기, 전통등 및 청사초롱 점등, 파주시 합창단 공연 등의 행사가 한강물을 붉게 물들이며 지는 해와 어우러져 아름답게 펼쳐졌다. 이어서 해넘이 콘서트가 열려 조덕배, 나무자전거, 두드락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전통등의 전시와 불꽃놀이가 저물어가는 2008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통일염원 새해맞이 2008 제야행사

- **일　　시** : 2008. 12. 31.(수) 22:30 ~ 2009. 1. 1.(목) 00:30 (120분)
- **장　　소** : 임진각 평화누리, 평화의 종각
- **주　　관** : 경기도
- **행사내용** : 한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염원 새해맞이 제야행사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되었다.
  화해 · 협력 · 상생 · 통일의 관문 임진각을 배경으로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평화누리 음악의 언덕에서 열리는 제야행사에는 2PM, 샤이니, 브라운아이드걸스, SG워너비 등 유명가수들이 출연해 축하공연을 펼쳤다.
  이어 자정에는 평화의 종각에서 김문수 지사와 진종설 도의회 의장, 류화선 파주시장, 베이징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 등 24명의 인사가 새해를 알리는 평화의 종을 타종하였다.

제7회 문화예술제 개최

'우리들 세상, 청소년이 아름답다'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그간 배우고 익힌 실력을 맘껏 발산하고자 문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3월 1일 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다. 행사내용은 한지공예 거울만들기, 찰흙만들기, 창작미술전시, 바둑대회 등 체험마당과 관악협주(파주피스앙상블 팀)의 축하공연, 시낭송, 밴드, 째즈댄스, 마술, 스포츠댄스, 기린아 등의 문화공연, 그밖에 수화공연, 어린이 발레, 노래교실, 랩(힙합) 등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세계 전통 활 · 화살의 어제와 오늘' 전

탄현면 법흥리의 활·화살 테마 박물관인 영집궁시박물관에서 '세계 전통 활·화살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테마로 세계 각국의 전통 활과 화살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4월 16일부터 5월 13일까지 개최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의 박물관 지원사업으로 실시된 이번 특별전은 일본의 죽궁, 중국의 탄궁, 티벳의 각궁, 인도의 게활, 영국의 목시, 북미 인디언의 화살 등 각국의 다양한 형태의 활과 화살들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전시였다.

여원미디어 파주회화예술제

예술을 통한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국민정서 함양을 위한 2008 파주회화예술제가 4월 19(토)~5월 3(토)까지 파주출판단지 내 탄탄스토리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번 예술제는 축제의 개념으로 회화예술, 연극예술, 소리공연 등 3개의 활동 영역으로 나뉘어 동시에 펼쳐져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의 융합으로 축제의 멋을 더했다.

씨너스 이채 "어린이 영화제" 개최

제3회 씨너스 이채 어린이 영화제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씨너스 이채에서 열렸다. 2008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와 함께 열린 이번 영화제는 가족 단위 관객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네 편을 상영하였다. 상영작은 〈로보트 태권 V〉 〈파워레인저-매직포스 &트레저포스〉 〈미운오리새끼와 랫소의 모험〉 〈포켓몬 레이저와 바다의 왕자 마나피〉 등이다.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 '음악의 언덕' 대공연장에서는 5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주 일요일 경기도 산하의 5개 예술단이 선사하는 고품격 공연과 피크닉, 자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대중친화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대규모 상설공연이 진행되었다. 총 26회로 경기도립오케스트라, 리듬앙상블, 경기도립무용단, 경기도립극단, 경기도립국악단이 '마당놀이 맹진사댁 경사' '코리아 환타지'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CBS 제1회 전국민 통일희망 마라톤

남북평화통일 기원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CBS 제1회 전국민 통일희망 마라톤 대회'가 5월 17일(토) 오전 9시 30분 통일의 관문 임진각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CBS와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최하고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1만여명의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없이 참가해 남북분단의 대표적인 상징물 파주 임진각에서부터 철조망을 끼고 유유히 흐르는 임진강을 따라 하프코스(21㎞), 일반코스(10㎞), 임진각체험코스(5㎞), 희망나누미코스로 나눠 자유로를 달렸다.

제8회 금촌거리문화 축제

금촌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금촌거리문화축제가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문화로, 명동로, 금정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금촌번영회 주최로 진행되는 이 축제에서는 공연행사로 청소년가요제(JC), 댄스공연, B-Boy, 휘트니스, 칵테일쇼, 자장

면 먹기대회, 음악줄넘기, 에어로빅, 여자팔씨름, 태권무, 택견, 요가, 민속마당, 명동시민 가요제, 합기도, 사물놀이, 금촌2동 공릉천 보리축제 노래자랑 예선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체험행사로는 도자기, 페이스페인팅, 거리 시화전시, 놀이마당, 수지침, 미술체험, 석고 손뜨기, 하나공예, POP, 비스공예, 리본공예, 건치상담, 사랑의 꽃 나누어 주기 등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도라산 평화공원 준공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도라산 평화공원이 2003년 착공한 지 5년만인 6월 13일에 장단면 경의선 도라산역 인근에 준공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공원은 민통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3땅굴 등 기존 안보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코스가 개발되어 일반에 개장될 예정이다. 경기2청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2003년부터 110억원을 들여 DMZ자연생태 체험공간과 통일의 숲으로 구성된 도라산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해 왔다. DMZ자연생태 체험공간에는 7천246㎡ 규모의 생태연못과 627㎡의 관찰데크가 마련돼 있고 인근 352㎡ 규모의 전시관에는 입체영상 등으로 DMZ 자연생태 자료를 볼 수 있게 했다.

모여라! 우리들만의 축제

6월 14일(토) 문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해 봄으로써 그동안 단순히 참여만 하는 수동적인 청소년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유도하고자 '모여라! 우리들만의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체험마당과 놀이마당, 전시마당, 공연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먹거리 바자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북한물품 전시

파주 오두산전망대는 옷, 화장품, 학용품, 주방기구 등의 북한 물품과 고 김일성 주석의 얼굴이 새겨진 화폐 등 북한 물품 400점을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전시하였다. 이들 물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집된 것으로 22~24일에는 탈북자가 직접 물품에 대해 설명해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술이홀 樂 새김전

한국서각협회 파주지부 회원들의 정성어린 서각작품이 7월 5일부터 8일까지 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전시되었다. 서각협회 초대회원, 파주지부 회원, 덕암초교 서각반, 탄현중학교 서각반, 율곡고등학교 서각반 등의 창작 서각작품 80여 점을 파주시민들에게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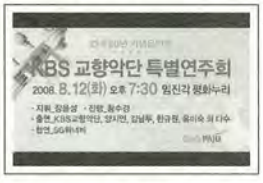
교하도서관 개관

파주시교하도서관이 첫 삽을 뜬지 1년 4개월여 만인 7월15일 문을 열었다. 교하도서관은 전국 최초로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지어진 도서관으로 지난해 3월 착공, 민간투자비 110억원을 들여 건물연면적 8,53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628석의 좌석과 5만7천여권의 장서를 갖췄으며 20만권을 소장할 수 있는 보존서고와 북카페, 문헌정보실, 어린이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문화교육실, 나눔방, 소극장등과 편안한 독서와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브라우징룸, 지역내 부족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교하읍 동패리 중앙공원과 송골공원사이에 위치, 수려하고 쾌적한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외관과 첨단시설을 갖춘 교하도서관은 6월16일 이화여자대학교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 7월15일부터 본격 운영되었다.

파주삼릉 옛 사진전

파주삼릉 관리소에서는 과거의 파주삼릉(공순영릉)의 모습을 담은 사진공모를 통해 '파주삼릉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과거와 현재를 대비, 파주삼릉의 옛 모습과 그와 관련된 개인의 추억을 더듬어 보는 자료서를 발간하고 그 중 의미가 있는 작품을 선별하여 "국민이 함께하는 파주삼릉 옛 사진전"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파주삼릉 내 영릉 앞에서 전시하였다. 학생들의 소풍사진과 가족들의 나들이 사진 속에 나타난 오래된 삼릉의 옛모습 등이 시민들에게 보여졌다.

대한민국 건국60년 KBS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대한민국 건국60년을 기념하는 KBS교향악단의 특별연주회가 8월12일 오후 7시30분부터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펼쳐졌다. 정세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특별연주회는 박상현 지휘자의 지휘로 95명의 KBS교향악단이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을 시작으로 드볼작의 슬라브무곡 8번작품 46 등 매혹적인 선율을 클래식 음색으로 담아내며 한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이와 함께 테너 김남두, 강무림, 박현재와 바리톤 한규원, 소프라노 유미숙이 함께 출연해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모두 즐겁게 술을 마시고' 등을 노래하며 인기가수 SG워너비와 양희은이 함께 출연해 자신들의 히트곡은 물론 명곡들을 선보였다.

2008 경기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일반인 출입 통제지역인 민통선 구간을 달리는 '2008 경기 평화통일 마라톤대회'가 9월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서 열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마라톤대회는 일부 구간이 민통선 안쪽에 위치해 분단의 현실을 되새기며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민족화합의 장이 되었다. 특히 올해는 풀 코스(42.195㎞)가 추가돼 21㎞ 하프와 10㎞ 등 모두 3개 코스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되어 MBC 공개방송 강석.김혜영 진행의 '싱글벙글쇼'가 현지에서 진행되고 DMZ 사진 및 전쟁유물 전시, 어린이 달리기, 평화의 탑 메시지적기, DMZ 생태체험, 비보이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제4회 통일로 미술대회

제4회 통일로 미술대회가 9월 27일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하니랜드에서 열렸다. 파주시 조리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배종진)에서 준비한 이번 대회는 관내·외 유치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연보호, 기초질서 확립, 환경오염방지 등 자연환경을 주제로 미술대회를 펼쳤다. 또한, 대회 중간에는 홍익대 인디밴드, B-Boy 공연, 난타, 댄스경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졌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교하갈대축제

9월 28일 파주출판단지 생태공원에서 교하읍 주민자치위원회와 체육회가 주최하는 '2008 교하갈대축제'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교하갈대축제는 봄에 붉은 양귀비꽃과 각종 야생화의 향연이 펼쳐졌던 심학산돌곶이 꽃축제장 생태습지를 갈대와 코스모스로 새롭게 단장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났다. 한마음 걷기대회와 단축마라톤대회를 시작으로 교하읍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주민화합한마당 공연, 주민노래자랑과 유명 초청가수들이 함께하는 갈대사랑 페스티벌로 맑은 가을하늘 아래 화합과 가족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가족문화제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개소 2주년 기념행사로 8월 22일 가족문화제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및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가족장기자랑대회,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 복화술 공연, 가족체험마당(가족메모판만들기, 가족소망달기 등) 및 전시공연(가족사진콘테스트, 작품전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심학산 정상 노을 음악회

심학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감미로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심학산 정상 노을 음악회』가 8월 30일 심학산 정상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출연자는 파주윈드오케스트라(지휘자 이용근 외 50), 김영준(바이올린), 추가열(초대가수), 강호중(국악가요) 등으로 동서양의 조화 "비빔" 및 관현악속으로의 여행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전통연희단 꼭두쇠와 함께하는 국악 콘서트

국악은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끗하게 날려준 신나는 국악공연이 9월 20일 법원도서관 야외주차장에서 펼쳐졌다. 대취타, 모듬북, 삼도사물놀이, 봉산탈춤, 판소리, 창작사물판굿 등 다양한 전통연희를 즐길 수 있는 가족대상 국악공연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교하두레풍물,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우수상 수상

문산제일고 학생들로 구성된 교하두레농악팀이 지난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청소년민속 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교하풍물놀이의 전국대회 출전은 지난 2006년 의정부에서 열린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문산제일고와 교하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파주시대표팀 '교하두레풍물놀이'로 최우수상을 수상해 전국대회에 출전권을 획득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당시 출전팀의 한 주축을 이뤘던 교하중학교 풍물팀 '시나위'는 행사 참가와 훈련 등에 따른 학업부담 등을 이유로 해체되었다.

파주개성인삼 캐기 체험행사

경기 파주개성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인삼 캐기 체험행사가 10월 18일, 19일 양일간 파주 민통선 인삼밭에서 펼쳐졌다. 파주시가 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이해와 파주 민통선 지역에서 생산되는 6년근 인삼을 홍보하기 위한 마련한 인삼 캐기 체험행사에는 매년 도시 소비자들이 몰리며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2008 북쇼

경기도에서는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30일간 파주출판도시에서 '2008 북 쇼(Book Show)'를 개최하였다. 경기도와 KBS가 주최하고 한국출판인회의와 KBS미디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방송과 전시, 공연이 결합된 형태의 책 축제로 진행되었다. '손에 책'을 주제로 열린 전시회에는 대동여지도 진본과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본의 고지도, 독립신문사가 발간한 '사변보고서' 등 희귀자료가 소개되었으며 공지영, 구본창 등 학계. 문화계 인사와 방송스타의 애장서도 함께 전시되었다.

탄현 삼도품 축제

북쪽에서 흘러내려온 임진강과 남한의 젖줄 한강이 탄현에서 서로 엉키어 하나가 되어 큰 서해바다로 힘차게 흘러가고자 하는 염원을 모티브로 하여 '탄현 삼도품 축제'가 10월 25일 통일동산 공원에서 탄현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문산제일고 통일 길놀이와 파주시립합창단 공연, DMZ락 콘서트, 삼도품가요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문산거리 축제

'사랑해요 문산, 함께해요 거리축제'란 테마로 시민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활기한 문산 축제의 장이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었다. 문산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문산읍 문향로(한진약국~하모니마트, 우체국앞도로)에서 임진강가요제, 문산읍노래자랑, 중국기예단, 가훈써주기, 골판지공예, 떡매치기 등 다양한 행사로 문산읍민에게 흥겨움을 주었다.

제10회 임진강 가요제 개최

문산 거리축제의 부대행사로 제10회 임진강 가요제가 결실의 계절 10월 파주 문산시내 특설 무대에서 개최되었다. 파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연예협회파주지부가 주관한 이번 임진강 가요제는 10월 18일 예심을 거쳐 10월 26일 본선으로 치러졌으며 대상은 오재훈씨가 차지하였다. 금상에는 김용근, 은상에 김선숙, 동상에 신지훈, 장려상에 김성대, 인기상에 배남례, 가창상에 이용해씨가 수상하였다.

DMZ 한걸음! 큰걸음! 통일을 향한 걸음

'2008 자원봉사 성화가 파주에서 개성으로'라는 주제로 임진각에서 총5.5km의 구간을 걷는 평화통일 염원 걷기행사가 10월 25일(토)에 있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38선이 존재하는 파주에서 민간인 통제구역인 통일대교를 걸으면서 우리민족 최대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기원하고자 가족, 동호회, 직장동료들이 참여하여 함께 걸으면서 평화 통일의 염원을 북녘땅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문화엑스포

'청소년 문화공간 100% 로 즐기기'라는 주제로 금촌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11월 1일 청소년 문화엑스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장소별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다목적실에서는 부모교육, 청소년 경제 비타민 교육, 영화상영, 북카페에서는 나만의 책만들기, 마술교실, 댄스실에서는 빛나는 청소년 리더십 특강, 정보자료실에서는 열린 무료의 날, 야외 공원에서는 찾아오는 미니동물원, 야외 체험장에서는 다문화체험관, 가족체험관, 자연체험관, 흥미진진 체험관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의 문화감성을 한껏 키우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파주 청소년 가족사랑 대장정의 프로그램으로 가족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이 되었다.

프랑스 그림책 원화전

한국에서 첫 선을 보이는 '프랑스 그림책 원화전'은 마티유 루셀, 막스 뒤코스 등 현재 프랑스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30명의 다양한 그림책 원화 150점이 11월 15일부터 네버랜드 픽처북 뮤지엄(파주헤이리 예술마을 아티누스 지하 1층)에서 전시되었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이번 전시는 현대 프랑스 그림책의 다양한 표현과 특징을 한눈에 눈여겨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이번 전시는 프랑스 대사관의 France Express 축제와 함께하는 행사로 프랑스 문화의 깊이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제8회 파주시합창단 정기연주회

8회째를 맞는 파주시합창단(지휘자:송성철)의 정기연주회가 11월 19일 저녁 7시 30분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파주시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 아래,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리톤 김동규와 러시아의 천재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이조토프가 출연하였으며 탤런트이자 아나운서로 활동중인 임성민의 사회로, 시민들에게 다채롭고 품격있는 클래식 음악을 선사하여 클래식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파주목 봉황축제

파주읍의 오랜 숙원이었던 읍청사 신축과 봉서산 산림공원 준공을 기념하기 위한 2008 파주목 봉황축제가 11월 30일(일) 읍사무소 신청사(파주리 기용아파트앞)와 봉서산 산림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걷기대회, 경로잔치, 봉황페스티벌 등 함께 걷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파주읍 주민들의 흐뭇한 마음을 담아내었다.

2008 송년음악회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송년음악회가 12월 18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파주윈드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용근외 50인)가 연주하였으며 파주시연합합창단(100명) 웅장한 화음으로 대공연장을 채웠다.

기획

독립운동가의 고장, 파주

편집실

파주는 인물이 많은 고장이다. 파주3현의 율곡 이이, 황희, 윤관 외에도 수많은 학자와 충신, 청백리, 정치가. 관직자 등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파주의 역사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중에 국가와 민족의 치욕적인 일제 강점기 시기에 3.1 만세운동 및 의병활동, 군자금 모금, 임시정부 관련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던 자랑스러운 파주의 인물들이 있다.

올해 초에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2009년 이 달의 독립운동가'에 파주출신 윤기섭(4월) 박찬익(8월) 선생 등 2명이 선정되었고, 또한 심상각은 '2009 경기도 문화인물(4월)'에 선정되어 파주가 독립운동가의 고향임을 알렸다.

'이 달의 독립운동가'는 지난 1992년부터 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조국독립을 위해 .몸을 바친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매년 연초에 월별로 한명씩 선정하며 유관순. 윤봉길. 이봉창. 정인보. 한용운 선생 등이 선정되었다. 파주출신으로는 정태진(1997년 11월) 조소앙(2005년 9월) 선생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 선정된 파주출신 독립운동가 윤기섭, 박찬익, 심상각, 정태진, 조소앙 선생의 독립운동 활약상에 대해 알아보고,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을 해온 우리 고장 독립운동가들의 조국애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윤기섭尹琦燮

1887(고종 24)~1959. 파평면 마산리에서 출생한 항일독립운동가로 본관은 파평坡平이다. 호는 완운蜿雲이며 일명은 중규仲圭다. 윤기영尹耆榮의 차남이다.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동안 정주 오산학교五山學校의 교사로 재직하였다. 1911년에는 간도에서 이시영李始榮·이동녕李東寧·김동삼金東三·이광李光 등과 군관양성을 위한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고 신흥강습소를 설치하여 이후 신흥무관학교의 학감. 교장으로 10여 년간을 재직하였다.

1920년에는 고려공산당에 가입하였고, 1921년 3월 임시정부의 개조 및 재조직을 주장하는 국민대표회에 반대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이승만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23년 6월에는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1924년에는 『보병조전步兵操典』이라는 군사교육서를 발간하였다.

1926년 김구 내각에 이규홍李圭洪·김철金澈 등과 입각하여 선전을 책임지고 활동하였으며, 1927년에는 개헌안 기초위원, 1930년 군사위원회 위원장, 1933년 군무차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중책을 맡아 활약하였다. 한편, 1929년에는 난징南京에서 민병길閔丙吉·성주식成周寔·신익희申翼熙 등과 한국혁명당을 조직하였다.

1933년 홍진洪震 등이 제휴하여 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을 결성하자 김상덕金尙德 등과 상무위원을 맡았으며, 1934년에는 김두봉金枓奉·김규식金奎植 등과 함께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 민족연합세력 구축에 노력하였고,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을 맡는 등 대일투쟁에 전력하였다.

광복 직전인 1944년에는 김원봉金元鳳이 주임을 맡고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군사학편찬위원 부주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광복 후 1946년 2월 귀국하여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으로서 당기관지인 ≪앞길≫의 사장을 역임하였다.

1946년 2월 15일 좌익세력의 연합체로 결성된 민주주의민족전선의장단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1946년 12월에 결성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조선민족혁명당 대표로 관선의원에 선출되어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46년 미군정하에서 입법의원 부의장에 선출되었으며 1948년에는 국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였고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6·25전쟁 때 납북되어 1956년 7월 안재홍安在鴻·엄항섭嚴恒燮·오하영吳夏榮 등 납북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1959년 반혁명분자혐의로 구속되어 숙청되었다. 1989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박찬익朴贊翊

· 1884년~1949년

항일독립운동가로 호는 남파南坡이고 별명은 박정일樸精一, 박순樸純이다. 주내면(현 파주읍)에

서 박봉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04년 관립상공학교官立商工學校에 재학 중 국권 회복을 위하여 여러 차례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퇴학당하였다. 그 후 1907년에 조직된 신민회新民會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08년 4월 관립공업전습소官立工業專習所에 입학하여 1910년에 졸업하였다. 그때 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자 박승익朴勝益 등 10여 명과 같이 저항운동을 전개하다 그해 겨울 만주 용정으로 갔다. 북간도에서 독립투쟁가 이상설·백순 등의 지도로 독립 투쟁을 계획하는 한편, 대종교 도사교都司敎 나철의 권유로 대종교에 입교하였다.

1912년에는 화룡현 삼도구 청파동에 한국인학교를 설치하고 애국사상과 자립사상을 고취하는 동시에 대종교의 정교직을 맡아보면서 포교에도 힘썼다. 1915년 중국인 교육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었으나 일제의 탄압이 심하여 북간도를 떠나 길림으로 피신하였다가 상해로 갔다. 상해에서 신규식과 제휴하여 동제사同濟社를 창설하고 노령의 동지와 긴밀히 연락하였다. 1919년 3·1운동 후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지자 이동녕, 이시영, 조소앙 등 30여 명의 독립지사와 같이 이에 참여하고 임시의정원 위원이 되어 임시정부 육성에 진력하였다.

또한 1919년 4월 서울에서 조직된 한성임시정부에서 박은식·신채호 등과 같이 평정관評政官으로 선출되었다. 1919년 8월 정의단正義團이 서일을 중심으로 대한군정서로 개편되었을 때 외교처장직을 맡으며 이 단체를 임시정부 산하로 편입시켰다.

1921년 7월 임시정부 외무부 외사국장 겸 외무차장대리로 외교업무를 전담하며 대중외교에 전념하였다. 이때 외무총장 신규식이 국무총리를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외교업무를 대섭代攝하였던 것이다. 그해 8월에는 안창호와 같이 재정적으로 궁핍하여진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정부경제후원회'를 조직하여 의연금 모금에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1921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워싱턴애서 9개국이 모여 태평양회의를 열 때 임시정부에서 태평양회의 외교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그 간사로 선임되어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그해 11월 신규식이 중국 호법정부護法政府에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외교공세를 펼 때 그 부사副使의 자격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중국 호법정부 총통 손문으로부터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어내었다. 1922년 9월 신규식이 죽자 동제사의 이사장이 되어 한중합작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32년 윤봉길의 의거로 임시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김구를 도피시켰다.

1933년 5월 김구와 같이 남경중앙군관학교 구내에서 장개석을 면담하여 낙양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을 설치하게 하고 한국인 청년을 입교시켜 군 간부의 양성에 기여하였다. 1940년 임시정부를 중경으로 이전시키고 10월 국무위원이 되었으며, 1945년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단장으로 활약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심상각沈相恪

· 1888년~1954년

항일독립운동가로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호는 우산又山이다. 현감縣監 정택定澤의 아들이다. 김포에서 태어나 파주에서 성장하였다.

1919년 3월 10일 파주 지역에서도 임명애林明愛 등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났고, 3월 25일 구세군救世軍인 염규호廉圭浩가 김수덕金守德 · 김선명金善明 · 임명애 · 김창실金昌實 등과 더불어 시위를 계획하여 3월 26일 와석면 일대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만세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심상각은 김웅권金雄權 등과 함께 월롱 · 교하 · 가동 · 조리면 등지의 장날을 이용하여 군 전체가 봉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3월 27일 2,000명의 시위 군중이 광탄면사무소 앞에 집결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조리면 봉일천리 장터로 행진하여 그곳에 있던 1,000여 시위 군중과 합세하여 봉일천 헌병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만세 시위를 벌였다. 심상각은 시위를 주동한 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상해농업전문학교에 적을 두고 신교육을 받으면서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약 10년간의 임시정부 활동을 마감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신간회新幹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파주 광탄면에 광탄보통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에 취임하여 후진 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전념하였다. 1977년 대통령 표창,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정태진丁泰鎭

· 1903년~1952년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로 본관은 나주羅州이며 호는 석인石人이다. 금능동 출신으로 아버지는 규원이며, 어머니는 죽산 박씨이다. 삼형제 중 맏아들로 태어나 1917년 4월 경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21년 3월 4년제를 졸업하였다. 1918년 3월 안동 권씨인 정옥과 혼인하였다. 1925년 3월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영생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3년 뒤인 1927년 5월 미국으로 유학하여 우스터 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1931년 다시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과정을 마친 다음, 1931년 9월 귀국하여 영생고등학교에서 다시 교편을 잡았다.

1941년 6월 영생고등학교를 떠나 조선어학회지금의 한

글학회에서 조선말 『큰사전』 편찬의 일을 맡아보다가, 1942년 9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홍원경찰서에 구금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함흥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다시 시작하는 한편, 연희대학·중앙대학·홍익대학·동국대학 등에서 국어학 강의를 맡았다. 1950년 6·25전쟁으로 고향에서 피신하였고, 1·4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1952년 서울로 돌아와 『큰사전』 속간을 위하여 전념하다가 11월 교통사고로 죽었다. 저서로는 『한자 안 쓰기 문제』 (어문각, 1946), 『중등국어독본』 (김원표와 공저, 한글사, 1946), 시가집 『아름다운 강산』 (신흥국어연구소, 1946), 『고어독본』 (연학사, 1947), 『조선고어방언사전』 (김병제와 공저, 일성당서점, 1948) 등이 있다. 1962년 대한민국건국공로훈장 단장單章이 추서되었다.

조소앙趙素昻

· 1887년~1958년

항일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 본관은 함안咸安이며 자는 경중敬中, 본명은 용은鏞殷이다. 1887년 4월 30일 경기도 교하군(현 파주군) 월롱면에서 부친 이화제理化齊 조정규趙禎奎공과 모친 박필양朴必陽여사 사이에서 6남 1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16세까지 한학漢學을 공부했으며, 18세에 관비官費로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에 들어가 수학하였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구국학생단체를 조직하였다. 1913년 졸업 후 귀국해 조선법학전수학교朝鮮法學傳修學校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후 1918년 만주 길림성에서 동지 39인과 함께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대한독립의 금부를 조직하였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상해로 건너가 각지에서 모인 지사들과 독립운동의 최고 통수 조직을 위한 논의 끝에 4월 10일 조성환曺成煥, 김동삼金東三, 이회영李會榮, 조완구趙琬九, 신채호申采浩, 한진교韓鎭敎, 선우혁鮮宇爀, 이광수李光洙, 이시영李始榮, 신익희申翼熙, 남형우南亨祐 등과 상해 프랑스 조계의 김 신부神父 집에 모여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어 이동녕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임시정부 수립의 기초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4월 13일 내외에 독립정부 성립을 선언하고 국무위원 겸 외무부장, 국무원비서장, 의정원 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같은 해 7월 유럽에서 열린 제2차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에 대표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독립과 임시정부 승인 문제를 36개국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돌아오는 길에 영국과 소련을 순회하고, 1922년 임시정부의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안창호·김구 등과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하였다. 같은 해 북경에서 범한독립당汎韓獨立黨 촉성회를 조직하고 1928년 임시정부의 여당與黨으로 김구·이시영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창당해

총무부장이 됐다. 1937년 독립운동단체의 연합체인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陳線을 결성할 때 한국독립당 대표로 참가해 운영간부에 선출되었다. 1940년 광복군을 창설해 독립당 당수로 건국강령을 저술하여 임시정부 국시로 결정하였다.

해방 후 귀국해 이승만·김구 등과 국민의회國民議會를 결성, 상무위원회 의장을 지내고 1946년 한국독립당 부위원장이 되었다. 1948년 4월 김구,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에 찬동해 평양에 갔으나 실패하였다. 그 후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정부 수립에 불참하며 사회당을 조직하여 당수로 추대되어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성북구에서 조병옥 후보를 누르고 전국 최고 득점으로 당선되었지만 6·25 전쟁 때 납북되어 사망하였다.

평양에 묘가 있으며, 양주시 남면 황방리에는 후손들이 조소앙의 생사를 모를 때 의관만으로 만들어 놓은 묘가 있다.

* 자료출처 : 국가보훈처

파주저널

제 531호 발행 · 편집인 권희경 / 인쇄인 류석보 / 등록번호 다-00057 /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파주 '독립운동가의 고향' 자리매김

윤기섭 선생

독립군 양성기관

신흥무관학교 창설

박찬익 선생

대중국 외교에

새로운 지평 열어

"기업이 투

김문수 도지사

축구협회장

파주저널 531호 (2009년 1월 12일자)에 '올해의 독립운동가' 윤기섭, 박찬익 선생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 관련 사진

유묵 임시의정원 의원당선증 임시의정원의원 기념사진

윤기섭 관련 자료

어록비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환송기념사진

박찬익 관련 자료

기획

日常속에 투영된 목화와 짚, 그 소박함과 투박함의 美

이 윤 희 (파주문화원 이사)

목화(木花), 그 소박함의 美

목화따는 아가씨

'목화를 따세 목화를 따 목화 풍년일세. 서산에 해가 지면 님이 돌아온다네. 목화 따러 가는 총각들이 목화 싣고 오는 처녀들이 고개 넘어온다 고개 넘어온다. 열 두 고개 넘어온다 잘도 넘어온다. 어 어 잘도 넘어온다. 목화를 따세 목화를 따 목화 풍년일세. 서산에 매기 울면 님이 돌아온다네. 목화 따러 가는 총각들 목화 싣고 오는 처녀들 물방아는 돈다 물방아는 돈다. 물방아는 돌아간다 잘도 돌아간다. 어 어 잘도 돌아간다.'

우리나라 국민노래로 불려지는 <눈물젖은 두만강>을 불렀던 故 김정구 선생의 노래 <목화송> 가사다.

흘러간 노래를 찾다보니 목화에 대한 노래가 꽤 여러 곡이다.
70년대 '하사와 병장'이란 남성 듀엣이 부른 외국 번안곡 <목화밭>은 목화밭에서 이루어진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우리처음 만난 곳도 목화밭이라네. 우리처음 사랑한 곳도 목화밭이라네. 밤하늘에 별을 보며 사랑을 약속 하던 곳. 그 옛날 목화밭 목화밭. 우리들이 헤어진 곳도 목화밭이라네. 기약도없이 헤어진 곳도 목화밭이라네. 서로멀리 헤어져도 서로가 잊지 못한 곳. 조그만 목화밭 목화밭~~(생략)'

이외에도 1972년 가수 남진이 부른 <목화아가씨>란 노래도 있다.

'목화 따는 아가씨 찔레꽃 필 때 복사꽃 피는 포구 십리포구로 달마중 가는 순이야. 뱃고동이 울 때마다 열아홉 설레이는 꽃피는 가슴 강바람 산바람에 검은머리 날리며 목화따는 아가씨~~(생략)'

위에 소개한 세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다보면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는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떠오른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목화밭 풍경은 노래 가사처럼 아가씨와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배경이 되었다. 사랑이 꽃피고 또 이별도 하였던 장소가 목화밭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목화재배는 우리네 일상에서 꼭 필요했던 원료로 목화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엿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우리네 일상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목화밭 풍경이 흘러간 세월만큼이나 아득하다.

가장 아름다운 꽃, 목화

조선후기 영조 때 목화에 얽힌 일화 한편이 전해지고 있다. 영조가 왕비를 잃고 계비를 맞이하는 중에 세 규수가 최종 후보로 남았다. 영조는 세 규수 중 한명을 간택하기 위해 세 가지의 질문을 똑같이 던졌는데 첫 번째 질문은 각자 아버지의 이름을 수놓은 방석을 깔고 앉게 했다. 그런데 유독 김한구의 딸만이 아버지 이름이 쓰인 방석을 깔고 앉지 않았다. 그래서 영조는 "다른 처자는 '저는 누구 딸입니다' 하고 아버지 이름이 쓰인 방석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기 좋도록 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방석을 깔고 앉지 않느냐?" 하고 묻자 "저는 우리 아버지 딸입니다. 딸이 어찌 아버지를 깔고 앉겠습니까?" 하고 답했다. 즉 부모의 이름을 깔고 앉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불효라고 생각한 것이다.

영조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다. "고개 중에 어떤 고개가 제일 넘기 힘든고?" 하고 묻자 한 규수는 "대관령 고개입니다." 다른 규수는 "추풍령 고개입니다."라고 답했는데 김한구의 딸은 "보릿고개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답했다. 즉 겨울양식이 봄이 되자 다 떨어지고 그렇다고 햇보리는 아직 나오지 아니한 때 끼니를 걱정하던 보릿고개가 가장 넘기 힘든 고개라는 말이다.

바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졌다. "꽃 중에 무슨 꽃이 제일인고?" 하자 한 규수는 목련꽃이라 하고 또 한 규수는 연꽃이라 답했는데 김한구의 딸은 "목화꽃입니다." 라고 하였다.

목화꽃이라? 이 꽃은 화사하고 예쁜 꽃은 결코 아니므로 일반 상식으로는 맞는 답이 아니라고 하겠는데 그 답의 내면에는 목화는 꽃이 핀 후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면에서 다른 꽃이 따라 올 수 없을 정도로 유익한 꽃이며 바로 목화가 백성의 옷감이 되어서 백성의 추위와 몸을 보호해 줄 수 있으니 영조는 비록 궁중에서 호의호식 하는 왕비라도 백성이 헐벗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김처자가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다.

결국 김한구의 처자인 김씨가 최종 간택 되었으니 그가 바로 정성왕후(貞聖王后)가 승하 한

뒤 1759년(영조 39) 15세의 나이로 66세인 영조의 계비로 간택된 정순왕후(貞純王后)다.

목화의 기원

원래 목화의 원산지는 인도로 알려져 있다. 인도에서는 서기전 3000년, 페루에서는 2500년, 이집트에서는 서기전 500년경에 목화가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의 목화재배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363년(고려 공민왕 12) 문익점(文益漸)이 서장관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귀국할 때 목화씨를 얻어 붓통에 넣어 가지고 와서 그의 장인 정천익(鄭天益)과 함께 재배함으로써 시작되었다.[1] 문익점 면화 시배지는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이다. 정천익은 3년의 시험 끝에 재배에 성공하였고 그의 아들 문래(文來)가 제사법(製絲法)을 발명하였으며 손자 문영(文英)이 면포짜는 법을 고안 하였는데 그 뒤 100년도 되지 않아 우리나라 전역으로 보급되었다.

당시 문익점이 도입한 목화는 아시아면이었는데 1905년에 일본 영사 다카마쓰〔高松〕가 육지면을 도입하여 전라남도 고하도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그 뒤 경기도 이북에서는 주로 아시아면이 재배되었고 경기도 이남에서는 육지면이 재배 되었다. 우리나라는 1905년 육지면이 도입된 이후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광복 당시에는 33만 정보에 11만톤이 생산 되었으나 그 뒤 생산이 급격히 줄어 1986년에는 1,000여 정보에 1,100여톤을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목화

목화의 파종 적기는 4월 하순 ~ 5월 상순 경이고 보리의 후작으로 하는 경우는 파종기를 조금 늦게 한다. 목화는 다래가 벌어진 것부터 차례로 수확하는데 9월 상순부터 시작하여 된서리가 오기 전까지 대부분 수확하는 것이 적채면(摘采綿)으로 질이 좋은 상품이 된다.

목화의 섬유는 주로 면사. 면직물. 혼방용. 그물 등의 방직용과 이불솜, 옷솜, 탈지면 등의 제면용 또는 면화약, 셀룰로이드 등의 공업용으로 쓰이며 열매는 기름을 짜 식용유, 버터, 마가린 등의 제조에 쓰인다. 깻묵은 사료나 비료로 이용하고 목화대는 제지용 펄프 원료와 땔감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유용한 것이 목화다.

그러나 우리에게 목화하면 하얀 솜이 연상된다. 그것도 새하얀 새털 구름같은 솜이다. 그것을 연상해 설탕을 열에 가해 돌려 나무젓가락에 묻혀낸 것을 솜사탕이라 했다. 목화는 다래가 벌어지면 하얀 속살이 드러난다. 이 하얀 속살을 따다 씨를 뽑아내면 천연의 목화솜이 되는데 이때 씨를 분리시키는 도구를 '씨아'라고 한다. 문헌 <북학의>에는 '각차(搉車)'라고 했다. 우리말 이름은 지역에 따라 '쐐'(경기도 백령), '쐐기', '씨앗이'(충청도,전라도,경상도), '쌔'(강원도 명주군)로 불리며 '쐐', '쒸야', '타리개' 라고도 한다. 씨아의 모양은 토막나무에 두 개의 기둥

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을 박고 그 사이에 둥근 나무 두 개를 맞물려 끼운 형태다. 이를 손잡이에 연결하여 돌리면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감으로 목화속의 씨가 빠진다. 예로부터 씨아를 이용하면 여자 한사람이 하루에 목화 두 말의 씨를 뺐다. 씨아에서 씨를 분리한 솜은 섬유의 안에 중공이라는 것이 있어 공기를 함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온성이 뛰어나다. 겨울철에도 저마(苧麻)를 입던 시대에 보온성이 뛰어난 솜이 생산되면서 우리나라 복식사에는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이전에는 보온성이 뛰어난 견직물은 고가에 손질이 많이 가는 의료(衣料)였으므로 상류층의 전유물이었고 가난한 서민들은 마직물로 만족하여야 했다. 그러나 솜에서 뽑은 실로 짠 면직물은 견직물에 못지않게 따듯하면서도 세탁에 견디는 힘이 뛰어나므로 서민들의 의료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또 가운데에 솜을 두어 만드는 누비옷을 개발하여 바지, 저고리, 버선, 치마는 물론 두루마기 등에 이르기까지 활용하였으며 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착용하였다. 또 이불이나 보료, 방석에 이르는 침구에 까지 그 용도를 넓혀 갔다.

추억의 솜틀집

그러나 목화솜은 1980년대 이후 화학제품인 합성섬유가 생산되면서 인조솜이나 견섬유 또는 모섬유를 가공해 만든 솜이 침구나 의복에 쓰여지면서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목화솜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던 솜틀집도 이제는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다. 폭신폭신한 목화솜 이불 한 채만 있으면 온 가족이 따듯한 겨울을 나던 시절이 엊그제 같다. 2~30년 전만해도 겨울이 유난스레 추웠고 겨우살이 옷가지도 부실해 한겨울 솜이불은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구들을 놓아 장작불을 때 난방을 했으니 낮에도 아랫목에는 온기를 보존하기 위해 솜이불을 깔아두곤 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솜으로 누빈 옷을 입고 솜버선을 신고 겨울을 났으니 목화솜은 곧 생활의 일부였던 셈이다.

이렇다보니 당시에는 솜틀집이 여러 곳에 있었다. 솜틀집에서는 발로 밟아 솜통을 돌려 손으로 사용하던 솜을 일일이 얇게 뜯어 솜틀의 톱니에 고르게 물리고 이를 돌려 포근하고 도톰한 솜으로 만들어 냈다. 솜틀집에서 틀어낸 솜은 각종 이불을 비롯해 옷을 누비는데 사용했다. 뿌옇게 피어나는 먼지 속에 '철커덕 철커덕' 솜틀기계 돌아가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짚, 그 투박함의 美

태어나면서 던져진 짚자리

둥구미, 씨오쟁이, 두트레멍석, 맷방석, 알둥어리, 꼴망태.....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듣기만 해도 정겨운 이름들이다. 농경민족인 우리민족은 옛 부터 짚으로 만든 각종 생활용구들을 직접 만들어 사용해 왔다. 짚은 일상생활에 필요

한 생활용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가장 편리하면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짚을 이용해 의식주 생활 모든 곳에 짚을 이용해 왔다.

그 옛날 마땅한 옷감이 없던 시절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던져졌던 곳이 짚이다.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면 친정어머니는 마당에 가려놓은 짚가리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가장 싱싱하고 정갈한 짚을 한 뭇 가져다 산모의 산욕(産褥)으로 깔아 주었다. 이렇게 쓰이는 짚을 삼신짚이라 하여 짚에 신령스러움을 부여해 산모의 출산을 돕는다고 믿었다.[2)]

죽어서까지도 짚은 함께 했다. 6,70년 전까지도 흔했던 초분(草墳)이 봉분을 짚으로 덮는 것이고 가난한 집에서는 관을 짤 돈이 없어 죽은 사람을 짚으로 짠 거적에 둘둘 말아 묻는 경우도 있었으니 죽어서도 짚은 인연을 함께 했다.

이렇듯 생의 첫 순간과 죽어서까지 함께 한 짚의 인연이기에 생평사(生平事)에 있어 짚과의 인연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짚으로 초가집을 지어 살았고 모든 농사용구를 짚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터주인 신체(神體)를 만들어 신앙 생활을 했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왼새끼를 꼬아 대문에 걸어 부정을 차단하고 장독에 새끼줄을 감아 악귀를 막고 신성한 곳임을 표시했다. 심지어는 뒷간에서 볼 일을 본 후 화장지 대용으로도 짚을 사용했으니 오히려 짚이 사용되지 않은 곳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다.

짚을 이용해 생활용구를 만들어 쓰는 일은 생산 단계로 치면 2차 가공하는 셈이다. 막짚을 추리고 다듬어 씨줄과 날줄을 엮어내는 일은 보잘 것 없는 지푸라기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탄생시키는 일이다. 엉성한 듯 하지만 엮음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또 마감에는 튼튼함이 배어 있게 마련이다. 또한 간단한 것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지만 멍석 같은 경우는 겨울밤을 지새워도 족히 일주일은 걸려야 멍석 한 장이 만들어졌다.

짚으로 만든 용구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그 용도를 조금씩 달리했으며 용구를 부르는 이름도 갖가지다.

2) 인병선, 『짚문화』 1989, 대원사

갈무리 용구, 멍석 · 도래멍석 · 맷방석

한 해 농사의 결실은 추수다. 추수한 곡식들을 갈무리하기 위해서 쓰였던 짚 용구들로는 멍석, 도래멍석, 맷방석 등이 있다.

멍석은 짚으로 만들어진 생활용구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멍석을 만드는 일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중간에 엮음이 잘 못되기라도 하면 뒤틀리게 되어 있어 인내와 집중이 필요하다. 시골집 헛간에는 보통 대여섯 장의 말려진 멍석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는데 멍석을 마당에 피면 족히 두 서너 평은 되었다.

멍석은 여러 용도로 쓰였는데 주로 곡식을 말리는데 이용되었다. 그리고 여름밤 모기쑥불을 피고 가족이 모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할 수 있는 깔래로서도 멍석은 큰 역할을 했다. 또, 멍석하면 우리는 '멍석말이'를 떠올린다.

'멍석말이'는 사람을 멍석에 말아놓고 뭇매를 가하던 옛날 사형(私刑) 방법의 하나로 전라남도 ·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덕석마리'라고도 했다. 대개 한 집안이나 동네에서 못된 짓을 저지르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가 있으면, 문중이나 동네의 회의를 거친 뒤 어른 앞에 끌고 가 멍석을 펴서 눕히고 둘둘 말거나 뒤집어놓고, 온 집안 식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뭇매를 가해 버릇을 고쳐주는 습속이다. 관청에 신고하는 대신 이같은 방법을 썼으므로 문중법이나 동리법(洞里法)이 더 무섭다는 말이 생기기도 했으며, 마을의 사회규범을 유지시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왜 하필 멍석으로 사람을 말았을까? 그것은 매를 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즉 나중에라도 원한 살 일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닐까?

멍석이 사각형이라면 도래멍석은 원형이다. 역시 추수한 곡식을 말리는데 주로 사용되었으나 멍석보다 보관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멍석은 한 자리에 앉아 별 이동없이 만들 수 있지만 도래멍석을 한 장 짜기 위해서는 몇십바퀴를 앉아 돌아야 했다.

맷방석은 도래멍석과 비슷하나 크기가 더 작고 끝을 말아 올려 곡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주로 가운데 맷돌을 놓고 곡물을 갈 때 사용되었다.

저장용구, 가마니 · 둥구미 · 씨오쟁이

추수한 곡식들을 갈무리하면 다음 곡식을 추수할 때까지 보관 할 수 있는 용구들이 필요했다. 짚으로 만든 용구들은 보온성과 통기성이 뛰어나 곡식을 저장 보관하는데 매우 용이했는데 대표적인 저장용구로는 가마니를 들 수 있다. 가마니는 본래 일본말로 일제 강점기 일본이 저지른 경제수탈의 대표적인 산물로 우리 조상들에게는 한이 서린 용

구이다. 원래 가마니 이전에 벼를 담는 용구로 섬이란게 있었다. 그러나 짚을 얼키설키 엮은 섬은 벼알이 빠져나가기 쉬워 가마니는 섬을 업그레이드 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벼를 수탈하기위해 직접 가마니 짜는 기계를 보급해 각 동리별로 소위 가마니 공출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가마니 공출에 몸서리치는 분들이 많다.

벼를 제외한 곡식들을 저장하는 용구로 둥구미가 있다. 둥구미는 모양과 크기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로 고구마, 감자, 콩 등을 담아 겨우내 저장 보관 하였다. 봄에 농사를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종자 보관이 중요하다. 겨우 내내 얼지 않고 잘 말려 썩지않도록 보관해야 다음 해 농사에 좋은 종자를 파종 할 수 있었다. 짚으로 만든 종자 보관 용구로 씨오쟁이(종다래끼)는 종자를 보관하는데 매우 유용한 용구이다. 씨오쟁이는 통풍이 잘 되고 보온성도 있어 종자가 썩지 않고 견고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다.

운반용구, 지게 · 삼태기 · 망태 · 똬리

농사일에서 가장 흔히 쓰였던 운반용구로는 지게를 들 수 있다. 지게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발명한 가장 과학적인 운반도구로 알려져 있다. 많은 짐이나 무거운 짐을 사람이 한 번에 운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게는 특히 지게를 질 때 가장 손쉽게 질 수 있도록 짚으로 만든 지게 등태를 달았다. 두툼하게 엮은 지게 등태는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어깨나 등이 아프지 않도록 보호하며 힘을 집중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짚으로 만든 운반 용구로 삼태기가 있다.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삼태기는 주로 싸리삼태기가 많았는데 싸리가 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짚으로 엮은 삼태기를 만들어 사용했다. 삼태기는 주로 거름을 나르는데 사용되었다.

망태는 지금으로 말하면 휴대용 가방이나 마찬가지다. 물건을 담아 사람이 휴대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여러 가지 용도의 망태를 짚으로 엮어 사용했는데 낫 등의 연장을 담아 가지고 다니던 연장망태에서부터 소 꼴을 담아 운반하던 꼴망태, 나무망태, 신골망태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하다.

이밖에도 우리 어머니들이 물건을 머리에 이고 운반 할 때 가장 필요했던 운반용 소품으로 똬리를 빼놓을 수 없다. 똬리는 무거운 짐을 안정적으로 머리위에 얹을 수 있도록 했으며 무엇보다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형태로 만들었다. 지금이야 볼 수 없지만 커다란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민간신앙 대상물, 금줄 · 터주까리

짚은 우리네 민간생활 속에 전해져 온 신앙 대상물로도 이용 되었다.

아이를 출산하면 대문에 새끼줄을 늘여 출산을 알렸는데 이것을 금줄(禁-)이라고 한다.

금줄은 지방에 따라 형태나 명칭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형식이나 의미 등은 같으며 대개 짚으로 꼰 왼새끼를 두른다. 왼새끼는 귀신이 싫어하는 줄이라는 뜻이다. 아들을 낳았을 경우는 고추 또는 솔잎이나 숯을 매단다.

마을굿 전에는 제관(祭官)도 금기를 행하며, 제관집 문에 금줄을 쳐서 타인이 범하지 못하게 하고 당나무 등에도 금줄을 쳐둔다. 줄에 한지를 매달기도 하며, 붉은 황토를 뿌리는 것은 귀신들이 붉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벽사(辟邪)의 뜻으로 행한 것이다. 예전에는 장을 담글 때도 장맛이 좋아지라고 독에 금줄을 드리우고 버선본을 뒤집어 붙여 두었다.

짚으로 만든 민간 신앙 대상물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 터주가리다. 중부지방의 농가 뒤꼍이나 장독대에는 어김없이 터주까리가 모셔져 있었는데 작은 단지에 햇벼나 햇콩을 담아 놓고 짚으로 주저리를 해서 씌운다. 터주까리는 말 그대로 터주(址主)의 신체(神體)라 할 수 있다. 일 년 농사가 끝나면 한 해의 풍년을 감사하는 고사를 지내는데 이 때 고사떡 시루를 터주까리 앞에 차려놓았다.

짚의 투박함 그 예술성

1970년대 우리나라에는 근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난다.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제일 먼저 초가지붕을 걷어 버렸다. 또한 화학제품이 생산되면서부터 하나 둘 화학제품들이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화학제품들은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견고하며 겉으로 보기엔 매우 위생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수십 년을 함께 해 온 짚 용구들은 하나 둘씩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시골집 처마 밑이나 헛간 등에 걸려 있던 짚 용구들은 결국 그 자취마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짚으로 만든 용구들을 박물관 전시장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다행히 최근에 몇몇 지역에서 전통 짚공예품의 명맥을 되살리기 위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필자가 사는 파주에서는 지난 1998년부터 짚공예품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행사로 당시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까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첫 해 어르신들의 기억을 되살려 만들어낸 짚 공예품들은 그 수량이나 종류에서 행사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것은 어르신들 기억의 저편에 있는 간절한 손놀림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90세의 고령으로 정교한 미투리신을 만든 이인동 할아버지(작고, 조리읍 대원리), 산촌지역인 파평면 덕천리 마을에서 대거 쏟아져 나 온 싸리제품들, 특히 임진강변 갈풀을 재료로 우장을 엮어 낸 김정홍 할아버지(작고, 적성면 주월리)등은 잊지 못할 분들이다.

첫 해 출품작은 무려 50여종 700여점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멍석, 도래멍석, 맷방석은 물론 두투레방석, 씨오쟁이, 둥구미, 짚신, 소망태 등이 주종을 이루었고 창작을 가미한 재미있는 작품들도 출품되었다. 그러나 해를 거듭 할 수록 출품 작품 수가 줄고 있는데 그것은 기능을 가진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기 때문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거친 손으로 엮어 낸 짚 공예품들은 한결같이 투박하다. 그러나 그 투박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과 지혜가 배어 있다. 이제는 생활용구로서가 아닌 예술작품으로서의 짚 공예품의 보존 전승이 필요한 때다.

목화와 짚의 상관성

목화와 짚의 상관성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상관성을 발견 할 수 있다. 먼저 우리의 조상들이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쓰기위한 천연의 재료로서 큰 몫을 했다는 점이다. 즉 자연에서 재배된 식물을 이용해 일상에 필요한 갖가지 용품들을 만들어 생활했는데 그 천연재료로서의 으뜸이 바로 목화와 짚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목화와 짚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생활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자연의 산물이었다. 목화는 이불을 비롯해 옷을 만드는 필수 재료로서 사람의 의생활을 편안하게 해 주었으며 짚은 식생활과 주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벼농사는 농경민족인 우리민족의 근간이며 벼를 털어낸 짚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함께한 생활용구로 변모해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막히게도 목화와 짚의 운명까지도 그 상관성은 일치하고 있다. 즉 1970년대 이 후 진전된 산업화와 근대화 물결의 산물인 화학제품의 생산은 목화와 짚을 뒤안길로 내몰았다. 목화솜 이불 대신 카시미론 이불이 대중화 되었고 각종 플라스틱 생활용기들은 짚 용구들을 뒤켠으로 물러나게 하였다. 결국 그 많던 목화밭은 사라지고 시골집 헛간에 버려지듯 걸려있던 짚 용구들도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모두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진 목화와 짚 용구들.....자연이 병들고 환경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목화와 짚 용구들이 새삼 더 그리워지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기획

영상으로 만나는 파주의 옛 이야기

서 교 송 (파주문화원 사무국장)

파주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보물 93호인 용미리미륵석불은 1950년대만 해도 한 쪽 옆에 탑이 서 있는 모습을 보였었다. 지금은 오래된 사진 몇 장으로 당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부처님의 어깨 부근에 석탑이 올려져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율곡선생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화석정花石亭이 중건된 1966년 당시의 모습은 어땠을까? 주변이 숲과 군 시설로 둘러싸인 현재와는 달리 정자의 왼쪽 옆으로 거목 한 그루만이 생뚱맞게 서 있고 사방이 황량한 맨흙바닥이던 당시의 모습과 낙성식에 참가한 흰 도포에 중절모를 쓴 인파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e-영상역사관(http://film.ktv.go.kr)에서 제공하는 이전의 대한뉴스를 통해 이제는 기억 속에 묻혀진 당시의 모습들을 생생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파주 관련 영상물은 총 39건으로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파주의 다양한 모습들을 흑백과 컬러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화 인물 관련 영상

1954년 10월 28일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에서 미륵불 제막식과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탑 건립 봉안식 거행됐다. 1954년 대한뉴스 제54호에 소개된 이 영상에서 식에 참석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이승만 대통령을 맞아 스님이 대통령께 큰절을 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두 미륵불상의 모습은 현재와 달리 검은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립불의 우측 어깨부근에 탑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아래 한자로 이대통령기념탑李大統領記念塔이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영상은 탑을 덮은 흰 천을 벗겨내는 모습과 스님들이 독경을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함태영 부통령을 비롯해 민의원 의장, 내무부 장관, 문교부 장관, 미 대사관 등 각계의 인사가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의 기념탑을 세운다는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지만, 이처럼 정부의 주요 요인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것도 현대의 시각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제막식을 마치고 열린 대통령 방문 환영식에는 군민들이 집결해 태극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환영하고 어린이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태영 부통령에게 꽃다발을 전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훈시를 통해 '전 국민이 조국의 완전통일을 성취할 때까지 확고한 신념으로 일치단결하여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라'고 말했다.

1966년 제작된 대한뉴스 제 569호에는 율곡 선생이 후학을 육성하고 대자연을 벗 삼아 시를 읊던 화석정 낙성식 전경을 담고 있다. 증축 추진위원장인 신윤창 의원 등 각계유지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화석정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으며,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친필 현판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있다. 임진강변에 홀로 서있는 화석정과 행사장을 가득 메운 인파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파주군 와동면 박태선 선생은 '향토문화 공로자(살아있는 상록수)'라는 제목으로 1964년 제작된 대한뉴스 제 470호에 소개되었다. 선생은 복지학원 설립·운영하면서 불우한 학생들에게 중등학교 과정을 무료로 지도하였으며, 빈한한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는 복지학원에 도서관을 설립하고 또 군내에 여러 개의 마을문고와 순회문고를 세워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뉴스에서는 박선생과 복지학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970년 제작된 대한뉴스 제788호에는 금곡육아원과 진기열 원장이 소개되었다. 당시 천현면 금곡리에 세워진 금곡육아원은 1958년 5월 진기열 원장이 서부전선 최전방의 황무지 10만여 평을 70여명의 고아들과 함께 가꾸어 건립한 것이다. 10여년간 일군 과수원에는 포도 복숭아 배 등을 재배하여 연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육아원에서는 원생들이 사회에 원만히 진출할 수 있도록 어린이 돌보기, 타자, 편물, 미용 등 기술을 가르쳐 자활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상에서는 과수원을 가꾸고 기술을 배우는 원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새마을 운동과 경제활동 영상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경제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전 세대의 당면한 국가적 목표였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잘사는 마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대한 뉴스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였다.

1960년대 정부의 적극적인 축산장려로 축산업이 활기를 띠었다. 대한뉴스 제 362호에서는

파주종돈장을 소개하고 있다. 파주종돈장에서는 우량품종 보급과 해외수출 목적으로 대량으로 각종 돼지를 대량으로 사육하여 연간 400두의 우량종을 생산하였으며, 2천 6백마리의 개량종 돼지를 농가에 나누어 줌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돼지들은 홍콩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시장에 수출되며, 1961년에는 300만 달러, 1962년도에는 11만두를 생산해 올해는 440만달러 외화를 획득했다. MADE IN KOREA가 찍힌 상자에 실려 수출되는 돼지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1962년 제작된 대한뉴스 제 371호에는 부락민들이 제지공장을 세워,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탄면에서 부락민이 합심해서 2,500만원 상당의 제지공장을 세워, 하루 평균 1,015톤의 종이를 생산했다. 뉴스에서는 공장 낙성식과 주민들이 제지를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66년에는 금촌 문산 파주 등을 연결하는 말레이시아교가 개통되었다. 경기도 파주군 등원리에 위치한 이 다리는 금촌, 문산, 파주 등을 연결하는 다리로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온 원조금 5,000달러와 경기도보조금 300만원, 파주군비 200만원으로 건설되었다. 대한뉴스 598호를 통해 준공식과 개통된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1970년 대한뉴스 제 767호에서는 '쉬지 않는 농촌'이라는 제목으로 교하 다율리 농가부업 작업장이 소개되었다. 겨울과 초봄 농한기를 이용해 포장용 가마니와 새끼를 생산하며, 대한국정교과서와 납품계약을 맺어 한철 22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다율리 마을은 반공시범부락으로도 많은 표창을 받았다고 소개되었다.

군내면 통일촌의 조성 당시 모습은 1973년 제작된 대한뉴스 제 947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옥 내무부장관 등이 참여해 거행된 입주식과 입주민들에게 제공된 농기계들, 그리고 새로 건립된 초등학교와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6.25 이후 군 작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파주 군내면 공덕지구에 세워진 통일촌은 민통선 북방의 유휴지를 개발하여 80여 가구가 입주, 농경지를 경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협진양행이 경기도 파주 주내면에 세운 새마을공장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소개됐다. 1973년 협진양행이 세운 이 공장은 14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지역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했으며, 의류를 생산해 일본과 유럽 등지에 수출함으로써 지역 농가 소득에 크게 이바지했다. 1973년 제작된 대한뉴스 제949호는 협진양행 전경과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대한뉴스 제 1812호에서는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라는 제하에 선일금고제작이 소개되었다. 생산직 기피현상에도 불구하고 생산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보람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며 그 예로 선일금고제작은 100여명의 직원들이 꾸준히 연구 노력해 연 4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부에서 제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 남북관계 관련 영상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파주는 긴장된 남북관계의 대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대한뉴스에 남겨진 기록의 상당부분은 남북의 대치와 관련된 소식을 담고 있다. 주로 북의 도발 행위에 따른 분노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그리고 통일을 기원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1958년 대한뉴스 제 166호는 대남간첩 소탕작전 중 숨진 고 정해경 경위의 장례식 모습을 담고 있다. 5월 27일 파주경찰서 광장에서 거행된 장례식에는 내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오제도 검사 등 5,000여 명의 조문객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경찰국 국장으로 거포와 함께 엄숙하게 치러졌다.

1963년 8월2일자 대한뉴스를 보면 북한군이 금촌 새마을 뒷산까지 침입해온 사건이 발생해 주민의 신고로 파주경찰서와 미 제1기갑사단이 출동 7시간의 격전 끝에 간첩 4명을 사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파주경찰서 소속 김길수 경사와 미군 1명이 전사하고 미군 1명이 부상하였다. 김경사는 경감으로 추서되었으며, 유가족이 오열하는 가운데 파주경찰서에서 장례식이 엄수되었다.

서울로 침투한 무장간첩 소탕 내용을 다룬 1968년 1월 대한뉴스에서는 파주 법원리 선봉산(삼봉산)에서 무장간첩에게 잡혔다가 탈출해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나무꾼 4형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또 같은 해 2월 제작된 대한뉴스에서는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에 참여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침착하게 대응할 것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배경화면으로 파주경찰서 천현지서에 간첩을 신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파주는 남북의 극한 대치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한편으로 파주는 남북의 통일을 기원하는 현장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1973년 9월 대한뉴스에서는 추석을 맞아 임진각에서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망향제를 지내는 실향민들의 모습과 대성동에서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1974년 10월 대한뉴스 제1004호에서는 파주에서 열린 통일탑과 평화의 종각 제막식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1977년 9월에는 임진각 앞 광장에서 조국통일 기원 대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통일을 기원하는 걷기대회 등도 많이 열렸다. 1975년 6월에는 6.25 발발 25돌을 맞아 1950년 6월25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625명의 '사변동이'가 참여한 시민행군대회가 서울 시청에서 봉일천초등학교까지 30km 구간에서 열렸다. 1976년 8월에는 일본의 조민련이 부산 ~ 신의주간 도보행진을 계획하면서, 휴전선 근처의 철도중단점과 임진각을 둘러보는 모습을 담고 있다.

1977년 5월 제작된 대한뉴스에서는 같은 해 4월27일 거행된 한국전 종군기자 추념비 제막식을 소개하고 있다. 파주 주내면(파주읍) 통일공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세계 18개국에서 80명의 한국전 당시 종군기자들이 참석해 헌화했다.

1978년 대한뉴스 제1209호와 1979년 제1242호에서는 대한의열단 감악산 결사대 초혼식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적성 감악산 충혼사에서 열린 이 행사는 6.25당시 결사대를 조직해 적과 싸우다 전사한 영령들을 위한 초혼식 및 위패봉안식으로 진행됐다. 충혼사는 6.25 당시 유격대장이었던 유인종과 민우식이 성금을 모아 건립한 것으로, 이곳에 순국 무명용사 27위의 위패가

봉안됐다.

대한뉴스 제 1330호와 1538호에서는 영국군 참전용사 추모행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81년 4월 파주 적성면 설마리에서 개최된 추모행사에서 6.25 이후 30년 만에 이곳을 찾은 안토니, 파라, 허클리 대장 등 영국군 참전용사 70여명은 추모비에 화환을 바치며 먼저 간 옛 전우들의 명복을 빌었다.

1984년 10월 제작된 제 1510호 대한뉴스에서는 버마 아웅산 사태 1주년을 맞아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위령탑 제막식을 소개하고 있다.

□ 미군 관련 영상

남북 분단과 관련해 미군들의 주요 주둔지였던 파주의 과거를 반영하듯 미군 관련된 뉴스들이 토막소식으로 보인다.

1962년 6월에는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 펼쳐졌는데 파주에서는 미 제1기갑사단 장병들이 땅을 파고 호수를 연결해 논에 물을 공급해주었다. 같은 해 7월 한미 친선의 달을 맞아 파주에서는 미군들을 위한 고전무용 공연이 펼쳐치기도 하였으며, 12월에는 유엔군들을 위문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경비초소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였다.

1963년 미 제1기갑사단은 농촌에 라디오 보내기 운동과 관련하여 파주읍 용주골 사람들에게 라디오 100대를 기증하기도 하였다.

□ 기타 영상

1958년 대한뉴스 제 168호와 1959년 제221호 대한뉴스를 보면 당시 파주지역은 낚시를 즐기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15일에는 서울의 낚시인들이 주최한 시민 낚시대회가 금촌 수리조합 못에서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6월 28일에는 금촌 수로에서 700여명의 강태공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영상은 인위적인 모습 없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금촌 수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3선 의원으로 자유당 원내총무를 지낸 이재학 민의원 부의장을 포함해 강태공들의 고기 낚는 모습과 대회 우승자를 소개하고 있다.

1978년 제 1183호 대한뉴스에서는 파주에서 임진각에 이르는 통일로에서 개최된 통일기원 건강 마라톤대회를 소개하고 있으며, 1980년 제1229호에서는 싸이클 애호가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송초등학교 - 임진각 구간의 통일로 36km를 달리는 범시민 싸이클대회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한뉴스 파주관련 동영상 목록

사 진	타이틀(내용)	제작일
	미륵불 보수 제막 광탄 용미리석불입상 우측 바위 위에 '이대통령 기념탑' 을 세우고, 이승만대통령과 부통령 등 정부 요인들이 참석한가운데 제막식을 열었다.	1954-10-26 **제 48호**
	고 정해경 경위 장례식 대남 간첩 소탕작전 중 숨진 파주경찰서 정해경 경감의 장례식을 모습을 담았다.	1958-06-03 **제 166호**
	제 1회 시민 낚시 대회 1958년 6월 금촌 수리조합 못에서 열린 제1회 시민낚시대회 모습	1958-06-17 **제 168호**
	낚시대회 1959년 7월 금촌 수로에서 열린 전국 낚시대회 모습.	1959-07-05 **제 221호**
	해외시장에 팔리는 돼지 파주종돈장에서 생산된 우량돼지들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수출증대에도 기여했다.	1962-04-28 **제 362호**

사 진	타이틀(내용)	제작일
	파주에 제지공장 1962년 광탄 지역주민들이 제지공장을 세워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다.	1962-06-29 **제 371호**
	한해 극복에 거국적 운동 1962년 전국적인 가뭄과 관련해 미1기갑사단장병들이 파주지역 농가들의 물 공급을 지원했다.	1962-07-06 **제 372호**
	한미 친선의 밤 한미친선의 달을 맞아 파주 소재 미군부대를 찾아 고전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1962-07-25 **제 375호**
	일선 장병들에 위문품을 보내자 어린이들이 파주의 유엔군 경비초소를 찾아 유엔 장병들을 위문하는 모습	1962-12-30 **제 397호**
	농촌에 라디오를 보냅시다 미 제1기갑사단 용사들이 파주 용주골에 라디오 100대를 기증했다.	1963-02-09 **제 403호**
	괴뢰군 불법 남침 1958년 4명의 무장간첩이 금촌 새말 뒷산까지 침투,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김길수 경사가 전사했다.	1963-08-02 **제 428호**

사 진	타이틀(내용)	제작일
	향토문화 공로자(살아있는 상록수) 파주 와동면 박태선 선생이 복지학원을 설립 어려운 학생들을 돌봐 주었다.	1964-05-30 **제 470호**
	화석정 낙성식 1966년 화석정 증축 낙성식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966-05-07 **제 569호**
	말레이시아교 개통식 1958년 완공된 금촌-조리간 말레이시아교 개통식 모습을 담고 있다.	1966-11-29 **제 598호**
	서울로 침투한 무장간첩 사살 및 북한의 만행 1968년 무장간첩 침투사건 당시 이들을 신고한 법원읍 나무꾼 4형제가 소개됨	1968-01-26 **제 659호**
	경부 고속도로 기공식(서울 - 수원) 반공과 경제성장을 강조한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파주경찰서 천현지서에서 간첩을 신고하는 모습이 자료영상으로 보여짐.	1968-02-03 **제 660호**
	토막소식 양지회에서 농촌지역인 파주에 여성교양잡지를 전달하고 있다.	1968-08-03 **제 686호**

사 진	타이틀(내용)	제작일
	쉬지 않는 농촌 가마니를 짜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교하 다율리 마을 농가 부업장을 소개하고 있다.	1970-03-14 **제 767호**
	금곡육아원 1958년 법원읍 금곡리에 설립된 금곡육아원 진기열 원장과 원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1970-08-08 **제 788호**
	통일촌 입주식 6.25 이후 군 작전지역으로 출입이 통제됐던 민통선 북방 유휴지를 개간해 조성한 통일촌의 준공 당시 모습을 담고 있다.	1973-08-31 **제 947호**
	추석 망향제 임진각에서 북쪽을 향해 절을 올리는 실향민들의 모습.	1973-09-15 **제 949호**
	새마을공장 설립 당시 주내면에 설립된 협진양행은 새마을 공장으로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로 발표되었다.	1973-12-08 **제 961호**
	통일탑 제막 파주에 통일탑과 평화의 종각이 제막되었다.	1974-10-12 **제 1004호**

사 진	타이틀(내용)	제작일
	조국 사수 6.25 25돌 맞이 시민행군대회가 서울시청-파주 봉일천초교 구간에서 열렸다.	1975-06-28 **제 1037호**
	6.25 서울시내 예비군 6.25동이 625명이 서울시청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행군을 벌였다.	1976-06-26 **제 1088호**
	조민련 부산~신의주간 도보행진 조민련 평화도보행진 교섭 대표단이 파주 임진각을 방문했다.	1976-08-30 **제 1097호**
	한국전 종군기자 추념비 제막 1977년 5월 주내면 통일공원에서 세계 18개국 80여명의 한국군 종군기자들이 참가한데 열린 한국전 종군기자 추념비 제막식	1977-05-04 **제 1132호**
	조국통일기원대제 임진각 앞 광장에서 전국 24개 동학종단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조국통일 기원 대제가 개최되었다.	1977-09-15 **제 1151호**
	건강마라톤대회 통일기원 마라톤대회가 파주-임진각 구간 통일로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978-05-04 **제 1183호**

사 진	타이틀(내용)	제작일
	대한 의열단 감악산 결사대 초혼식 6.25 당시 활약한 감악산 결사대 초혼식과 위패 봉안식이 적성 감악산 충혼사에서 열렸다.	1978-11-03 **제 1209호**
	반공결사대 추념식 6.25 당시 적과 싸우다 전사한 40여명의 충혼을 기리는 감악산 반공결사대 추념식이 열렸다.	1979-06-15 **제 1242호**
	푸른 가을하늘 범시민 싸이클대회가 통일로 36km 구간에서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1980-09-18 **제 1299호**
	영국 참전용사 격전지 순례 6.25 당시 적성지역 전투에 참전했던 영국군 참전용사들이 설마리 영국군묘지를 찾아 헌화했다.	1981-04-30 **제 1330호**
	길 따라 풍물 따라 용미리석불입상과 윤관장군 묘 등 파주 유적지들을 소개하고 있다.	1981-12-18 **제 1363호**
	규탄하자 랭군 만행 랭군사태 1주년을 맞아 임진각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 제막식이 열렸다.	1984-10-12 **제 1510호**

사 진	타이틀(내용)	제작일
	영국군 참전 34주년 기념식 6. 25 당시 치열한 전투 끝에 산화한 영국군 장병들을 기리는 영국군 참전 제34주년 기념식이 적성면 설마리 영국군묘지에서 열렸다.	1985-04-27 **제 1538호**
	청소년 극기훈련 파주 봉일천에 위치한 통일로 자연 학습원에서 청소년 극기훈련을 받았다.	1988-05-18 **제 1697호**
	제조 업체 인력난 해소 월롱 선일금고 직원들이 보다 좋은 금고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0-08-01 **제 1812호**
	자유로 및 통일동산 건설 1992년 자유로 및 통일동산 준공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2-07-22 **제 1915호**

기획

파주의 여성인물과 문화유산

권 효 숙 (파주문화원 연구원)

파주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도와 가까운 근기近畿로서 왕실과 관직자들과 관련하여 능이나 묘가 많다. 또한 도성과 가까운 이유로 오래전부터 세거해오던 문중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이 문중은 관직 진출 및 왕실과의 혼맥 등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었다. 또한 명문 가문에서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윤리에 부흥한 효자, 효부, 열녀가 배출되어 주위의 칭송을 받는 일도 많았으며 '문향文鄕 파주'의 이름에 걸맞게 수많은 학자들도 배출되었다. 이 모든 인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엮어지는 인물이 바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파주지역의 여성인물과 그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라 생각하여 이 글에서 파주지역에 능과 묘가 있는 왕실 여성 및 유명 여성인물, 열녀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여기에 정리한 내용 이외에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찾아보면 파주지역에 여성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발자취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현장조사와 더불어 역사적 기록 속에서 파주와 관련된 여성인물들의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 향토사 연구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순왕후章順王后와 공릉恭陵

· 1445년(세종 27)~1461년(세조 7)

장순왕후는 예종의 원비元妃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성은 한韓이다.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의 딸이다. 1460년(세조 6) 16세에 세자빈에 책봉되어 인성대군仁城大君을 낳았으며 이듬해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비가 되기 전에 죽었다. 1472년(성종 3) 왕후로 추존되었다. 성종 비 공혜왕후와는 자매간이다. 시호는 장순章順이며 능은 파주삼릉 내 공릉恭陵이다.

공릉은 세자빈의 묘역으로 조성되었으며 초석과 난간석이 생략되었다. 능 아래에는 정자각과 비각 홍살문이 있고 봉분 앞에는 혼유석과 팔각의 장명등 그리고 석양과 석호가 각 1쌍씩 그리고 문인석이 1쌍이 있으며 망주석은 없다.

공릉

공혜왕후恭惠王后와 순릉順陵

· 1456년(세조 2)~1474년(성종 5)

공혜왕후는 성은 한씨韓氏이고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의 딸로 예종의 비 장순왕후의 동생이다. 성종의 원비로 1467년(세조 13) 예종의 형인 의경세자(추존왕 덕종) 둘째아들인 자을산군과 12세에 가례嘉禮를 올리고, 1469년 성종이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되었으며, 1474년(성종 5) 19세로 소생 없이 죽었다. 당시 권력의 중심에서 정치 실세였던 한명회는 두 딸을 왕비로 만들었으나 모두 일찍 죽었다. 공혜왕후는 언니 장순왕후와 자매간이지만 시숙모와 조카며느리 사이가 되기도 한다. 어린나이에 궁에 들어와 세조비 정희왕후 시어머니 소혜왕후 예종의 비인 안순왕후 세분의 어른을 극진히 모셨으며 '죽고 사는 데는 천명이 없어 세 왕후를 모시고 끝내 효도를 못하고 부모께 근심을 끼치는 것을 한탄할 뿐'이라는 말을 남겼다. 1498년(연산군 4) 때 휘의신숙徽懿愼肅의 휘호가 추상追上되었다.

능은 조리읍 파주삼릉 내의 순릉順陵이다. 능제는 왕비의 능으로 조성되어 언니의 공릉보다 규모나 석물의 구성이 다르다. 조선 초기 특징인 병풍석이 없고 소담한 돌기둥 난간을 둘렀으며 봉분 앞에는 상석과 팔각 장명등, 문인석과 무인석 각 1쌍과 석호, 석양 각 2쌍, 망주석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정자각 비각 홍살문이 있다.

순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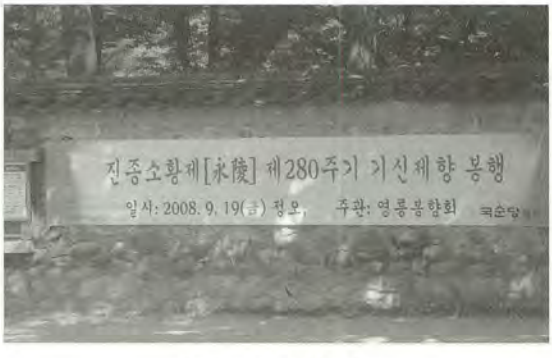
효순왕후孝純王后와 영릉永陵

· 1715년(숙종 41)~1751년(영조 27)

효순왕후는 조선 후기 추존왕 진종眞宗의 비로, 본관은 풍양豊壤이고 성은 조씨趙氏이다. 좌의정左議政 조문명趙文命의 딸이다. 1727년(영조 3) 세자빈에 간택되어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孝章世子와 가례를 올렸으나 다음해에 효장세자가 죽었다. 1735년 현빈賢嬪에 봉하여졌다. 창덕궁 건극당에서 37세의 나이로 승하하였으며 소생은 없었다. 죽은 뒤 1752년 효순孝純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1776년 장헌세자의 장남(뒤에 정조)을 입양 받아 승통세자빈承統世子嬪의 호를 받았다가 정조의 즉위로 왕비로 추존되었다.

능은 파주삼릉 내에 있으며, 능호는 영릉永陵이다. 영릉은 왕과 왕비의 쌍릉으로 혼유석 2기와 사각 장명등, 문인석 1쌍, 석양과 석호 각 1쌍이며, 능침 아래에는 정자각, 비각, 홍살문이 있다. 비각은 세자 신분의 능비와 정조 때 추존하면서 세운 비, 순조 때 진종소황제와 효순소황후로 새로 추존한 비,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영릉기신제 제향



영릉기신제 현수막

인열왕후仁烈王后와 장릉長陵

· 1594년(선조 27)~1635년(인조 13)

인열왕후는 인조의 비로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성은 한韓이다.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한준겸韓浚謙의 딸이다. 원주읍내 우소에서 태어났다. 1610년(광해군 2) 능양군綾陽君(뒤의 인조)과 결혼하여 청성현부인淸城縣夫人으로 봉하여지고,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으로 왕비가 되었다. 슬하에 효종, 소현세자昭顯世子, 인평대군麟坪大君, 용성대군龍城大君 등 4형제를 두었다. 능陵은 장릉長陵으로 탄현면 갈현리에 인조와 합장릉으로 조성되었다. 1651년(효종 2)에 휘호를 명덕정순明德貞順으로 추상하였다.

원래 장릉은 인열왕후가 1635년 42세를 일기로 돌아가시자 지금의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대덕골에 장사지내면서 그 옆에 인조의 능역을 미리 조성해 놓았다. 1649년 5월 8일 55세의 나이로 인조가 승하하자 쌍릉으로 능역을 조성하였는데 그 후 뱀과 전갈이 석물 틈에 집을 짓고 있어 오랜 기간의 천장 논란 끝에 1731년(영조 7)에 지금의 위치인 탄현면 갈현리로 옮겨 왔다. 이 때 왕과 왕비를 단분으로 합장했는데 합장으로 인해 척수가 맞지 않게 된 병풍석과 상석, 난간석, 장명등은 새로 조성하였고 다른 석물들은 원래의 것을 그대로 옮겼다. 옛 장릉은 건원릉(태조의 능)의 석물제도를 본떠서 병풍석과 장명등에 십이지신상과 운문雲紋을 부조했었으나 이장한 후 새로 조성한 병풍석의 문양과 장명등의 문양은 모란과 연꽃 문양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장릉은 17세기, 18세기의 석물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장릉은 왕과 왕비의 합장릉으로 봉분은 하나이나 그 앞에 상석 2기를 나란히 배치해 2위位임을 나타냈다. 봉분 아래로 12면의 병풍석을 세우고 그 바깥으로 돌 난간을 둘렀다. 2기의 상석 아래 중앙에 팔각형의 장명등을 배치하였으며 양쪽으로 망주석 2기를 세웠다. 망주석 하단으로 각 단을 달리해 문인석과 무인석을 각 한쌍씩, 석마石馬를 2쌍 좌우에 세웠으며 봉분 주위로 석양石羊, 석호石虎 각각 2개 씩 능 바깥쪽을 향하게 배치하여 능을 수호하도록 하였다. 능침 아래에는 정자각, 비각, 수복방, 홍살문이 있으며 참도가 놓여져 있다.

장릉

장릉제향

숙빈 최씨淑嬪崔氏와 소령원昭寧園

· 1670년(현종 11)~1718년(숙종 44)

조선 제19대 숙종의 후궁이며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는 1670년(현종 11) 11월 최효원崔孝元의 딸로 태어나 7살에 궁에 들어가 궁녀로서의 인생을 시작하여 숙종의 승은을 입어 아들 영조를 낳음으로 하여 일약 무수리에서 내명부 최고의 빈에 오른 인물이다. 숙빈 최씨는 숙종의 승은을 입은 이후 숙원淑媛, 숙의淑儀, 귀인貴人을 거쳐 숙빈에 봉해지고, 1694년(숙종 20) 24세에 영조를 낳았다. 1718년 3월 49세로 돌아가니 당시 양주군 백석면 영장리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장사지내고 묘호墓號를 소령묘昭寧墓라 했으며 서울 궁정동 칠궁 안에 사당을 짓고 그 묘호를 육상묘毓祥廟라 하였다. 그 후 1753년(영조 29) 6월에 숙빈최씨를 화경和敬이라 추시追諡하고 육상묘를 육상궁毓祥宮으로 소령묘를 소령원으로 승격시켰다. 영조 만년에는 각 지역 유생들이 원을 능陵으로 승격시키자는 상소가 수년간 잇달았으나 시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은 매우 깊어 재위중에 여러 차례 소령원을 찾았음을 실록을 통해 볼 수 있다.

『영조실록』을 보면 1731년(영조 7) 9월 27일 영조는 소령묘의 "사묘私墓에 나아가 그대로 유숙하고 의식대로 제사를 행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며 그 후에도 1749년(영조 25)과 영1770년(영조 46)에도 친히 소령원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1760년(영조 36)에는 "소령원에 충재蟲災가 있어 사초가 모두 말라 영조가 친히 사초를 고쳐 입혔는데 직접 융복戎服(철릭과 주립으로 된 옛 군복의 하나)을 갖춰 입고 원소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대신과 예조·호조·공조판서로 하여금 일을 감독케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소령원 정자각 우측 산자락에 여막지廬幕址가 남아 있는데 이곳에 어머니를 장사지내고 여막을 짓게 하여 신하로 하여금 시묘를 하도록 했던 곳이다. 또한 원소 앞에 세운 비碑의 비문을 직접 써서 정성을 다했으며 이밖에도 어머니 숙빈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1740년(영조 16) 인근의 보광사를 소령원의 기복사祈福寺로 삼았는데, 지금도 보광사 대웅보전 뒤에는 숙빈 최씨의 명복을 빌던 어실각御室閣이 남아있다.

소령원의 원역은 산기슭 중단부에 동향하여 조성되어 있으며 봉분 뒷편에 담장을 설치하고 봉분 양쪽으로 석호石虎·석양石羊을 각각 2개씩 배치하였다. 봉분 정면으로 비석, 상석, 향로석, 장명등이 일렬로 놓여 있고 그 좌우로 망주석, 문인석, 석마石馬가 각 1쌍씩 대칭으로 배열되어 있다. 석물들이 대체로 간략한 형태를 띠고 있고 사각의 장명등 기둥과 석마의 다리사이가 투조透彫되지 않은 점 등이 조선 후기의 석물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원소 아래 동북방향으로 비각 2동이 있는데 하나는 당초 소령묘로 조성했을 때의 묘비이며 다른 하나는 소령원으로 승격된 후 세워진 원비園碑가 세워져 있다. 건축물로는 중앙에 정자각과 정자각 왼쪽에 수복방이 배치되어 있는데 조선시대 원소 중 유일하게 수복방守僕房이 남아 있다. 그리고 소령원 입구 초입에는 숙빈최씨 신도비가 보호각 안에 안치되어 있는데 귀부龜趺와 비신이 매우 큰 규

모의 비이다. 신도비의 비문은 박필성朴弼成이 찬撰했으며 여산군礪山君 방枋이 서書하고 서평군西平君 요橈가 전篆 하여 1725년(영조 원년)에 세웠다.

소령원 수복방

묘막터

정빈 이씨靖嬪李氏와 수길원綏吉園

· 1694년(숙종 20)~ 1721년(경종 1)

정빈 이씨는 영조의 후궁으로 이준철李竣哲의 딸이다. 1719년(숙종 45) 연잉군(후의 영조)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후일의 효장세자孝章世子 즉 진종眞宗(추존)이다. 연잉군이 세제로 책봉되자 종5품 소훈昭訓에 올랐으나 바로 사망하여 지금의 광탄면 영장리에 장사를 지내고 수길원綏吉園이라 하였다. 이후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정4품 소원昭媛에 추증되었고, 다시 왕세자를 낳았다는 이유로 정빈靖嬪으로 추증되었다.

정빈이씨 제향

수길원은 정빈이씨靖嬪李氏의 원소이며 소령원 원역으로 접어들기 전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소령원의 숙빈최씨와는 고부姑婦간이 된다.

원역은 산기슭 중단부에 서남향으로 조성했으며 봉분 뒷편으로 담장을 설치해 아늑함을 주고 있다. 봉분 정면에 비석, 상석, 장명등이 일렬로 배치되었고 양쪽으로 망주석, 문인석이 세워져 있다. 동남측 하단부에 남향으로 정자각이 세워져 있었으나 지금은 기단부만 남은 채 건물은 소실되었다. 정자각 터 서남측에 수복방이 있었으나 역시 주춧돌만 남아 있다.

1762년 영조가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思悼世子를 폐위하고 사도세자의 아들을 효장의 아들로 입적시켰으니 법적으로 정빈이씨는 정조正祖의 친할머니가 되는 셈이다.

경선공주慶善公主

· 생몰년 미상

조선 태조의 차녀이다.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소생이며, 남편은 좌의정 덕부德符의 아들인 심종沈淙이다. 문산읍 사목리 군부대 안 야산에 묘역이 있다.

경순공주慶順公主

· ?~1407년(태종 7)

조선 태조의 셋째 딸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의 소생이다. 무안대군撫安大君 방번芳蕃과 의안대군宜安大君 방석芳碩의 동복누이이다.

개국공신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에게 출가하였는데,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남편 이제와 두 남동생 방번과 방석이 죽자, 다음 해 태조가 친히 경순공주로 하여금 여승이 되게 하였다. 묘는 문산읍 사목리에 있다.

경신옹주敬愼翁主

· 생몰년 미상

조선 태종의 열 번째 딸이며, 남편은 전성위全城尉 이완李椀이다. 이완은 부직장副直長 이제충李悌忠의 아들로 1430년 경신옹주와 혼인하였다. 1435년에 가정대부嘉靖大夫 전의군全義君에 봉해지고 1436년 궁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 왕으로부터 활과 화살을 상으로 받았다. 1442년에 북경 진하사로 차출되어 황후의 책봉을 하례하고 귀국하였다. 1443년 이웃 사람을 구타한 사건으로 직첩이 회수되고 진천鎭川에 부처되었으나 1445년 복원되어 통헌대부通憲大夫 이어 봉헌대부奉憲大夫로 승봉되고 충청도 도절제사都節制使로 나갔다. 문종이 사망할 때 주위를 경비하던 공로로 황주와 평양의 선위사宣慰使로 나갔다. 1455년 3월 12일 죽으니 시호를 양효良孝라고 하였다.

광탄면 영장리 보광사 못 미쳐 좌측 능선인 고령산 자락의 전의 이씨 종산에 이완의 묘가 있고, 그 아래에 일렬로 경신옹주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숙령옹주淑寧翁主

· 생몰년 미상

태종의 제7옹주로 신빈信嬪 신씨辛氏의 소생이다. 남편은 조선 전기의 문신인 윤우尹愚로 대제학大提學 윤형尹炯의 아들이다. 좌익공신左翼功臣에 녹훈되었고 파성군坡城君에 봉해졌다. 숙령옹주 묘역은 광탄면 창만리에 있는 도마산초등학교에서 북동쪽으로 약 2㎞ 떨어진 야산 중턱에 있다. 남편 윤우의 묘역은 옹주 묘역의 남동쪽 아래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숙명공주淑明公主

· ?~ 1699년(숙종 25)

효종의 둘째 딸이며 1652년(효종 3) 영의정領議政 심지원沈之源의 아들 심익현沈益顯과 혼인하였다. 효종은 둘째 딸 숙명공주를 무척이나 사랑해서 공주를 위해 인경궁仁慶宮 옛터에 집을 짓게 하였는데 그 비용이 너무 크고 사치하다고 사헌부에서 상소를 올린 일이 『효종실록』 4년에 기록되어 있다. 공주의 집은 무덕문 밖 사직동社稷洞에 있었으며 1699년(숙종 25)에 죽어 광탄면 분수리 청송 심씨 묘역에 심익현과 합장묘로 묻혔다.

숙명공주와 심익현 합장묘

숙정옹주淑貞翁主

태종의 제4녀이며 신빈信嬪 신씨辛氏 소생이다. 남편인 정효전鄭孝全, (?~1453)은 판서判書를 지낸 진鎭의 아들로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숙정옹주와 혼인한 후 1422년(세종 4) 일성군日城君에 봉하여졌다. 계유정난 때 부관참시剖棺斬屍에 처해졌고 성종 때 신원되었으며, 후에 단종 묘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경忠景이다. 금촌동에 옹주와 부마의 단檀이 있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순빈 정씨順嬪鄭氏

· ?~1592년(선조 25)

명종의 후궁이다. 임진왜란 때 족질族姪 윤견철尹堅鐵을 따라 임천林川으로 피난 가 머물다가 졸서卒逝하여 그곳에서 장사지냈다가, 1604년(선조 37) 교하읍 다율리 산 1-5번지에 반장返葬하였다.

화완옹주和緩翁主

· 생몰년 미상

영조의 아홉 번째 딸로 영빈暎嬪 이씨李氏의 소생이고 화평옹주和平翁主의 동생이다. 1749년(영조 25) 정치달鄭致達과 혼인하였으나 7년 후 남편을 병으로 여의었다. 후사가 없어 인천에서 어업을 하는 정석달의 아들 후겸을 양자로 삼았다.

화완옹주와 정치달의 묘

화완옹주는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와 정치적인 힘을 합쳐 사도세자의 죽음에 앞장섰으며 조카인 정조의 즉위를 막았다. 정조의 즉위 후 양자인 정후겸은 귀양가서 죽고 옹주는 지위를 박탈당하고 섬으로 귀양갔다. 그 벌의 가벼움을 항의하는 상소가 있었지만 정조는 끝까지 옹주를 사형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얼마가지 않아 유배에서 풀어주었다. 이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1898년(순조 8)까지 살다 죽었다.

파주 문산읍 사목리에 있는 화완옹주의 묘는 이장되어 새롭게 단장된 것이다. 쌍분으로 묘비 1기, 상석 1기, 향로석 1기로 구성되어 있다. 묘비는 1757년(영조 33) 정치달이 죽은 후에 세운 것으로 비석의 글씨는 영조의 친필이다. 묘비 전면에는 화완옹주 묘라는 표식은 없고 정치달의 묘라는 표식만 있으며 한쪽이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다. 묘비에는 총탄 자국이 남아있고 장명등은 근래 도난당했으나 전체적인 묘역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화평옹주和平翁主

· 1727년(영조 3)~1748년(영조 24)

영조는 셋째 딸로 영빈暎嬪 이씨李氏의 소생이다. 박명원朴明源과 혼인하였으나 2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영조의 화평옹주를 지극히 사랑하였는데, 1748년 6월 24일 옹주가 첫딸을 낳다가 죽자, 영조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장례기간 내내 옹주궁에 가서 살다시피 하였다.

『영조실록』에 보면 "임금이 화평옹주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옹주의 집에 부왕이 행행하였으며 곧이어 옹주가 졸하자 매우 슬퍼하고 빈소에 임해서는 통곡하며 슬픔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였다. 날씨가 매우 무더웠으나 밤새 환궁하지 않고 밤을 새웠다"(영조 24년 6월 24일)라는 기록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옹주의 집에 들렀던 기록이 있다.

화평옹주 묘

부마 박명원朴明源, 1725~1790은 조선 후기 학자이자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회보晦甫, 호는 만보정晩葆亭이다. 아버지는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낸 박사정朴師正이다. 1738년(영조 14) 화평옹주에게 장가들어 금성위錦城尉에 봉해졌으며, 영조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글씨를 매우 잘 써 나라의 경사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금옥보책명정서관金玉寶冊銘旌書官에 10여 차례 임명되기도 하였다.

화평옹주의 묘는 파주읍 파주리의 군부대 안에 부마와 합장묘로 곡장을 둘렀으며 묘비, 망주석, 상석1기, 향로석 1기, 장명등이 있고 문인석 1쌍 중 1개는 유실되었다. 봉분 앞 중앙에 세워진 옥개석 지붕의 묘비는 1790년(정조 14)에 세워졌다. 비의 앞뒷면 글씨는 영조의 친필이다. 총탄 자국이 있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묘역 아래 200여 미터 지점에는 박명원의 신도비와 하마비가 세워져 있다.

신사임당申師任堂

· 1504년(연산군 10)~1551년(명종 6)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예술가로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아버지는 명화命和이며, 어머니는 용인 이씨로 사온思溫의 딸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경세가인 이이李珥의 어머니이다. 사임당은 당호이며, 그 밖에 시임당媤任堂 · 임사재妊思齋라고도 하였다. 당호의 뜻은 중국 고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太任을 본받는다는 것이다.

외가인 강릉 북평촌北坪村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 명화는 사임당이 13세 때인 1516년(중종 11) 진사가 되었으나 벼슬에는 나가지 않았다.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한 사람이었으나,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의 참화는 면하였다. 외할아버지 사온이 어머니를 아들잡이로 여겨 출가 후에도 계속 친정에 머물러 살도록 하였으므로 사임당도 외가에서 생활하면서 어머니에게 여범女範과 더불어 학문을 배웠다.

19세에 덕수 이씨德水李氏 원수元秀와 결혼하였다. 사임당은 그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들 없는 친정의 아들잡이였으므로 남편의 동의를 얻어 시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 머물렀다. 결혼 몇 달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친정에서 3년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으며, 얼마 뒤에 선조 때부터 시집의 터전인 파주 율곡리에 기거하기도 하였고,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백옥포리에서도 여러 해 살았다. 38세에 시집 살림을 주관하기 위해 아주 서울로 떠나왔으며, 수진방壽進坊에서 살다가 48세에 삼청동으로 이사하였다. 이해 여름 남편이 수운판관水運判官이 되어 아들들과 함께 평안도에 갔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그림 · 글씨 · 시는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운데, 그림은 풀벌레, 포도, 화조, 어죽魚竹, 매화, 난초, 산수 등이 주된 화제畫題이다. 그림으로 채색화 · 묵화 등 약 40폭 정도가 전해지고 있다. 사임당의 자녀들 중 그의 훈로와 감화를 제일 많이 받은 것은 셋째 아들 이珥이다. 이이

는 어머니 사임당의 행장기를 저술하였는데, 그는 여기에서 사임당의 예술적 재능, 우아한 천품, 정결한 지조, 순효純孝한 성품 등을 소상히 밝혔다. 작품으로는 <자리도紫鯉圖>, <산수도山水圖>, <초충도草蟲圖>, <노안도蘆雁圖>, <연로도蓮鷺圖>, <요안조압도寥岸鳥鴨圖>와 6폭 초서 병풍 등이 있다. 묘는 법원읍 자운서원 옆 율곡 이이의 묘 아래에 남편 이원수와 합장묘로 되어 있으며 묘비와 상석, 향로석이 놓여있으며 좌우에는 크기가 작은 문인석 2기와 후대에 세운 묘비가 있다.

신사임당 묘. 맨 위의 묘는 율곡이이묘

이매창李梅窓

· 1529(중종 24)~1592(선조 25)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 묘역 입구의 오른쪽 언덕으로 가다보면, 신사임당의 딸 이매창의 묘가 나온다. 매창은 신사임당의 첫째 딸이며 어머니 못지 않게 시와 그림에 재능이 있어 매화도 등 몇 점의 그림이 전해지고 있다. 지혜가 출중하여 동생 이율곡도 매사에 누나의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매창은 조대남과 혼인하여 슬하에 3남3녀를 두었다. 이매창은 64세 되던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아들과 함께 원주 영원성으로 피난을 갔다가 왜적을 피하지 못하고 첫째 아들과 함께 왜군의 칼에 맞아 죽었다. 묘는 원주에 있다가 임진왜란이 끝난 후 남편 조대남이 묻혀 있는 파주 자운산으로 이장되었다.

이매창의 그림-참새와 대

달과 매화

홍랑洪娘

· 생몰년 미상

조선 중기의 기생으로 함남 홍원洪原 출생이다. 1573년(선조 6) 가을 당시 삼당시인三唐詩人 또는 팔문장八文章으로 불리던 최경창崔慶昌(1539~1583)이 북평사北評事로 경성鏡城에 갔을 때 그 막중幕中에 머물렀다.

홍원의 관기였던 홍랑은 평소에 시를 즐겼고, 최경창의 시를 무척이나 좋아했었는데, 마침 최경창이 1573년(선조 6) 북도평사로 변방인 함경도 경성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린 그와 만나게 되어 시적교감을 나누면서 연인사이가 된다.

최경창이 서울로 가게 되자 쌍성雙城(지금의 영흥)까지 따라와 작별하고 돌아가다가 함관령咸關嶺에 이르러 애틋한 사모의 정을 담아 시조 1수를 지어 최경창에게 보냈다. 이 시가 홍랑이 남긴 유일한 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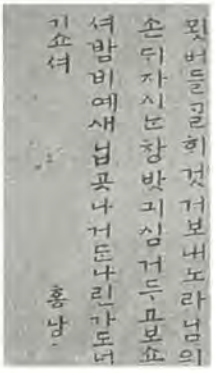
"묏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 손ᄃᆡ (묏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이 손에) 擇折楊柳寄千里
자시는 창밧긔 심거두고 보소서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人爲試向庭前種
밤비에 새닙곳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소서 (밤비에 새 잎 나거든 나처럼 여기소서) 須知一夜生新葉."

이별을 당해 버들을 꺾어주는 것은 하나의 관례적 행위로써 버들을 꺽는다는 말에는 이별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버들은 생명력이 강해 꺾어준 가지를 심어두면 쉽게 뿌리를 내리고 새파란 새잎을 피운다. 이처럼 자신들의 사랑도 시들지 말자는 다짐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버들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홍랑 자신이다. 홍랑은 이별을 당해 버들에 그 자신을 실어 고죽에게 보낸 것이다. 창은 방안에서 밖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통로이다. 그리고 안에서 밖의 대상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공간의 가장 가까운 곳에 홍랑은 자신이 보낸 버들을 심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한 홍랑은 자신의 모습을 밤비에 난 새잎으로 표현하고 있다. 밤비는 비가 지니는 풍요와 축복의 이미지가 강화된 것이다. 홍랑은 비록 헤어져 있지만 새잎으로 전신하여 고죽과의 사랑을 지속하고자 한 것이다.

이 시는 최경창의 문집에 한시로 올려져 있다. 최경창은 파면 후 다시 복권되어 종성부사로 간지 1년 만에 한양으로 돌아오다 1583년(선조 16) 객관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최경창의 부음을 들은 홍랑은 그의 무덤 옆에 묘막을 짓고 자산의 얼굴을 상하게 한 뒤 몸을 씻지 않은 채 파주에서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홍랑은 최경창의 시고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며 난리를 피한 덕분에 최경창의 시가 온전하게 전해지게 되었다. 홍랑이 죽고 난 뒤, 해주 최씨 문중은 그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기리어 홍랑을 한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여 교하읍 다율리 최경창 부부의 합장묘 아래 홍랑의 무덤과 홍랑가비洪娘歌碑를 만들어 주었다.



묏버들 시조의 원본 사진

홍랑의 묘소와 묘비

김석몽金石夢 처 남평 문씨南平文氏와 열녀문

· 생몰년 미상

조선 영조 때의 열녀로 본관은 남평南平이며 파주 출신이다. 김석몽金石夢의 부인이다.

일찍이 부군을 잃었으나 시부모를 섬기는 데 정성을 다했다. 어느 날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중 악한이 강제로 겁탈하려 하여 반항하자 칼로 온몸을 난자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순절하였다. 1764년(영조 40) 조정에서 대신들이 상소를 올려 정려를 하사하였다. 정려각은 파주읍 백석리에 있으며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려 내에는 「烈女 金石夢妻 南平文氏之門 英廟甲申 八月日 命旌癸亥二月日 重修立 열녀 김석몽처 남평문씨지문 영묘갑신 팔월일 명정

계해이월일 중수립」이라 음각된 현판과 '烈女旌閭記 열녀정려기'가 걸려있다.

정각 규모는 정면이 2.2m, 측면 2m이며 맞배지붕에 기와를 올렸는데 현재의 정문은 1964년 2월에 신축한 것이다.

유난히 열녀비를 많이 내렸던 영조 시기는 사회적 모델이 필요했던 시기이다. 여성에게 요구되던 덕목은 역시 정절이었고 이러한 열녀들은 다른 여성들의 귀감이 되었다.

남평문씨 열녀문

열녀정려기와 현판

김검金儉 처 신평 송씨新平宋氏와 열녀문

· 1583(선조 16)~1636(인조 14)

조선 인조 때의 열녀로 본관은 신평新平이며 파주 출신이다. 충신 김복경金復慶(1545~1592)의 자부이며, 통덕랑 김검金儉의 부인이다. 시아버지 김복경은 임진왜란 때 무장으로 활약하다 순국한 충신이며 본관은 경주, 호는 몽윤당으로 양주목사 겸 양주 병마첨절제사로 재직하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48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1633년(인조 11) 12월 그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정려를 세우게 하고 「忠臣 通政大夫行楊州牧使 鎭兵馬僉節制使 金復慶之閭 충신 통정대부행양주목사 진병마첨절제사 김복경지려」란 현액을 내렸다.

김복경의 며느리 신평 송씨는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 삼각산 기슭으로 피난하던 중 청나라 군에게 사로잡히자 포로로 잡혀가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여 자결하였다. 1639년(인조 17) 나라에서 그 정절을 표창하여 열녀로 봉안하는 한편 파주읍 봉서리 산 94-1에 「烈女通德郎金儉妻 恭人 命 旌女 열녀통덕랑김검처 공인 명 정녀」란 현액을 하사하였다. 정각 오른쪽은 김복경, 왼쪽은 신평 송씨의 현액이 나란히 봉안되어 있으며 정각의 규모는 정면 5.3m 측면 2.4m로 맞배지붕 양식으로 최근에 중수하였다.

조중협趙重協 처 청풍 김씨淸風金氏와 열녀비

· ?~1797년(정조 21)

조선 후기의 효부이자 열녀이다. 파주 출신이며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김흥노金興魯의 딸로 15세에 조중협趙重協에게 출가하였다. 시아버지가 병으로 고생할 때는 1년 이상을 약과 음식 봉양에 정성을 다하였으며, 이에 시아버지가 감복하여 효부가 있어 마음 놓고 눈을 감는다고 유언하였다. 상을 당하여서는 가산이 곤궁하여 출가할 때 가지고 온 옷가지를 팔아서 상을 치르는 비용을 충당하였다. 겨우 기년朞年을 지내고 난 후 남편 조중협이 부친을 여읜 슬픔으로 운명하자 부군의 뒤를 따라 죽었다. 마을사람들이 관청에 이 사실을 고하고 도백道伯이 조정에 품의하여 1810년(순조 10) 정려가 내려졌으며, 의인의 직첩이 하사되는 한편 부군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추증되었다. 월롱면 능산리 산33-1에 열녀비가 세워져 있으며 현재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청풍김씨 열녀비

정난정鄭蘭貞

· ?~1565(명종 20)

조선 명종 때 척신戚臣 윤원형尹元衡의 첩. 본관은 초계草溪. 아버지는 부총관 윤겸允謙이며, 어머니는 관비官婢출신이다. 스스로 미천한 신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윤원형에게 접근, 그의 첩이 되었다. 1545년 인종이 죽고 명종이 즉위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모후 문정왕후文定王

后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그의 동생 윤원형의 사주使嗾에 따라 명종과 문정왕후에게 인종의 척족 윤임尹任이 그의 조카 봉성군鳳城君(중종의 8남)을 왕위에 세습시키려 한다고 무고,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과 이조판서 유인숙柳仁淑, 영의정 유관柳灌 등을 제거하게 하였다. 그 뒤 문정왕후의 환심을 얻어 궁중에 무상출입하는 한편, 1551년(명종 6)정실 김씨金氏(安遂의 딸)를 축출, 적처嫡妻가 되었으며, 이어 김씨를 독살하고 정경부인貞敬夫人의 작호를 받았다. 봉은사奉恩寺의 승려 보우普雨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 불교진흥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윤원형의 권세를 배경으로 상권을 장악, 모리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5년 문정왕후가 죽고 윤원형이 사림의 탄핵을 받아 황해도 강음江陰에 유배되자 함께 배소에 퇴거하였다. 이때 김씨부인의 계모 강씨姜氏의 고발로 김씨독살사건이 탄로나자 사사賜死될 것으로 판단, 가노家奴에게 금부도사가 오면 알려달라고 하였는데, 금부도사가 평안도를 향하여 금교역金郊驛을 지날 때 이를 알리자 윤원형과 함께 음독, 자살하였다. 죽은 뒤 본래의 신분으로 환원되었다. 묘는 교하읍 당하리 파평윤씨 종중묘역 내 윤원형 묘소 뒤에 있다.

정난정 묘

◎ 참고문헌
여성문화유산해설사회, 『여성문화유산』, 2008.
파주시, 『坡州市誌』 제5권, 제7권, 2009.

기고

21세기와 율곡의 중용정신의 성찰

심 성 구 (파주문화원 부원장)

Ⅰ. 서론

중용은 사서의 하나로 전해오는데, 예기에서 독립되어 단행본으로 다루어졌다.

중용은 송대에서 정이천(程伊川, 1033~1107) 「中庸」을 공문(孔門)에 전수한 심법이라 한다. 그의 형인 정명도(程明道, 1032~1085)와 더불어 그 내용을 보완했다. 그 후에 다시 주자(朱子, 1130~1200)가 「禮記」 「孟子」 중에 있는 「大學」과 「中庸」 두 편을 독립시켜 「論語」 「孟子」와 함께 「四書」라 하고, 「中庸章句」, 「中庸或問」 등을 저술하여 중용의 오묘한 뜻을 천명하였다.[1]

이와 같이 「中庸」은 사서의 하나로 유학의 근본정신이 가장 함축성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중용은 유가의 철학사상이 집약되어 있다. 기본경전으로서 중국어나 동양 각국에서 모두 필독의 경전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중용은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와 공문(孔門)의 심법을 전수한 것에 따르면 「中庸」은 자사에 의하여 그 저본이 성립되었고, 다시 그 문류에 의하여 완성된 것이라는 설도 있다.[2]

그런데 「中庸」 전33장의 문장을 살펴보면, 제 2장 이하는 자사가 공자의 말과 고전에서 나오는 사례, 그리고 또 시경 등의 말을 인용하여 제1장에서 제기된 이 책의 요지를 천명한 것이니, 마지막의 제3설이 가장 타당하게 보여진다. 유가경전에서 「論語」 「孟子」는 인간사회의 사실을 많이 말하고 있음에 대하여, 「中庸」과 「大學」은 인간사회의 근원으로서의 심성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논어 맹자도 한걸음 나아가 경험물(經驗物)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대하여, 「大學」과 「中庸」

1) 走者 中庸章句序

2) 淸代 考證學者 崔述이나 詩人들은 「中庸」 저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近來 學者들은 秦漢間에 無名의 作으로 본다.

은 인간가치관과 실천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中庸」의 이같은 관점을 살펴봄으로서 인간가치문제와 「중용」의 실천론을 현대적 의미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중용의 의미

'중(中)'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아 인생이 지중 지정(至中 至正)하여 질서를 이룬 안정된 상태가 사물에 접하여 알맞은 질서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말이며 용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평상됨을 나타내는 뜻이라 하겠다. '용(用)'은 평상야(平常也)라 하고 있다.[3]

유가의 교리에서는 중용의 의의를 知行을 덕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래서 「中庸」 제4장을 소개한다.

도가 행해지지 못한 소이연(所以然)을 내가 알겠도다. 지자(知者)는 지나치고 우자(愚者)는 미치지 못하는 구나. 도가 밝혀지지 않은 소이연을 내가 알겠구나. 현자(賢者)는 지나치고 불초자(不肖子)는 미치지 못하는 구나.[4]

여기에서 중용의 도는 인도적 현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도 지자는 고속·정미한 것에만 치우쳐서 중용의 도가 지나치고 우자는 지(知)에도 미치지 못하여, 불초자(不肖子)는 행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알기를 구하지 않는 것이니, 중용의 도는 지(知)가 실천적인 행을 떠날 수 없고 행(行)은 지의 밑바탕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체(體)와 용(庸)이 합일되는 경지에서 중용의 도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부여된 인생이 '진실무망(眞實無望)'하고 '사무사(思無邪)'한 주체가 확립되어 다시 말하면 대상인 사물에 접하게 되면 그 작용이 시중(時中)이 되어 인간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는 성정(性情)으로 말하면 중화(中和)라 이르고 리의(理義)로서 말하면 중용이라 하고 있으나 그 실제는 동일하다. 중(中)은 체(體), 화(和)는 용(用)이니 이는 기발(已發) 미발(未發)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중화(中和)는 성정(性情)으로서 심성(心性)을 가르키는 것이고, 중용(中庸)은 그것이 행위로 드러난 것을 가르키는 말이다.

「中庸」 수장(首章)에서는 "희노애락이 발하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 발(發)해서 다 절도(節度)에 맞는 것을 화(和)라고 하며, 중(中)은 천하의 대본(大本)이요, 화(和)는 천하의 달도

3) 「中庸」 章句註
4) 道之不行也 我知知矣 知者過之 愚者不及也 道之不明也 我知知矣 賢者過之 不消者不及也

(達道)이다"라는 말이 있다. 주자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희노애락(喜怒哀樂)은 정(情)인데, 그 정이 발현되지 않는 미발상태에 있는 것이 성(性)이다. 이같은 성(性)은 과(過)·불급(不及)·편기(偏倚:치우침)가 없기 때문에 중(中)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 성(性)이 외부의 사물에 감이수통(感而遂通:신이 감응하여 스스로 도와주는 것)되어 절도에 맞는 것은 정(情)의 정(正)이니 이것은 곧 화(和)이다. 중(中)은 대본(大本)으로서 도지체(道之體)요, 화(和)는 달도(達道)로서 도지용(道之用)이다.

주자(朱子)가 여기에서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 체와 용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중과 화는 도의 체와 용, 즉 체와 용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또 정이천은 본연지성(本然之性)이란 문제로 성(性)은 곧 리(理)요 본선(本善)이며, 천하의 리(理)로서 '희노애락'을 미발(未發)이라하는 것이고, 정(情)은 성(性)이 동(動)하여 선악으로 갈라지고 악(惡)은 형기(形氣)에 가려진 것으로 선은 본래적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다.

2. 율곡의 철학관으로 보는 중용사상

율곡은 이에 대해서 미발은 태극(太極)의 체(體)요 기발(已發)은 태극의 용(用)이라 하고, 그리고 미발지중(未發之中) 곧 지선지체(至善之體)로서 '천명지성(天命之性)'이라 한다. 나아가서 대본(大本)은 재심지중(在心之中)이요 달도(達道)는 재사물지중(在事物之中)이라 한다. 재심지중은 미발지중(未發之中)으로 지선지체(之善之體)요 재사물지중(在事物之中)은 지선지용이라 한다.

여기에서 불화는 기질지성의 탁박(濁駁). 불순(不純) 등의 형기(形氣)로 말미암아 인욕(人慾)의 사(私)가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가리게 하여 불화(不和)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과 화는 인성의 동정(動靜) 두 계기로서, 정(情)은 체(體)요 동(動)은 용(用)으로 볼 수 있다. 다음에 중과 화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중화의 중은 희노애락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부본연의 성(性)이요 천명지성이다. 그것은 미발상태이므로 심지체(心之體)이다. 그리고 중화의 화는 희노애락이 절도에 맞는 것(중절)으로 천하의 달도이며, 중용의 시중(時中)에 상응하는 심지용(心之用)이다. 그러면 심지체인 중과 심지용으로서의 화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 일신의 지각운용은 심하는 바가 아님이 없는 즉, 심은 진실로 신을 주재하는 바로서 동정어묵(動靜語默)의 사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정할 때 당해서는 사물이 아직 이르지 않으니 사려(思慮)가 아직 싹트지 아니하며 일성(一性)이 혼연하여 도의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그것이 이른바 중이니, 이는 곧 심의 체되는 바로서 적연부동(寂然不動)한 것이다. 그것이 움직임에 미쳐서는 사물이 서로 이르고 사려가 싹튼 즉, 실정이 작용하니 각기 주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이른바 화로서 심의 용되는 바이므로, 감이수통한 것이다. 그러나 성(性)이 정(靜)할 때도 동(動)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정이 동할 때도 반드시 절도가 있으니, 이는 곧 심이 적연하고 감통하여 주류관통(周流貫通)해지므로 체(體)와 용(用)이 처음으로 서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소이이니라.[5]

이때 심(心)은 성(性)과 정(情)을 통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중화(中和)는 성정(性情)의 덕(德)이요 적감(寂感)은 심(心)의 체용(體用)이 된다. 이같은 심은 적연시(寂然時)에는 미발의 중(中)이요, 감통시에는 중절로서 화(和)가 된다. 성정지덕(性靜之德)과 중화지묘(中和之妙)는 마음의 주체가 확립될 때에 수리(修理)가 있고 질서를 유지한다.[6]

그러면 치중화의 방법은 어떠한가? 북계진씨(北溪陳氏)는 치중(致中)·치화(致和)에 대하여 "치중은 천명지성(天命之性)이요 치화는 솔성지도(率性之道)"[7] 라 하였는데, 중은 천명지성을 가르키고 화는 율성지도를 가르키는 것이다. 율곡도 중용사상에서 「大學」의 명덕(明德)을 설명함에서 "명덕의 체는 지선의 체이며 미발의 중이다. 명덕(明德)의 용(用)은 곧 지선(至善)의 용(用)이요 기발지중(己發之中)이라."[8] 말한 명덕지체는 미발지중이요 명덕지용은 기발지화(己發之和)에 해당한다. 그런데 주자는 "체립이후(體立以后)에 용유이행(用有以行)이라"[9] 하였으니 지중(致中)과 지화(致和)는 체(體)와 용(用)의 관계에서 체용일원(體用一源)이라고 할수 있다.

「중용(中庸)」 본문에 "지중화(致中和)면 천지위언(天地位焉)하며 만물 육언(育焉)이라" 하였으니 율곡은 성학집요(聖學輯要) 통설편에서 치중화의 공효를 말하였고, 주자는 천지위의 '위(位)'를 '안구소(安具所)'의 뜻으로 보았고, 정현(鄭玄)은 '정(正)'의 뜻으로 보므로 천지위언은 질서가 확립되고 안정된 세계를 말한 것이고 만물육언(萬物育焉)의 '육' 수기생(遂基生)으로 보았으므로 만물육언은 천지가 제자리 잡히고 안정되면 발전과 번영을 위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10] 즉 중화를 확충하면 천지와 인간이 모두 대립 모순 불조화같은 것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화의 주체확립이 이루어지면 외적으로는 물아일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외부적 실천을 구체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Ⅲ. 결론

중화(中和)의 도(道)는 지선(至善)·지성(至誠)·진성(盡誠)이 되어야만 치중화(致中和)할 수 있다고 보아서, 중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직 천하의 지성(至誠)이라야만 그 성(性)을 다할 수 있나니, 그 성을 다할 수 있어야만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고,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어야만 물의 성을 다할 수 있고, 물(物)의 성(性)을 다할 수 있어야만 곧 천지화육에 참여할 수 있고, 천지화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곧 천지와 더불어 나란히 될 수 있다.[11] 고 한다.

지성이 되어야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을 실현하는데 극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성(盡

5) 「朱子大全」, 卷三十二書 答張欽夫 P.589
6) 上揭書, 卷三十二, p.25
7) 「中庸」, 中和章 備註
8) 「栗谷全書」, 卷九, 答成浩原, p.190.
9) 「中庸」, 中和章 註
10) 上揭書, 中和章
11) 「中庸」, 第二十二章

性)함은 자기완성인 동시에 타자의 완성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불성(不誠)이면 무물(無物)인 고로 군자는 성지위귀(誠之爲貴)라" [12]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치중화요 군자지도의 극치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성지와 같은 수양을 통하여야만 치중화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가치와 지선의 경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람을 성인 또는 전인적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비록 주자의 이기사단칠정(理氣四端七情)문제에 관하여 같지 않은 견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충효(忠孝)와 명륜(明倫)을 중심으로 '인애(人愛)' '성신(誠信)' '화합(和合)'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200여년 동안의 체제가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와 거주, 언론, 종교 등의 자유가 있게 하였으며 생존권, 근로권, 재산권이 있고 법으로 규정된 일련의 의무가 있다. 이 외에도 민주사상의 '인권'중시는 1948년 UN에서 인류공통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려는 내용들이 「세계인권선언」으로 제청한바 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이 넘은 오늘날 율곡의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 후세에게도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분명하게 자연스레 나타나게 하고 있다. 현대에서 이같이 치중화의 경지에 도달한 위정자가 시정을 하게 된다면 그 명덕이 만백성에게 안정된 사회를 지속케 하며 질서있는 사회와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2) 上揭書, 第二十五章

기 고

파주의 명당 分水院

이 덕 형 (여산도시풍수연구원 원장)

분수원에서는 두 가문 간에 치열한 산지쟁송이 있었다. 산지쟁송이 무슨 이유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수원의 지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분수원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에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공무를 집행하던 관원들의 숙소가 있어서 원院이라는 뒷말이 붙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 분수리를 분수원이라 한다. 이곳 분수원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파주목조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에서는 분수원에 대해서 "광탄廣灘은 파주 남쪽 10리 지점에 있고, 물의 근원은 양주 고령산高嶺山에서 시작되어 파주 서쪽 10리 지점을 경유하여 장보포로 된다. 그리고 분수원焚脩院은 파주 남쪽 24리 지점에 있다. 이곳은 공민왕 10년에 홍건적을 피해서 분수원에 이르렀는데, 안렴사按廉使 안숭원安崇源, 충주 목사忠州牧使 박희朴曦가 와서 왕을 뵈었다는 곳이 곧 여기 분수원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분수원은 채련蔡璉의 시에 그 아름다움이 그려져 있는데 다음과 같다. "빗줄기가 삼대같이 어지러워서, 갈지 말지 결단하지 못하였다. 뒤에는 푸른 재가 높다랗고, 앞에는 시냇물이 목 메인다. 지경이 궁벽지니 중이 궁벽지고, 하늘이 까마득하니 나는 새 안 보인다. 난간에 기대서 꿈을 꾸니, 꿈속에서 금궐金闕에 조회하였다." 이 시를 풍수적으로 풀어보면 분수원이 아주 특별한 명당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뒤에는 푸른 재가 높다랗고," 라는 대목은 풍수지리에서 배산背山이 되고, "앞에는 시냇물이 목 메인다."라는 대목은 임수臨水가 된다. 그리고 뒤는 산이있어 높고 앞은 물이 있어 낮으니 자연스럽게 전저후고前低後高의 형국이 이루어 졌다. 다음은 "지경이 궁벽지니..... 하늘이 까마득하니 나는 새 안 보인다."라는 대목에서 이곳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길목을 그려볼 수 있다. 즉 "지경이 궁벽지니" 이것은 푸른 숲이 한참을 구비구비 첩첩이 쌓인 형상을 뜻하며, "하늘이 까마득하니 나는 새 안 보인다." 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분수원에 다다르면 이곳은 사방이 조밀하게 막혀있어 하늘을 나는 새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풍수지리에 있어서 장풍득수藏風得水를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옛 문인들은 산수의 아름다움을 시를 통해서도 명당임을 암시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은 그의 저서 『택리지』의 「복거총론」 편에서 살기좋은 터의 요건을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이 요건과 채련의 표현은 일치하고 있다. 「복거총론」의 지리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 즉 배산임수, 전저후고, 장풍득수의 요건을 갖춘 터를 말하는데, 죽은 자가 영면하는 음택지인 산소는 지리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생리와 인심, 산수는 산자生者들이 누려야할 필수조건이다. 그러니 산소자리로서는 지리 즉 사신사四神砂라는 청룡과 백호, 주산과 안산 등 혈을 보호해주는 4개의 산이 균형과 안정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수원은 음택지로서 명당의 요건을 매우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일찍이 이곳이 명당이었음을 알아차린 두 사람이 있었다. 한사람은 고려의 충신 파평 윤씨 대보문하시중 윤관이었으며, 또 한사람은 조선의 충신이며 효종의 상신으로 등재된 청송 심씨 영의정 심지원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분수원의 동일한 하나의 산줄기에 묘가 있었는데 위에는 심지원, 아래에는 윤관의 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확산된 사대부가의 위선활동 속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 이었다. 자기문중의 후손이 조상의 윗자리에 묘를 쓰는 것도 예의상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는데, 타문중의 묘가 자기문중 윗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시대를 달리하여 살아갔다는 것과 문중이 다르다는 사실 이외에는 무엇 하나 기울지 않는 명문 벌족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나라에 충성한 충직한 신하로서 국왕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 윤관은 1107년 고려 예종초에 여진족의 침략을 물리치고 9성을 쌓아 국가의 영토를 굳게 지켰으며, 심지원은 광해군조에 입신하였으나 폐륜적인 정치현장에서 스스로 물러나 향리에 은둔 중, 인조의 등극을 계기로 관직에 올라 효종과 현종조에 이르기까지 세 왕조에 충성을 한 신하였다.

윤관은 1101년(고려 숙종 1년) 숙종의 명을 받아 당시 고려의 도성이었던 개경을 중심으로 남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터를 물색하기도 한다. 당시의 기록인 『고려사절요』 제6권, 「숙종 명효대왕 1년」, 신사 6년(1101), 10월조에 있는데 그 문건을 살펴보면 '겨울 10월에 최사추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노원역 · 해촌 · 용산 등 여러 곳에 나아가서 산수를 살펴보았으나 도성을 건설하기에 합당하지 않았으며 오직 삼각산 면악의 남쪽은 산형과 수세가 옛 문서와 부합되니 주산 줄기의 중심 큰 맥에 임좌병향으로 지형에 따라서 도성을 건설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좇았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고려사절요』 제6권, 「숙종 명효대왕 1년」, 임오 7년(1102), 3월조의 기록에 숙종은 윤관의 의견을 좇아 면악(북악산)의 남쪽터에 남경을 건설하게 된다. 이곳의 경계는 산의 형세를 따라 동東으로는 대봉大峯까지, 남으로는 사리沙里까지, 서로는 기봉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현재 남으로는 남산, 동으로는 낙산, 서쪽으로는 인왕산을 말

하는 것이다. 이로서 한양의 경계가 결정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한양터는 이미 고려조의 윤관에 의해서 설정되었으며, 이곳은 훗날 현재의 대한민국 서울이 되었다. 그리고 심지원은 인조의 생부였던 원종의 능인 장릉章陵의 추승례를 행하고, 1635년 선조의 능이었던 목릉이 무너졌을 때 관여를 하였다. 그리고 1635년 인조의 비 인열왕후 장례 중 공을 인정받아 통정동부승지로 승진하였다. 1659년 5월 17일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등극하면서 총호사가 되었고, 영의정과 함께 원상이 되어 효종의 산릉을 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효종의 첫 능지였던 건원릉의 화소지역으로 결정할 때 현종은 수원으로 정하고자 했으나 심지원이 건원릉 내에 조성하기를 진언하기도 하였다. 결국 현종은 제1차 효종릉을 건원릉 내에 조성하였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후 여주의 홍제동으로 천장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윤관은 이미 국가의 영토를 지키는 장수로서 터를 물색할 때 유사시 방어하고 공격하기에 좋은 터가 어느 위치인지를 살피고 있었고, 심지원은 왕이 능지를 결정할 때 그 터의 좋고 나쁨을 직 · 간접적으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위치에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이미 두 사람은 풍수지리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두 사람은 분명 분수원을 자신들의 음택지로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윤관은 파평사람이었기에 이곳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심지원은 인조와 인열왕후의 장릉을 조성할 때 이곳을 오고가며 분수원을 알았을 것이라 추측되고, 또는 심지원의 아들 심익현이 효종의 둘째딸 숙명공주에게 장가들어 하사받은 사패지가 바로 이곳이었는데 와서 보니 천하의 명당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심증에 대해서 확증을 갖게 해주는 대목이 심지원의 신도비에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계해년(1623) 3월 인조반정이 있던 날 밤에 언덕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니 성안의 불빛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이것은 인조반정이 있던 날 남한산성에 올라 북쪽의 한양을 바라보니 궐내에 불이 나 하늘이 훤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원은 1662년 1월 28일 성남의 자택에서 임종 하였다. 그해 3월 28일 파주 분수원 축좌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이후 10년이 지나서 1672년 3월 곤향의 언덕에 이장하여 전부인 권씨와 후부인 윤씨와 합장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다. 즉 심지원의 원래 연고지는 성남이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심지원의 연고지는 원래 파평의 분수원과는 관련이 없었음을 그의 신도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두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추측해보면 이미 당시의 명문벌족이었던 두 가문은 분수원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훗날 파평 윤씨는 윤관장군의 묘를 실전하고, 청송 심씨는 효종으로부터 그 일대를 사패지로 하사받아 두 가문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다. 현재 이곳에 가서 살펴보면 파평 윤씨의 묘는 윤관장군 단 1기만 존재하고 그 옆에는 청송심씨의 묘들이 여럿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는 효종의 둘째딸 숙명공주와 그의 남편 청평위 심익현의 묘도 있다.

이렇게 분수원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욕심에 휘둘리는 터가 되어버리고

그림 1. 분수원 묘역의 용맥과 수계

말았다. 땅은 한번 파헤쳐지면 끝까지 그 상태로 있어야 함을 효종의 능지를 결정할 때 당시 산림이었던 송시열이 오환五患의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었다. 송시열이 주장한 오환의 예는 효종이 승하하자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른 현종이 효종의 능지를 수원으로 결정하려 하였으나 그곳은 관아가 있고 민가와 더불어 전답이 있는 곳이라 민생에 많은 피해를 준다는 구실로 훗날 이곳은 분명 어떤 이유로 다시 파헤쳐지게 될 것이라 했다. 이렇게 파헤쳐지게 되는 이유가 5가지가 있다고 해서 오환이라 한 것이다. 분수원은 분명 결과적으로 오환의 대상지가 되었다. 그 사실을 『파주분수원산송전말』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윤씨 가문에서는 윤관의 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지원의 묘 앞에 있는 작은 묘를 파헤쳤는데 결국 이 묘는 윤관의 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 터는 다시 한 번 수난을 겪어야 했다. 두 가문간의 합의로 청송 심씨 묘들이 모두 이장을 해갔기 때문이다.

본 글의 서두에 무슨 이유로 쟁송이 있었는지 살펴본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을 이미 본문의 내용 중에 밝혀버리고 말았다. 쟁송의 이유는 분수원이 대단한 명당이었다는데 있었고, 원인은 그곳을 탐낸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욕심이 발로한 것이다.

역사의 해석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영속적인 결과를 안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 그런 결과들이 종종 우리 귀에 들려오곤 한다.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모든 결론은 이미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다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반대의 사실과 결과로 뒤집혀질 것이다. 이것이 순환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한민족의 경전인 천부경에서는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이를 천부경에서 일시무시일一始無始一 일종무종일一終無終一 이라 하였다.

- 山影推不出 月光掃還生 -

기고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행장

신 용 면 (파주문화원 이사)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1702~1761)은 조선 후기 영조조의 학자로 교하 금성리(현재 파주시 금능동)에서 생장하였으며 이황 퇴계 선생의 문하생으로 허목. 허후를 이어 하빈의 종증조 신무와 성호 이익선생 과 부친 신구중으로 이어지는 학계를 이어받았고 이병휴. 이맹휴. 윤동규. 안정복. 권기언. 권철신 등과 학맥을 같이했다.

하빈의 시조는 수修요, 시호는 공헌恭獻이다. 송나라 개봉부 사람으로 고려 문종 22년(1068년)에 귀화하여 정일품 수사도. 좌복야를 지냈으며 후손이 거창에 근거하여 관을 거창으로 하였다.

이 행장은 종가에 전하여 지지 않아 존재여부조차 모르고 있던 것을 양승민 박사(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가 그 박사논문「하빈선생의 잡기·패설류 저술에 대하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저서가 숭실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도서관 및 하빈의 방계 후손 신용일愼鏞日 박사 댁에 산재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락해와 신용일 박사가 주관하고 양승민 박사가 이들 모든 자료를 영인본으로 수록 편집하여『하빈선생전집河濱先生全集』9권 약 오천 쪽을 거창신씨 용강공파종친회 기금으로 간행하여 2006년 6월 1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역사적인 출판기념회를 갖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세상에 알린바 있다.

이 과정에서 성재性齋 허전許傳(1797~1886)의 문집인『성재집性齋集』에 수록되어 있는「하빈선생행장河濱愼公行狀」을 양승민 박사가 발견하여 제9권에 수록한 것이다.

하빈공의 저서는 일본 국립도서관 등에 다수 있다는 풍문이 있고 국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모쪼록 이모든 저서가 하루속히 세상에 알려지고 또한 많은 후손은 물론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 하빈공의 학문체계와 사상이 반듯하게 정립되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原文>

河濱慎公行狀

性齋 許傳 撰

不佞少遊廬先生之門先生嘗稱說慎河濱之賢曰是星湖高弟下廬師順庵師星湖耳目所覩記也不佞至老白首終不可諼矣河濱曾孫龍九持河濱所著書及年譜與星湖所撰墓誌爲余垂泣而言祖先有美而不揚子孫微弱之致世無好學而然也非子之文無以闡發幽潛是請狀行不佞戚戚焉有感不敢固辭謹按河濱先生肅宗壬午二月庚申生于漢陽樂善坊坊始母夢驪馬入室而有身占夢云驪屬黑馬屬午壬午之應驗先生幼少時己勤讀書或夜深睡取簷冰拭眸黎明盥櫛就塾十三四文藝己成稍長博觀羣書如道家佛家兵家者流無不探賾大人戒之曰雜書害人心術爾其朮諸經籍先從大學定規模吾受之晩湖先生晩湖受之觀雪先生者此也(晩湖諱懋先生之庶從曾祖也星湖稱之曰學有淵源一世高其行)先生從之悉取少時作燒之年二十登國子上庠自是廢擧業專精聖人之書讀至萬遍者多如有意義之未易理會處力索强究如血戰相似終必貫穿而後己其獨得之玅有發諸儒所未發者皆有所著易則有象辭新編有易通義繫辭通義說卦通義卦著圖說易圖外編詩書則各有集解春秋則有摠按庸學則各有解又有後說語孟及小學則各有箚疑家禮說幼儀內教竝雜著詩文合百餘卷先生之學業見於文章者蓋如此時有所謂西洋之學自中國流入而高明之士往往迷惑先生朮觀其書知其爲邪術乃歎曰未流之弊甚於洪水猛獸遂著西學辨一編以斥之衛道闢異之功於斯爲大孝友天植父有訓戒則退而必錄名曰趨庭記聞己未以父母俱存上有王母李淑人二弟幷司馬三妹無故先生曰天下之樂孰加於是乃以仲春丁亥有事于廟設宴上壽名其宴曰一樂作歌頌後尹氏妹沒撫其四幼女及長擇名門嫁之他妹壻貧病者亦與同居憂樂共之常以端敬王后之遜位益昌君之遇害爲至痛

攄摭朝野史乘請諡狀于文衡呈于太常盖當時事三勳跋扈脅制百

僚不啻若兵諫中廟不得已從之然實非上意也國東門內有曬衆巖至今傳爲舊蹟則上意尤可仰揣也然自金冲庵朴訥齋之抗疏被罪益昌事爲時諱者數百年英廟朝儒臣金台南上疏請復愼妃上欲詳知本末有以益昌諡狀在玉堂收進之上大加嗟歎特命復端敬王后贈益昌領議政諡信度御筆書古今同忠四字賜之吳藥山光運贊曰淸明在躬志氣如神爲其大義之先倡人謂忠孝所感也辛巳冬疾革閱所著命藏之曰吾於經傳見得到處不可與不知者道百世俟聖人而不惑者亦惑有之將屬纊口號得正而斃君子曰終遂卒十一月二十四日也先生諱後聃字耳老河濱其別號一曰遯窩其先宋開封人有諱修高麗文宗時隨海船來籍居昌府官至守司徒左僕射諡恭獻是爲鼻祖後世閥閱繁昌入本朝有諱仁道漢城府右尹贈戶判是爲十二代祖也襄烈公諱以衷襄簡公諱詮章成公諱承善三世著名八世祖諱守勤左議政益昌府院君中宗國舅也高祖諱得義判官贈參判濟昌君曾祖諱熹縣令祖諱徽五以孝贈持平無子取襄簡公次子判尹諱承福之後龜重爲子文縣令贈禮參號畏窩寔先生之皇考也妣贈貞夫人羽溪李氏郡守貞觀之女判書松坡瑞雨之孫也配同福吳氏上億女監司贈領相瑞之玄孫也子佩孫世師無子以再從弟世德子龍九爲後

하빈신공행장

성재 허전 찬

직계후손 용면 국역(直系後孫 鏞冕 國譯)

내가 젊어 여선생 문하에 있을 때 선생이 항상 신하빈 이라 부르는 어진 사람이 있었다. 성호 선생 하에 여사 순암이 성호선생에게서 듣고 본대로 쓴 것과 하빈 증손 용구가 찾아와 소

생이 벼슬 없이 늙어 죽게 되었는데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며 하빈의 저서와 연보 및 성호가 지어준 행적을 적은 묘비 글 등을 가지고와 선조와 같이 학문을 못하고 미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행장을 써줄 것을 간청하여 이를 슬피 여겨 고사하지 못하고 행장을 쓴다.

숙종 임오년 2월 경신 일에 한양 낙선방에서 태어났다. 모친의 태몽에 흑마가 방에 들어와 몸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니 해몽한즉 임오년의 흑마의 길몽이라. 선생의 어린 시절 열심히 독서를 하였는데 깊은 밤에 잠이 오면 처마 밑에 고드름으로 눈을 밝게 닦아가며 열심히 독서 하였는데 십여 세에 도가 불가 병가 등을 가리지 않고 탐구하여 부친이 잡서는 사람의 심기를 해롭게 하니 먼저 경서를 공부하되 대학을 전수 하게 하였다.

부친은 만호선생에게 배웠고 만호선생은 관설선생에게 배웠다. 만호선생의 이름은 무 요 종 증조부로 성호선생은 학문의 깊이가 한세대에 보기 드믄 사람이라 하였다.

선생은 20세에 어린 시절의 저서를 태우고 국자상에 합격하였으나 스스로 과거를 포기하고 성인의 저서 다량을 여러 회 탐독하였는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를 탐구함이 혈전을 하는 것 같이하여 기필코 스스로 뜻을 알아내었다. 펴낸 것도 있으나 펴내지 않은 저서도 많으니 상사신편, 역통의, 계사통의, 설괘통의, 괘시도설, 역도외편, 시서집, 맹자, 소학, 차의가례, 시문 등을 합해 백여 권을 썼으며 중국을 통해 들어온 서양학문을 연구한 것을 고명한 분들도 모를 때 이를 왕왕 참고하였다. 그리고 이 서양학들이 사술임을 한탄하며 이것이 홍수나 맹수처럼 유입됨을 막아야한다고 쓴 것이 서학변이다.

또한 효심이 지극해 부친으로부터 훈계를 받으면 물러나 필히 기록하였으니 추정기문이다. 기미년 38세에 조모 이숙인이 살아계시고 부모가 계시며 두 동생이 사마시에 합격하고 세 누이가 무고하니 이것이 천하의 즐거움이라 하였다.

정해 년 봄에 사당에 장수 연을 올리고 이것이 한 즐거움이라 하였다. 윤씨 집안으로 시집간 누이가 남편이 죽으매 어린 딸 네 명을 키워 시집보내는 등 다른 가난한 누이나 병든 누이들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했다.

단경왕후의 손위, 익창군 신도공의 우해를 조야에 알리고 시호를 내려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당시 삼훈의 압제에 의해 중종이 부득이 왕후의 손위를 허락함과 치마바위의 사연 등을 상고하고 충암 김정과 눌재 박상이 죄가 없음을 상소한 것이 수백 년이 되었고 영조 조에도 유생 김태남이 상소하여 신비의 복위를 상소하니 임금이 본말을 상세히 알고자하고 옥당에 보관된 익창의 시장을 청하는 글을 보고 크게 슬프고 가엽게 여겨 특명을 내려 단경왕후를 복위하고 익창은 영의정으로 추증하고 시호를 신도로 하고 고금동충(古今同忠) 넉자를 친히 어필로 내렸다.

약산 오광운이 칭찬하여 말하기를 심기가 청명하고 의지가 굳으며 대의를 위함이나 충효가 모두 뛰어나다 하였다.

신사년 겨울 병이 들어 읽은 책들을 정리 보관하게하고 도처에서 구해본 경서가 수없이 많은데 이는 백 세대에 있을까 말까한 성인이라 죽고 나니 군자더라. 11월 24일 죽으니 이름은

후담이고 자는 이노, 호는 하빈, 둔와이다.

선조는 송나라 개봉 인이고 이름은 수(修)다. 고려 문종 때 해선으로 와서 거창에 적을 두었으며 벼슬은 수사도. 좌복야이고 시호는 공헌이다. 시조이후 후손이 번창하였으며 휘 인도는 한성부우윤 증 호조판서 12대조다. 양열공 이름은 이충. 양간공 이름 은 전. 장성공 이름은 승선. 삼세는 저명인 이다. 8세조 이름 수근 좌의정 익창 부원군은 중종장인이다. 고조고 이름 득의는 판관 증 참판이요 제창군이고, 증조부 이름 희 는 현령이며 조부 이름 휘오는 효심이 지극해 증 지평이 되었으나 자식이 없어 양간공 차자 판윤 이름 승복의 후손 구중을 입양하였다. 구중은 문과에 급제하여 용강현령을 하였고 증 예조참판이다. 호는 외와 이고 선생의 부친이다.

모친 증 정부인 우계이씨는 군수 정관의 딸이요 판서 송파 서우의 손녀다. 부인 동복 오씨는 상억의 딸이요 감사 증 영상 단의 고손이다.

아들은 성이고 손자 세사는 아들이 없어 재종동생 세덕의 아들 용구가 입양되어 후손으로 이어졌다.

경의선 이야기

이 기 상 (파주시 시정정보화 담당관)

경의선은 파주를 관통하는 철도로서 별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시절에 신설된 역 중심으로 도로와 상가가 생기면서 파주 지역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

최근 일제시대에 건립된 금촌역사가 전철복선화 공사를 하면서 역사를 고가철도로 이전하였다. 평상시 경의선의 파주 구간 역사자료를 정리하겠다고 미루다가 다른 역도 옛날 모습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카메라를 들고 나섰다.

경의선은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이 그 해 2월 21일 서울~의주(499.3km) 간 군용

철도 목적으로 군용철도감부에서 부설하였으며 나중에 한국주재 일본군사령관 예하에 전속시켰다.

1906년 4월 3일 용산~신의주간 철도가 완전 개통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 관리권이 군용철도에서 통감부철도관리국으로 이관되었다. 1908년 4월 1일무터는 부산~신의주 간 직통 급행열차인 융희호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중·일 전쟁을 계기로 복선화가 진행되었다.

그 당시 철도부설을 위해 일본은 농번기에 농민을 강제로 끌어가고 식량과 가축을 징발하여 농촌은 공동화되었으며 1906년 5월15일자 대한매일신보는 "철도 지나는 지역은 온전한 땅이 없고 기력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며 열집에 아홉집은 텅 비었고, 천리 길에 닭과 돼지가 멸종하였다"고 까지 개탄했다.

일본은 이런 침탈 이외도 당시 철도역 부지를 넓게 책정하여 그 일대의 조선 농민을 내 쫓은 후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넘기고 철도역 주변에 새로운 도로와 관공서를 세워 교통중심지로 만들어 일본인들을 돈방석에 앉게 하였다.

파주의 경의선은 부설 당시 일산 다음 역으로 금촌역과 문산역, 현재 휴전선 근처의 장단역이 있었으며 1956년5월11일 교하읍 야당리에 금촌역 관리의 운정역과 1967년 9월 1일에 월롱면 위전리에 문산역 관리의 파주역이 역무원 무배치 간이역으로 개설되었다.

남찬철도지도(1926년)

파주역 개설 당시 위치 선정에 따른 주내면(현재 파주읍)과 월롱면 주민과의 대립이 치열하였다. 그런 중에 1965년 월롱면 위전리 주민 윤태영씨는 철로에 발을 묶고 런닝셔츠를 흔들어 기관차를 세우려다 실패하여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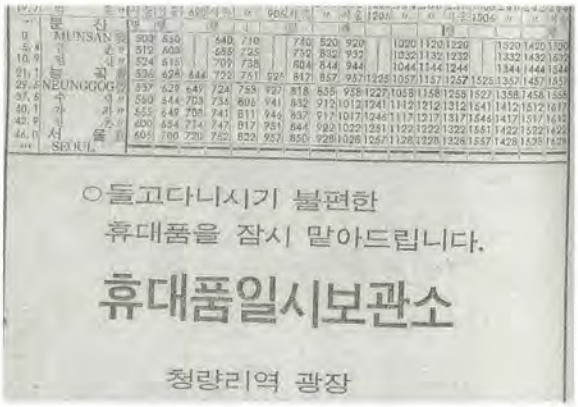
이렇게 양쪽 주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월롱면 위전리와 파주읍 봉암리 주민 모두가 이용하기 불편한 중간 지점에 역사를 개설하게 되었다.그 후 1998년에 파주시가 예산을 부담하여 기존의 파주역을 폐쇄하고 월롱면 위전리 면사무소 앞에 월롱역과 파주읍 봉암리에 파주역을 각각 신설하게되었다.

1936년도 서울(당시 경성)행 열차는 장단에서 20:29분, 문산 20:49분, 금촌:21:00에 각각 출발하여 서울역에 21:50분에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1977년에는 문산발 서울행은 새벽5시 열차를 첫 차로 05:50분, 06:40분, 07:10분, 08:20분에 서울로 출근하는 직장인과 학생을 위한 통근열차로 배차하였다. 그 시간 후에는 1시간 간격으로 배차하였으며 21:20

분이 마지막 기차였다.

1960년대에 경의선 기차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농촌에서는 직접 경작한 농산물을 개인이 운반할 수 있는 만큼 포장하여 아침 첫차를 타고 서울역과 용산 등에서 노점 판매하거나, 미군부대에서 불법으로 빼낸 미군물자 수송을 위해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불법으로 유출한 미군물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의자 아래나 선반에 감추는 등의 다양한 행태가 유행한 시절도 있었다.

1960년대말 당시 학생들의 기차요금은 일반 버스보다 저렴하여 당시 자장면이 1그릇에 30원일때 학생 요금은 한 달에 200원 정도였으며 서울을 통학하는 학생들은 새벽에 아침을 먹고 버스나 도보로 역까지 와서 기차를 이용하였다.



경의선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6월 12일 운행이 중단되어 문산역이 종착역이 되었으며 철도중단점이라는 간판이 민족 분단의 상징이 되었다. 그 후 철도 중단점을 임진각 관광지로 옮겨 관광객들이 기념촬영하는 필수 코스가 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진행되면서 1992년에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남북철도 연결을 명시하였다. 2000년 7월 1차 남북장관급 회담때에는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그해 9월에 임진각에서 경의선 복원 기공식이 열렸다. 그 후 2002년 9월 경의선 연결공사가 착수되고 2003년 6월 군사분계선 철로가 연결되었으나 핵문제 등 북미 관계 악화로 무산되었다.

남북은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2007년 5월 군사보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운행이 중단된 지 56년만에 열차를 시험운행 하였고 7개월 후 2007. 12. 11일에는 개성공단의 자재와 생산 물량의 수송을 위해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을 시작하므로서 경의선의 유럽 연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나서게 되었다.

경의선 전철복선화 사업(용산~문산)은 서울의 북서부 위성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복선 및 전철화 하는 사업으로 2009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철로 공사를 마치고 현재 역사와 전기 등의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07년말 성산~문산(39.6㎞) 구간을 우선 개통해 대곡역에서 서울지하철 3호선,

남북한철도연결구간 시험운행

성산역에서 6호선으로 환승시킬 계획이었으나 고양시 구간의 지하화 요구로 지연되다가 2005년 지상화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합의하고 다시 재착공에 들어 갔다.

전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급행열차가 운행되어 서울구간 4개역, 고양파주 구간에 4개역에서 정차하고 문산~용산 까지는 약40분이 소요되며 6~8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어서 역사 주변이 아파트단지 등으로 집중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 지역의 일산역을 지나 파주 지역에서 처음 정차하는 운정역(雲井驛)은 행정구역상 교하읍 야당3리로서 옛날 이 지역에 샘이 잘 나오는 우물 아홉 개가 있어 구우물이라고 불려왔었는데 구름우물로 잘 못 불려져 운정으로 역 명칭이 되었다고 하며 이 지역은 수렁 논과 우물이 많아 안개가 자욱하였다고 전해 온다.

현재 운정 역사는 한국전쟁 직후 건립되어 외관과 형태는 전형적인 옛날 역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증기 기관차 운행 시절 열차에 물을 공급하기위한 소규모 급수탑이 아직 남아 있다. 이 역사의 관리는 민간인에게 위탁되어 열차권 판매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지역 주변에는 상지석리와 와동리가 있고 고양시와 경계 부분에 위치하면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2003년부터 교하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입주하여 2013년 완공되면 8만세대 22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10년전 파주시 규모의 도시가 추가로 생기게 될 것이다.

운정역사 원경

운정역 개찰구

운정역에서 3.3km 북쪽으로 금릉역(金陵驛)이 있다. 금릉역이 위치한 곳은 금촌동 563-1번지로서 역의 명칭인 금릉동은 이 곳에서 1km 이상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자연부락명인 새꽃마을(신화동, 新花洞)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 역은 금촌택지지구 조성에 따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2004년 10월 임시승강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2007.10.1일부터 간이역으로 지정되어 한국철도유통 직원이 승차권 발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릉역과 금촌택지 새꽃 마을 (1단지)

구 철교와 보행자 도로(일명 칠간다리)

금촌역(金村驛)은 금릉역에서 1.5km 북쪽 금촌동 329번지에 위치하며 1906. 4. 6 개소하였다가 지난 2008. 4. 17일에 고가철도로 이전하여 현대식 전철 역사로 바뀌었다. 현재 기존 역사는 철거되고 역광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금촌이라는 지명은 지금의 역사 개울 건너 북쪽 방향의 마을로서 원래 '새말'이었으나 철도 부설 당시 일본인이 '쇠말'로 들어 금촌역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현재는 파주의 중심 지역으로 파주시청을 비롯한 중요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군부대 주둔으로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고양시까지 관할하는 파주세무서가 있었다.

금촌역 광장

금촌역 전철 승강장 ('09. 6월완공)

월롱역(月籠驛)은 금촌역에서 4.1km 북쪽 월롱면 위전리 355번지에 위치하며 1998.1.17 지금의 신역사로 개소하였다. 철도 역사 유치를 위해 1965. 8.10일 이 곳 주민 윤태영씨가 철로에서 사망한지 33년만에 월롱 역사가 신설된 곳이기도 하다.

역사 주차광장 앞에는 작품명 "대한민국"이라는 태극 모양의 조형물이 있다. 이 작품은 오석과 화강석으로 민족의 상징인 태극을 표현하여 한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월롱역은 통일로와 인접하고 인근에는 2006년 4월에 준공된 LG필립스(현재 LG디스플레이)

월롱역 전경

월롱역 컨테이너 하치장

공장이1,697.5천㎡ (약50만평) 면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에 협력단지가 조성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파주시에서는 금촌역과 월롱역 중간에 위치한 영태리 에드워드 미군부대 자리에 이대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이대역사를 신설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월롱의 지명은 지대가 높다는 뜻의 '다락'이 '다랑'-'다롱'-'월롱'으로 음이 변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월롱역에 위치한 위전리(蔿田里)는 마을 앞 문산천 주변에 갈대가 많이 있었는데 이 갈대를 베어 내고 마을을 만들었다하여 마을명칭이 되었다. 근처에 금강산랜드가 위치하여 사우나 및 골프 이용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파주역(坡州驛)은 월롱역에서 2.3km 북쪽인 파주읍 봉암리 516-3번지에 위치하며 역무원이 없는 간이역으로 이용 승객은 이지역의 봉암리 주민 보다는 2~3km 떨어진 파주읍사무소 소재지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경의선 전철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역사의 공사가 한창이며 이 역의 명칭도 봉암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파주역이 위치한 봉암1리는 '주라이' 또는 '주라위', '줄아위'라고도 불리는 마을로서 근처에

파주역 입구

파주역 신역사 공사 안내문

있는 줄바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마을 명칭이 '현암동', '줄바위'로 불리기도 하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봉현리와 현암리 이름을 따와서 봉암리(烽岩里)가 되었다.

문산역(汶山驛)은 파주역에서 4.5km 북쪽인 문산읍 문산리 17번지 위치하고 1906년부터 이용되던 역사는 2001년에 경의선 전철 복선화 사업에 맞추어 현대식 건물로 새로 지어졌다. 원래 문산역은 구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새 역사를 통일로 방향으로 조금 옮기면서 현재 역사 앞으로 시가지를 우회하는 4차선 도로가 신설되었다.

문산역 1층에는 다른 역에서 보기 힘든 TMO(Transportation movement office)라는 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이 TMO는 군병력 및 군수물자의 수송을 관리하는 곳으로 주로 휴가 장병이나 출장 군인에게 열차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문산역 전경

문산역 TMO

문산은 임진강과 연결되어 수운의 중심지로서 삼국시대에는 술이홀현과 서원군 원평도호부 청사가 선유리 문산동초등학교 자리에 있었으며 사목리 포구를 통하여 장단을 왕래 하였었다.

그 후 임진강의 강 흐름이 변동되자 지금의 문산읍 하동(문산역 쪽은 문산상동으로 불렸다)에 포구를 설치하여 풍덕, 김포, 강화, 고랑포, 연천, 송도와 한양 등의 지역을 황포 돛배로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문산이 발전되었고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파주군청이 소재했었다.

최근에는 월롱의 LCD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가 당동리에 64만1000㎡, 선유리에 131만2000㎡ 규모로 조성되고 대규모 아파트가 선유리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어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문산이라는 명칭은 조선 초기에 홍수가 나면 임진강으로 흙탕물이 내려가다 서해의 조수에 밀려 더러운 흙탕물이 이 곳에 산더미처럼 밀려왔다고 하여 문산(汶山)이라 하였으며 이지역을 문산개나 문산포라고도 불렸다. 이곳의 물맛은 서해 바닷물의 영향으로 짜고 맛이 없어 일제시대에는 물을 사서 먹을 정도였다고 한다.

문산역사 주차광장 맞은 편 소공원에는 작은 기념조각이 세워져 있다. 기념탑 하단에 '이

지역은 '99년, '96년 2차례에 걸쳐 침수되었던 곳입니다.'라고 음각되어 있으며 금속으로 조각된 상단의 초승달 모양은 수해와 연관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문산역 맞은 편 시가지는 철도부설 당시에 형성된 주택가 골목이 큰길에 이어져 있으며 아직 기와집으로 남아 있어 그 옛날의 번성하였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운천역(雲泉驛)은 2004. 10.31 문산역에서 북쪽으로 3,7km인 문산읍 운천리에 임시 승강장으로 신설되었으며 주변에 큰 마을이 없어 이용객은 많지 않다. 운천이라는 명칭은 산골짜기에 구름이 돌아가고 여러 곳에서 많은 샘이 솟아나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임진강(臨津江)역은 2001. 9.30 운천역에서 2.3km 떨어진 문산읍 마정리에 신설되었고 남한에서 민간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의선의 마지막 역이기도 하다.

이 역은 파주시가 운영하는 임진각 관광지와 인접하여 서울이나 일산에서 이 곳을 방문할 때 많이 이용하는 기차역이기도 하며 이 곳에서 민통선 안에 있는 도라산역을 왕복하는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임진강역 지붕 위로는 자유로 고가차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승강장은 현대적이고 쾌적하게 지어져 마지막 역에 대한 예우를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승강장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임진강 철교가 있으나 군초소가 있어 민간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임진강이라는 명칭은 고구려때 임진강 지역이 진임성현(津臨城縣) 또는 오아홀(烏阿忽)로 표기되어 있고 신라 경덕왕때 임진현으로 바뀌면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임진성이 있어 그 지명을 따서 임진강이라고 불린 것으로 생각되며, 백제시대 초기에는 임진강이 굽이가 많다고 하여 임진강 상류를 칠중하, 호로하로 삼국사기에 표기하고 있다.

임진강역 역사 옆에는 크기가 2미터나 되는 원형 화강석에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박봉우 시인의 '휴전선'이라는 작품이 세워져 있다. 이 시와 임진강에서 불어 오는 강바람으로 인하여

이 곳이 휴전선과 인접한 곳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 시는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향한 .....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라면서 분단의 현실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도라산(都羅山)역은 경의선의 최북단역으로 임진강역에서 3.8km 떨어진 민간인통제구역 장단면 노상리 555번지 위치하고 2002. 4.11일에 신설되었다. 2002. 2.20일에는 미국의 조지 W.부시 대통령이 방문하였고 서울에서 56km, 평양에서 205km 거리에 있으며 이 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임진강역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고 헌병의 검문을 받아야 기차를 탈 수 있다.

도라산역 관광은 승강장과 역사 주변으로 제한되고 역 방문 기념 스탬프도 비치되어 있으며 제3땅굴과,도라산전망대, 통일촌, 허준선생묘를 운행하는 연계관광 코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라산의 명칭은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고려의 송도를 찾아 항복하고 장단읍내 뒤 백학산 서맥령의 도라산(156m)에 암자를 짓고 머물면서 조석으로 신라의 도읍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불리워 졌다고 한다.

도라산역 1.6km 북쪽에 장단(長端)역이 있었으며 현재는 승강장에 설치된 경계석과 한국전쟁 당시 탈선된 장단증기 기관차가 50여년 동안 분단의 상징으로 있다가 2007년복원을 위해 문산읍 임진각 관광지에 옮겨 놓으면서 비워진 자리(37"54'15.59'N, 126"41 '33.68'E)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곳에 있던 장단 증기기관차는 1950년 12월 31일 개성을 출발, 서울로 달리던 중 공습으로 탈선하였고 객차 없이 길이 15m, 폭 3.5m, 높이 4m 크기인 화통만 남아 있었다. 도라산 OP를 찾는 방문객에게 분단의 상징으로 설명되었고 2004년 12월에 장단역사와 함께 근대문화재로 등록 되었다.

지금의 장단역사는 그 옛날 마을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름모를 잡초가 자라고 고라니가 때 없이 노닐고 있는 한적한 곳 이기도 하다. 7월의 태양이 뜨겁게 내려 쪼이는 이 곳을 보면 그 시절 기적소리가 때때로 들리는 착각이 든다.

철도가 처음 운행되던 시대에는 수송수단이 별로 없어 철도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부각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교가처럼 노선별로 철도가라는 것이 있었다. 작곡가와 시기는 미상이지만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경의선가 25절에 파주 구간은 6절과 7절에서 파평산과 문산포구, 화석정 등이 소개되고 있다. 내용중에 죽립석은 광탄면 용미리의 석불입상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하고 문산 포구에는 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6. 一山의 古陵을 멀리拜觀코
坡平山 竹立石 金村서 보아
순식간에 汶山驛 당도해보니
商船의 돛대가 浦口에 가득
7. 臨津江 鐵橋越便 花石亭 거쳐
長端驛 잠간 쉬어 開城이르니
市街의 번화함과 物貨의 繁昌
경성을 떠난후로 第一이로다

경의선과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1937년 5월 파주군 금촌역앞 난장'이라는 제목의 흑백사진을 발견하였다. 배경에 있는 뒷산이 많이 본 월롱산이고 논과 벌판 지나 가옥들은 새말이나 문산제일고 방향이라고 생각되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촌 시가지로 나갔으나 빌딩과 고층 아파트가 시야를 가려서 월롱산은 보이지 않았으며 고가철로에 입주한 금촌역에서도 시야가 제한되기는 마찬가지였다.

1937년 5월 파주군 금촌역앞 난장

문산제일고 앞에서 본 월롱산은 배경 능선은 맞는 것 같았지만 가옥들이 있는 마을 뒷산이 사진과 달라 찾는 것을 포기 하였다. 흑백사진 자료가 사실이라면 현재 지형이 많이 바뀌어서 찾지 못한것이거나 아니면 사진 설명이 잘못 되었을 것이다.

경의선은 근대 역사의 산물로서 한일합방과 해방, 6.25전쟁, 미군주둔과 철수, 남북철도 연결 등 민족의 흥망성쇠와 함께 하면서

파주에서는 더욱 친근한 존재이기도 하다. 문산과 금촌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나 경제면에서 앞 설 수 있었던 것은 경의선 덕분일 것이다.

지금 파주시는 교하신도시와 LCD관련 첨단산업단지가 문산,월롱 등에 조성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신흥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경의선이 복선화되어 내년도 6월부터 전철이 6~8분 간격으로 운행되면 서울을 오가는 시민과 관광객의 핵심적인 교통수단으로서 파주를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어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파주 경의선 이야기

들판과 강을 오고 간지
백년의 세월이 지난 경의선이지만

아직 조상의 피와 땀이 마르지 않은 철길로
시커먼 연기를 내며 달려가는 기차의 환영을 본다.

이제 환영을 떨치고 헤어져야 할 그대이지만
그대의 어깨에 기대어 신의주까지 달려 보고 싶다.

경의선역사 조감도

봉암역

월롱역 (완공)

문산역 (완공)

금촌역

금릉역

운정역

Photo 경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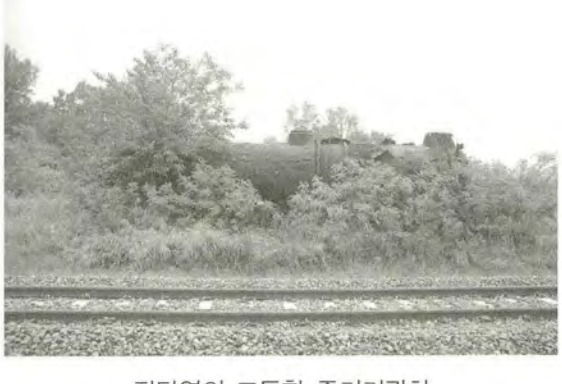
1980년대의 금촌역 앞

현재 금촌역 앞의 빌딩들

임진강역에서 본 북쪽 경의선

임진강역 대합실의 소망쪽지

장단증기기관차 화통의 임진각 이전



장단역의 고독한 증기기관차

〈斷想〉

반학영 지사(志士)여! 이제 편히 잠드소서...

이 윤 희 (파주문화원 이사)

무더위가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97년 가을날의 애기다. 지루했던 장마비가 걷히는 듯 하더니 막바지 열기가 대지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내가 반 지사에 대한 기록을 처음 접한 것은 지역의 한 어르신이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였다. 평소 향토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나에게 반 지사에 대한 기록은 사뭇 새롭게 다가왔다.

기록에 의하면 지사의 함자는 반학영(潘學榮), 고종(高宗)때 내시(內侍)로 승전색 벼슬을 지내셨다. 1905년 일제가 무력으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이에 항거하시어 벼슬을 사임하고 이 곳 파주 교하에 은거 하셨다 한다. 그러던 중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자 통분을 누르지 못하고 남몰래 순국할 뜻을 써서 품안에 간직하고 숙부를 찾아가 결별을 고한 후 돌아오는 길에 교하 삽다리 장터에서 품 안에 간직한 글을 펼쳐 놓고 할복 자결을 하셨다. 지사는 자결하시기 전 "내시와 외관이 천함과 귀함이 다르긴 하지만 나 역시 임금의 은혜를 받아 이미 수십 년을 살아 왔다. 그러나 지금 임금이 하정(下庭)하였으니 내 어찌 감히 따뜻한 방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외치셨다 한다.

항일운동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행적을 접해 보았지만 반 지사에 대한 기록을 접한 나는 평소와 다른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호기심의 발로는 다름 아닌 반 지사가 내시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 동안 알고 있는 상식으로 내시는 자식이 없고 주로 양자를 들인다는데 '이처럼 훌륭하신 분에 대한 숭모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었다.

우선 나는 가능한대로 반 지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수집해 보았다. 지사의 숭고한 죽음에 정부에서는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했으며 묘소는 지사께서 자결하신 교하 인근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소문을 해 지사의 무덤을 찾기까지 여러 날이 걸렸지만 꼭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지사의 무덤은 깊은 산 중도 아니요 결코 찾기 어려운 곳도 아니었다. 한적한 시골마을로 진입하는 좁은 산길을 따라 채 5분이나 걸었을까? 조그만 시골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마을 어귀의 첫 번째 집에 이르니 마당에서 노인 부부가 부추를 열심히 다듬어 묶음을 만들고 계셨다. 부추는 이 지역 특산물인데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장거리를 하시는 모양 이었다.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찾아 온 이유를 말하니 대뜸 "저기야 !"라고 손짓을 하신다. 우선 돌아 볼 새도 없이 제대로 찾았다는 생각에 반 지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여쭈어 보았다. 부추단을 엮던 노인은 손을 놓고 우선 한 숨을 길게 내쉬는 것이 무언가 심상치 않았다.

노인의 말에 의하면 반 지사가 나라에서 훈장을 받은 후 30년 전만 하더라도 지사의 양자인 모씨라는 사람이 묘소관리도 잘 하고 해서 학생들이며 여러 단체에서 묘소 방문을 심심치 않게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양자라는 이가 그 후 묘역 주변의 땅을 모두 팔아버리고 덩그러니 묘소만 남긴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얘기다. 그제서야 나는 문득 노인이 가리킨 묘소 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묘소는 보이질 않고 수풀로 뒤덮여 전혀 묘역의 형태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노인의 말이 이어졌다. "저렇게 된지가 벌써 20년이야." "처음엔 내가 풀도 깎고 했는데 이제는 엄두도 못내"

묘소 가까이로 올라가 보았다. 그러나 도저히 접근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덤불속으로 희미하게 묘비가 보일 뿐이었다.

이것이 내가 처음 반 지사에 대한 기록을 접하고 느꼈던 호기심이었을까? 나의 호기심이 적나라하게 들통 난 순간이었다. 양자도 자식인데 하물며 훌륭하신 분을 이렇게 모셨다니 정말 죄스럽고 안타까울 뿐이었다.

다시 내려와 노인에게 다가가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젊은이는 누군데 반 지사 묘를 찾아왔소?"하고 물으셨다. 자초지정을 말씀드리니 대견하시다는 뜻인지 아니면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 하셨는지 혀끝을 끌끌 차셨다.

그리고 이어 "그 놈이 나쁜 놈이지 아무리 양자라도 제 부모이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신 분을 저리 모실 순 없지!" 하시며 한탄을 하셨다.

되돌아오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무겁게 느껴졌다. 우리 고장은 유달리 묘역이 많아 수도 없이 묘역을 돌아다녀 보았다. 그런데 최근 먹고 살기가 나아져서 인지 묘역마다 후손들이 새로 해 놓는 비석이나 석물들이 항상 나의 눈을 거슬리게 하곤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은 그것이 오히려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20여년의 세월을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가시 덤불속에 묻혀 계신 반 지사야 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커다란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참 동안을 반 지사의 묘소에 대한 기억으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우선 양자라는 사람을 수소문해 연락을 취해 봤으나 연락이 되질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지역의 시민단체 모임에서 나는 그 사실을 얘기하고 반 지사 묘역에 대해 우리가 정기적으로 정비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나의 의견에 모두 찬성을 해주었고 결국 1차적으로 주변 잡

목제거와 제초작업을 하기로 하고 날짜를 정하였다. 마침 제초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 제초기 1대와 낫 그리고 북어포와 탁주1병을 들고 반지사의 묘소를 다시 찾은 것은 지리한 장마 끝이었다.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장마속에 몸을 낮추었던 갖가지 곤충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우선 도착해 묘소 아래 노인의 집에 들렀다. 왠지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였다. 노인은 얼른 나를 알아 보시고는 또 왠 일이냐며 놀라신다. 노인께 반 지사 묘역 벌초를 하러 왔다고 하니 "정말 고마운 젊은이들이군"하시며 격려를 해 주신다. 각자 면장갑을 끼고 낫을 들고 묘소로 올라 가려는데 뒤에서 지켜보던 노인이 "혹시 벌집이 있을지 모르니 조심들 해!" "지금 벌은 독해서 위험하니!" 하신다.

그 소리가 귓전에서 사라지고 제초기를 맨 친구가 선두에 서고 밀림 속을 들어가듯이 그 뒤를 이어 일렬로 쭉 따라 올라 갔다. 도무지 길이 없어 묘소 앞까지는 새로 길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선두에 섰던 제초기가 엔진을 돌리자 요란한 굉음이 울려 퍼졌고 이내 잡목들이 쓰러지며 길이 생겼다. 낫을 든 뒷 사람들도 주변의 잡풀을 대충 제거하며 잠시 후에 드러날 지사의 봉분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를 지났을까 제초기를 맨 선두의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모두들 화들짝 놀라 쳐다보니 "벌이야! 벌!"하며 짊어졌던 제초기도 집어 던진채 뛰어 내려오는 것이었다.

순간 이 공포는 적의 출현에 의한 공습경보 보다 더 험악했다. 모두들 몸의 방향은 아래로 향했고 저마다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불과 몇초 안에 벌어진 일이지만 그 중 세 명은 이미 치명타를 입은 후였다.

비명소리에 놀란 아랫집 노인이 그 광경을 보고 재빨리 액체 방충제를 가지고 나오셨고 내려오는 사람마다 몸에 마구 뿌려 댔지만 이미 머릿속과 옷 속을 파고든 벌들의 위력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머리를 털어내고 몸속을 뒤져 어느 정도 벌들을 퇴치한 후 안정을 찾았을 무렵 정말이지 혼이 나갔다가 되돌아 온 상황 같았다.

제초기를 맨 친구와 그 근처에 있던 친구는 얼굴과 몸에 수십 방의 벌침세례를 받았으나 다행히 뒤에 있던 사람들은 고작 한 두방의 벌침 맛을 보았을 뿐이었다. 선두에 섰던 친구의 말에 의하면 봉분을 찾아 봉분 정면에 제초기 날을 댔는데 그 곳에 커다란 벌집이 있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가장 독기가 올라있는 벌집을 통째로 건드린 것이었다. 아직도 벌들은 진정이 안됐는지 요란한 비행음을 내며 하늘을 날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벌침 세례에 대한 증상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장비를 추스르고 다음에 재도전 할 것을 결의하던 차에 노인이 말을 꺼내신다.

"그것 봐 그래서 내가 주의를 준건데. 가끔 그 쪽에 벌들이 몰려 다니길래 벌집이 있는 것 같아 얘기한건데, 이를 어쩌나, 좋은 일 하려다....." 하시며 안타까워 하신다.

"벌들은 첫서리가 내리면 맥을 못춰 그때 하는게 좋을 꺼야 "하신다.

노인께 그때 다시오겠다는 말과 인사를 하고 우리는 허탈함을 풀기위해 인근 저수지의 토종닭 전문 식당을 찾았다. 닭도리탕을 시키고 소주가 서너잔배 돌았을까 벌에 많이 쏘인 친구들 몸이 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다지 염려 할만한 사항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었다.

나는 죄인 아닌 죄인의 심정이었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 괜히 미안스러웠다. 게다가 나는 겨우 발등에 한 방의 벌침을 쏘인 것 외엔 멀쩡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모두들 웃음으로 즐거워했고 다음을 다같이 기약해 주니 더없이 고마웠다. 술들이 거나하게 취해서야 헤어졌다. 헤어지면서도 역시 인사말은 벌에 대한 이야기였다.

"벌침은 돈주고도 맞는다느니"

"자고 나봐야 증상을 알 수 있다느니"....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졌다.

출근을 하기위해 일어나보니 발등이 몹시 가려운 것이 아닌가. 아닌게 아니라 꿈속 같지만 어젯밤 잠속에서도 몇 차례 발등을 긁어 댄 기억이 나는 것 같았다. 바로 딱 한 방을 벌에 쏘인 발등이 심상치 않았다. 발등을 보니 이미 퉁퉁 부어 오른 것이 아닌가. 그래도 까짓것 대수려니 싶었다. 그리고는 문득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친구들은 어떨까 걱정이 되기 시작 하였다.

출근을 하자마자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보니 오히려 자고나니 멀쩡하게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다행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가. 한방의 벌을 쏘인 내 발등은 점점 부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괜한 겁이 나기 시작했다. 점심때가 지나자 부기는 더욱 심해져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하는 수 없이 인근 보건소를 찾았다. 의사가 증상을 살피더니 부종이 심하니 큰 병원으로 가란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다. 의사의 진단은 벌침이 깊게 들어가 혈액 속으로 침투했다는 것이다. 택시를 잡아타고 종합병원을 찾으니 의사가 흰 약을 바르고 부종을 빼야한다며 무릎아래까지 압박붕대를 감아 버리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하루가 지나자 붓기는 빠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벌에 대한 공포와 반 지사에 대한 생각이 가끔씩 교차하면서 "혹 반 지사의 영혼이 벌이 되어 나타났을 거라는 생각이 떠오르곤 하였다."

그 해 11월 중순이 되었을까 우리의 전사들이 다시 뭉쳤다. 그 새 조석으로 쌀쌀함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첫 서리가 내려 밭에 아직 남아 있는 농작물들은 비닐 옷을 덮고 있었다.

반 지사 묘역을 다시 찾았을 때 벌들의 비행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거졌던 수풀은 소금에 저려놓은 것처럼 쳐져 있었다. 안심은 됐으나 그래도 그 날의 공포가 다시 되살아났다. 다행히 벌들은 이미 맥을 못 추었고 드러낸 벌집은 축구공 크기보다 훨씬 큰 놈 이었다. 벌집 속에는 벌과 애벌레가 뒤섞여 꿈틀거렸지만 우리를 공격 할 기세는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아! 이럴 수가 있는가 !

반 지사 봉분 위 정수리에는 지름이 약 20cm가량 되는 상수리 나무가 자라 있었고 묘역에 덮여 있어야 할 잔디는 한뼘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봉분은 무너지고 양쪽에 있어야 할 망주석은 한쪽만이 남아 있을 뿐 이었다. 그나마 반 지사의 묘임을 알려주는 묘비가 쓰러지지 않은

채 꽂꽂이 서 있었다.

약 세 시간에 걸쳐 주변 제초작업을 끝내고 나니 이곳이 묘소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세상의 더러움이 흰눈 속에 덮여 있다가 눈이 모두 녹아 버렸을 때 모습의 허탈함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어쨌든 반 지사 묘역을 수호하기 위한 첫 시도였으니 다음의 정비는 훗날을 기약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날 밤은 왠지 모를 편안함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지사의 묘를 찾았으나 여전히 잡풀이 자라고 또다시 수풀에 가려져 가고 있었다.

마지못해 인근 보훈지청에 이러한 사실을 조목조목 적어 반 지사 묘역 정비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제출한 건의서 때문인지 몇차례 보훈지청 담당자가 전화를 해왔고 현지 수호가 어려우면 국립묘지로 이장하자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반 지사 문중 후손과의 협의를 통해 결국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한다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한편으로는 잘됐다 싶으면서도 왜 이리 가슴 한켠이 허전한지 그때의 느낌은 실로 무어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반 지사를 편히 모실 수 있는 일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숭모하지 못한 이유로 떠나보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해야 할 부끄러움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욱 아쉬운 것은 지사께서 떠나시는 날을 알고도 정작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장 날짜를 메모해 놓고 정확한 시간을 몰라 오전 10시쯤 묘소에 도착하니 봉분은 이미 파헤쳐지고 모든 작업이 끝난 상태 였다. 뒤늦게 도착한 것이다. 정말 쓸쓸하고 죄스럽기까지 했다. 결국 마지막 떠나시는 모습조차 뵙지를 못하다니. 다음날 후손되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전 국립묘지의 안장 시간 계획에 맞추기 위해 아침 일찍 이장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잘 마무리 했다며 그 동안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지사께서 이곳을 떠나신지 어느덧 10여년이 지났다. 이제 그 날의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늦게나마 편안히 잠드셨을 반 지사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에서 울컥함이 솟아오른다. 사는 것이 바쁘고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어렵기만 하다.

언제 한번 꼭 시간을 내어 편히 잠들어 계신 반 지사의 모습을 뵈러 갈 것을 다짐해 본다.

그리고 지사 옆에 앉아 짧지만 반 지사와의 소중한 인연과 그리고 벌에 얽힌 사연 등을 지사에게 말하려 한다. 이제 다시는 지사의 영혼이 벌이 되어 날아오르지 않길 빌어본다.

지사여! 이제 편히 잠드소서.

율곡이이 시묘살이 이야기

이 기 현 (교하향교 고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내려오면서, 조선조가 개국하자 주자학이 들어와 효를 바탕으로 공자의 인덕 교리를 따라 중앙에 성균관을 설치, 각 지방 고을마다 향교를 유치하여 사서삼경을 계도함으로 유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로서 위선사업을 충실히 하면 조상의 은덕을 받아 자손 번영과 출세는 물론 잘 살게 된다고 전해내려오고 있다. 조정에서는 충신, 효자, 효부, 열녀를 색출, 정려 포상을 주는 한편, 이를 더욱 권장하기 위하여 집앞에 홍살문을 세워 모범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모상을 당하였을 때 굴관제복 상장 막대기를 잡고 매일 조석으로 묘역을 정화하고, 슬피 통곡하며 참배하고 묘하 움막을 설치하여 3년간 오르내리며 산속에서 시묘살이를 하여왔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과연 참다운 이러한 효자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 고장에는 조선 조 세조이후 순조에 걸쳐 문헌상에 효자 46명이 기록되어 있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파산서원에 모셔진 청송 성수침과 절효 성수종 형제가 아버지인 사숙공 성세순이 대사헌을 지내다 중종 9년(1514) 돌아가시니 파주읍 향양리 산 10번지에 묘를 쓰고 묘하 움막을 설치하고 3년간에 걸쳐 조석으로 산소를 오르내리면서 슬피 울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 그 지역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크게 탄복을 하였다고 널리 전해지자 이를 조정에서 알게 되니 문장이 뛰어난 성수침에게 여러 벼슬을 내리었으나 이를 모두 사양하였다. 그리고 우계에 살면서 아들 성혼을 대학자로 양성한 후 돌아가니 좌의정으로 추증하고 문정의 시호를 내렸다. 동생 성수종 역시 여러 벼슬을 내렸으나 이를 마다하고 학문에만 전념하다 죽으니 직제학에 추종하였으며 절효로 시호를 내리었다. 이들은 문헌에 명시된 효자인 것이다.

율곡 이이는 6대조 이양이 덕수현에서 파주 파평면 율곡리로 이주하였으며 중종 31년(1536) 12월 26일 인시 강릉 북평촌 오죽헌 몽룡실에서 이원수(36세) 신사임당(33세) 사이에 3남으로

태어나 6세 당시 한양 수진방 집으로 올라와 고향집을 오르내리며 어머니 지도를 받아 유명한 화석정 8세시를 지었으며 13세에 진사시 장원을 하였다. 16세 당시 신사임당 어머니가 병으로 누은지 3일 만에 명종 6년(1551) 5월 17일 새벽 인시 갑자기 48세에 돌아가시었는데 수운판관 이원수 아버지를 따라 형님 선과 평안도 지방에서 세곡을 싣고 서강 나루 도착하자마자 이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한성 삼청동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 시체를 껴안고 종일 목메이도록 슬피 통곡하니 주위사람들이 같이 울어 온통 집안이 수라장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운산하 두문동 법원읍 동문리 산 5번지에 묘를 쓰자 율곡은 세약한 형들의 양해를 얻어 16세 나이로 상복을 입고 산소 아래 움막을 설치하고 시묘살이를 시작하였다. 이이는 조석으로 산소를 오르내리며 슬피 통곡하고 묘역을 정화하는 한편 깊은 산골짜기에서 홀로 산새들과 짐승을 벗삼아 친구들이 보내온 사서삼경, 천기대요을 연구하여 3년간에 걸쳐 통달하였다고 전해오고 있다. 19세에 시묘살이를 마치고 마음이 울적하여 금강산에 입산, 마하연에 이르러 의암이라는 법명으로 눈을 감고 정좌하여 모든 계율을 굳게 지키며 침식을 잊고 불도를 탐구하고 정진하였다.

이렇게 성도에 몰두하면서 봉래, 풍악, 개골 등 유명한 선방과 이름 높은 대사를 찾아다니며 문답식으로 불도의 진리를 알아보았으나 암굴속의 노승과 대담중 선학에 대한 답변은 "고기가 물속에서 뛰고 솔개가 하늘을 날음은 위아래가 마찬가지고 저런것 모두가 색도안이요 공도안이다"라고 하였다. 불교가 인간세상의 무상에 환멸을 느끼고 내세의 복락을 기원하며 속죄하는 수양으로 고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수업임을 알았으며 부모형제 처자를 버리는 윤리를 져버리고 혼자만이 살 수 없다는 취지에서 유학의 인생철학으로 돌아와 현실을 긍정하고 경국제민을 위한 학문의 길로 다시 매진하였다.

여러 유적지를 답사한 후 강릉 외가로 돌아와 자경문을 쓰고 귀가하여 21세에 한성시 장원을 하고 22세에 노경림의 딸 곡산 노씨와 결혼하였다. 23세에 경북 안동 도산에 가서 퇴계 이황을 만나고 돌아와 별시에 장원 천도책을 지었으며 26세 명종 6년 (1561년)5월 14일 아버지 이원수가 60세에 돌아가시니 자운산하 어머니와 합장, 형님들이 역시 세약하여 양해를 얻어 자진하여 시묘살이를 하는 동안 천지조화의 이치를 3년간에 걸쳐 통달하였다.

29세에 생원 진사로부터 여러 과시를 거쳐, 명경과 장원으로 9도 장원한 천재로서 처음으로 호조 좌랑 벼슬길에 나가 여러 벼슬을 거쳐 34세 교리로 승진 후 직제학 황해도 관찰사 대사헌, 대제학, 형조, 병조, 호조,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많은 수제자를 길러내고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선조 17년(1584) 1월 16일 대사동 집에서 49세 돌아가니 자운산에 안장하고 영의정에 증직하였으며 문성의 시호를 내렸다. 동방의 대학자이자 선견지명이 투철한 성현이며 어머니 아버지를 여의고 두 번이나 6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는 것은 고금에 없는 대 효자임을 말해준다 하겠다. 이렇게 부모의 은공과 사랑이 하늘과 땅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고 실천케 하기 위하여 율곡선생이 시묘살이하던 장소를 복원하여 널리 후세들에게 계도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율곡선생 시묘살이 생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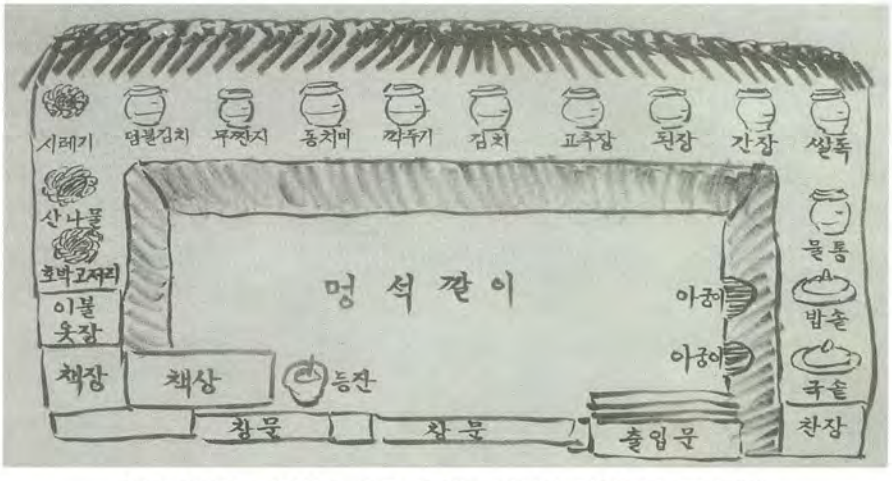
채전 경작 전경

제물진설 통곡과정

헛간 · 뒷간

땔나무 지게운반

움막 내부 시설 배치도 〈반 지하 움막〉



외부 지붕은 이엉으로 덮고 주위는 멍석과 이엉으로 둘러친다.

창녕성씨 회곡공파의 파주관련 일화

이 기 현 (파주향교 고문)

매죽헌 성삼문의 할아버지 회곡공 대제학 성석용(成石瑢)의 아들 양혜공(襄惠公) 성달생(成達生)은 우왕 2년(1376) 태어나 15세 때 생원급제와 음보로 낭장(郎將)등용 이어 호군 승진, 무과 복시 장원급제 후 태종 2년(1402) 4월 10일 대호군으로 특진 경성 병마절제사겸 판경성군사를 역임하였다. 전라도 관찰사겸 병마절제사, 강화도호부사, 경기황해충청 삼도수군절제사에 제수되고, 이어서 황해도 관찰사 함길도 절제사 겸 길주목사 등을 역임, 이어 세종 9년(1427) 공조판서로 승진하였다. 세종 10년(1428) 8월 22일 모친 광산 김씨(光山金氏) 별세로 동생 성궤와 같이 시묘살이를 하였다.

세종 13년(1431) 도총제(都總制)이어 12월 20일 함길도 절제사겸 병마절제사와 길주목사에 제수되었으며, 세종 16년(1434) 10월 30일 59세에 함길도 절제사에 다시 제수되어 육진을 개척하고 세종 17년(1435) 3월 8일 60세에 지중추원사에 승진하였다.

세종 21년(1439)5월 21일 64세에 훈련관 제조겸 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고, 이어 황해도 순찰사 세종 22년(1440) 12월 3일(65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로 승진, 문무를 겸한 장군이다. 세종 26년(1444) 2월 10일 세종대왕이 청주 초수정(淸州椒水井)행차시 어가를 호종한 후 갑자기 병이 생겨 세종 26년(1444) 4월 10일 69세로 갑자년(甲子年)에 별세하니 부인 묘 앞에 상하장으로 예장하고 묘비를 세웠다.

당시 아들 성승(成勝)은 50세이고 성증(成勝)은 47세이며 손자 성삼문(成三問)은 26세, 성삼석(成三錫)은 20세였다. 세종대왕은 조문하고 애도, 부의를 베풀어 양혜공(襄惠公)이라 시호(諡號)를 하사하는 한편, 사제문(賜祭文)을 내렸다.

그 후, 수양대군은 한명혜, 권탐, 홍윤성 등 100여명이 단종 1년(1453) 계유정난을 일으켜 단종복위 운동을 하던 6절신(황보인, 김종서, 정본, 김문기, 민신, 조극관)과 성삼문의 아버지 도

총제 성승을 10월 15일 새벽, 가족들과 함께 사살케 하였다. 이에 따라 성승은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처갓집 마을에서 요양하다 사망하니 그 곳에 안장되었다. 병자년 세조 1년(1456)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어, 암살된 후 사육신과 생육신 등 수많은 충신과 가족, 수 백 명이 주살되거나 공신 집에 끌려가 노비로 전락하는 등 수난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창녕 성씨 대제학 회곡공(成石瑢)의 자손 성승, 성삼문, 성담수로 인하여 10여명의 가족들이 희생되는 동안 성석용과 성달생 묘도 평토화 되었고, 나머지 자손들도 풍비박산되어 타지방으로 탈출하여 은신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후 수백년이 흘러 일제의 세부측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자 파평산 주위 창녕 성씨 회곡공(成石瑢)의 사패지는 현재 파평산 서맥 일부 13만4천여 평이 덕수 이씨 충당공파 종중 명의로 되고 수만 평이 강릉 김씨 부사공파 종중 명의로 되었다. 회곡공(檜谷公) 묘소는 실전되어 백방으로 자손들이 답사하고 있으나, 찾을 길이 막연하여 안타까운 실정이다.

양혜공 성달생成達成의 비석 또한 묻혀 있는 것을 16세기 중반, 후손 성시민(成 時敏) 등이 찾아내어 묘역을 수축하였다.

성달생의 묘

최근에는 2007년 10월 3일 파평면 두포리 335-2번지 재실과 담장을 신축하고 경내에 문숙공(성석용) 양혜공(성달생) 수헌공(성궤) 신도비를 건립하여 제막식을 올리면서 고유하였다.

성달생과 관련하여 파평산 자락, 성가터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오고 있다.

1434년(세종 16년) 부인 풍양 조씨가 59세에 사망하자 파주 천현면 금곡리 산 37-4 파평산 남록관모봉 아래 묘를 쓰고 재실과 마굿간을 설치하는 한편 산소 수호와 시묘살이를 하게하

였으며 손자인 성삼문도 이곳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하인과 시종을 두어 한양청진동 집을 오르내리면서 살게 하였다는 이야기다.

또한 세종 17년(1435)부터 단종 1년(1453)까지 18년간에 걸쳐 양혜공 묘 아래에 있던 재실터를 성부터(成富趾) 또는 성가터(成家趾)로 동네 주민들이 오늘날까지 불러 오고 있으며, 성삼문이 할아버지 묘소 산 너머 산골짜기에는 공부하던 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암자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에서 성삼문이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먹을 많이 갈아 글씨를 썼는지 시냇물 흐르는 가운데 검정물이 섞어 내려와 묵개울이라 하였으며, 아래 동네이름을 계묵이(溪墨洞)라고 오늘날까지 불리워지고 있다.

이와 같이 창녕 성씨 회곡공파는 성삼문과 관련하여, 파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다시 한번 역사 속의 사실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성삼문 공부하던 자리

파주팔경坡州八景과 파주십경坡州十景의 유래

우 관 제 (파주문화원 부원장)

1. 머리말

팔경八景과 십경十景 그리고 구곡九曲은 동양의 3대 산수문화이다. 산수가 수려한 곳이면 팔경八景, 십경十景, 구곡九曲이라 불리는 곳이 많다. 예를 들면 단양팔경, 관동팔경, 구곡으로는 화양구곡이 유명하다. 파주 팔경八景과 파주 십경十景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유래를 알아본다.

2. 팔경八景과 십경十景의 유래

① 경景을 팔경八景으로 한정한 철학적 배경

경치가 유명한 곳 팔경八景은 왜 여덟 개의 경景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십경十景은 왜 열 개의 경景으로 한정했는가 해명해본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주역의 팔괘八卦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형태로 확인을 해야 하지만 확인하기가 용이치 않아 주역周易을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해 본다.

팔괘八卦는 태극太極에서 그림과 같이 갈라선다.

태극太極 ———	양陽 ———	노양老陽 ———	건乾	노부老父
			태兌	소녀小女
		소음少陰 ———	리離	중녀中女
			진震	장남長男
	음陰 ———	소양少陽 ———	손巽	장녀長女
			감坎	중남中男
		노음老陰 ———	간艮	소남小男
			곤坤	노모老母

태극太極은 중심中心을 말하는 것이다. 태극에서 음양陰陽이 갈라지고 음양이 겹쳐서 사상四象이 되고 사상이 겹쳐서 팔괘가 된다. 팔방八方, 팔괘八卦, 가족家族, 팔방위八方位로 표시되며 길흉吉凶을 정하고 길흉은 대업大業을 낳는다.

역易의 성립은 태극에서 시작되며 양의陽儀는 음양의 변화요, 근원根源은 음양이다. 또는 하늘과 땅을 가르킨다.

팔괘는 우주의 현상과 자연의 이치를 다 나타내는 기본적 원리를 담은 숫자인 팔八을 자연에 적용하여 경景을 설정해 팔경八景으로 한 것이다.

또한 천간天干은 음양陰陽오행의 관계에서 그 이치를 나타나는 원리를 담은 숫자인 십十을 자연에 적용하여 경景을 설정해 십경十景으로 한 것으로 본다.

지지地支는 상생 원리를 이용했으며 십이지十二支의 숫자를 담은 것으로 본다.

천간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지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地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② 파주팔경坡州八景과 파주십경坡州十景의 유래

· 파주팔경坡州八景

1. 交河落照 → 교하의 저녁노을
2. 臨津漁火 → 임진의 고기굽는 모습
3. 紺岳晴雲 → 감악의 개인 구름
4. 高靈暮鐘 → 고령의 저녁종소리

5. 廣灘石佛(광탄석불) → 광탄의 석불

6. 紫雲松月(자운송월) → 자운의 달 비추는 소나무

7. 栗里花石(율리화석) → 율곡리의 화석정

8. 文山伴鷗(문산반구) → 문산의 짝잃은 갈매기

· 임진팔경臨津八景

1. 화석정
2. 장암의 낚시
3. 송암의 맑은구름
4. 장포의 가랑비
5. 동파의 달 구경
6. 적벽의 뱃 노래
7. 동원의 적설
8. 진두사의 새벽종

· 파주의 십경十景

1. 鳳城絛霞(봉성조하) → 봉서산의 아침안개
2. 廣灘霽月(광탄제월) → 넓은 여울의 맑은 달
3. 花石의 賞春(화석상춘) → 화석정의 봄경치
4. 長浦細雨(장포세우) → 장포나루의 가랑비
5. 炭浦歸帆(탄포귀범) → 탄포나루의 돛단배
6. 月籠落照(월롱낙조) → 월롱산의 저녁노을
7. 溷拖夕鐘(미타석종) → 파평산 미타사의 저녁 종소리
8. 伴鷗漁歌(반구어가) → 반구정의 고기잡는 노래
9. 深岳翠松(심악취송) → 심악산의 푸른 솔
10, 紺岳晩風(감악만풍) → 감악산의 고운 단풍

· 파주읍십경坡州邑十景

1. 鳳城朝霞(봉성 조하) → 봉서산의 아침안개
2. 五峯驟雨(오봉 취우) → 오봉산의 소나기(오봉산은 파주읍성의 안산)
3. 龜巖殘雪(구암 잔설) → 거북뫼의 남은 눈
4. 鶯山落照(앵산 낙조) → 앵산의 저녁노을(향양리 앵모산)
5. 豊川漂母(풍천 표모) → 연풍천의 빨래하는 여인
6. 鶴山明月(학산 명월) → 명학산에 뜬 달
7. 午山暮煙(오산 모연) → 마산의 저녁 연기(오산은 마산 의 별칭)
8. 官通楡林(관통 유림) → 국도와 오리나무길
9. 龍池漁火(용지 어화) → 용지내의 고기잡는 불
10. 棗坪牧笛(조평 목적) → 대추벌의 목동피리

임진강변 내소정來蘇亭 팔경시八景詩의 유래

이 시는 내소정(제창군과 신승선 건립)에서 호곡 남용익(南龍翼, 숙종 때 명시인)이 작시한 것으로 남용일은 대제학을 겸한 이조판서를 역임했으며 인현왕후 폐출당시 이를 반대하다가 명천으로 유배되어 죽었다. 시호는 문헌공이다.

(1) 화석정춘(花石亭春)

화석정전화사신(花石亭前 花事新) 화석정 앞뜰에는 꽃이 피어 새로운데
독래음상유한인(獨來吟賞 有閒人) 쓸쓸한 나그네 홀로 와서 시를 읊으니
유방거세무상식(幽芳擧世 無相識) 온 세상 그윽한 높은 향기 서로 알지 못했으며
가석선생거후춘(可惜先生 去後春) 애석하다 선생님 가신 뒤에 새로 알았네

(2) 장암수균(場岩垂鈞)

수균춘만백척대(垂鈞春灣 百尺臺) 봄날 강어귀 높은데에 낚시줄 드려놓고
득어장욕고심배(得魚將慾 沽深盃) 고기를 잡으면 이에 큰 술잔 사려고 하였는데
방인불해오심사(傍人不解 吾心事)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심사 알지도 못하고
만도동강물색래(漫道桐江 物色來) 거짓말로 동강에서 색다른 물건이 온다하네

(3) 송암청운(松巖淸雲)

하처염운점점부(何處炎雲 點點浮) 여기저기 뭉게구름 점점이 떠있는 데
원산여화흡영두(遠山如畵 恰盈頭) 먼산은 그림같이 아름답게 솟구쳐있네
횡차망안지다의(橫遮望眼 知多意) 곁눈으로 바라보니 사연도 많이 있는것 같은데
원야소인조고수(怨惹騷人 弔古愁) 근심많은 사람 옛수심 지어 즉지 않을까 의심나네

(4) 장포세우(長蒲細雨)

장포세우청비비(長浦細雨 晴霏霏) 장포뜰에 가랑비 개었다가 눈이 펄펄 날리고
백로횡분초색비(白露橫分 草色飛) 백로들은 가로질러 벌판 위로 날아가네
어자불수풍랑기(漁子不愁 風浪起) 어부는 풍랑이 일어나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의선요환록사의(倚船遙喚 綠蓑衣) 뱃전에서 우장옷을 내오라고 소리를 치네

(5) 동파고역월당루(東坡古驛 月堂樓)

동파고역월당루(東坡古驛 月堂樓) 동파옛역 마루에 달이 비쳐 명랑한데
처처인가간상구(處處人家 看上鉤) 이곳 저곳 인가에는 발을 걷어 올리누나
일점규성간불원(一點圭星 看不遠) 하나의 큰별만이 멀지않게 보이는데
영소응인광한유(令宵應人 廣漢遊) 오늘밤 맞이하여 광한(광한루)놀이 하여보세

(6) 적벽선유(赤壁船遊)

적벽기두경부주(赤壁磯頭 更浮舟) 적벽이 둘러쌓인 강에 다시 배를 띄우니
소산거후상풍유(蘇山去後 尙風遊) 소동파가 간 뒤에도 풍류는 여전하네
파잔월백개양야(波殘月白 皆良夜) 파도는 잔잔하고 명랑한 달밤 모두 좋으니
불필황강임술추(不必黃岡 壬戌秋) 황강땅 임술지추만은 필요로 하지 않으리라

(7) 동원설(桐園雪)

동원모설백애애(桐園暮設 白皚皚) 동원에 날이 저물어 흰눈은 환히 비치는데
망이평파제색개(望裏平坡 齊色開) 편편한 언덕 위를 바라보니 구름없이 개었구나
입야강비종불엄(入夜江扉 終不掩) 밤이 되도 강가에 있는 집 싸리문이 열렸으니
섬계의유자유래(剡溪疑有 子猶來) 아마도 섬계땅의 왕자(子猶)오기를 바람이니라

(8) 진사효종(津寺曉鍾)

진두사격백설층(津頭寺隔 白雪層) 나루 위에 높은 절은 백운의 층계로서 가렸으며
반야도종유노증(半夜鳴鐘 有老增) 한밤중에 종이 울리니 노승이 있는 것이리라
불시고소성외박(不是姑蘇 城外泊) 이 고소성 밖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련만

한천낙천우어등(寒天落天 又漁燈)　찬하늘에 달이 지니 또한 어등이 비치누나
*이 시는 당나라의 장계(張繼)의 풍고야박시(楓鼓夜泊詩)를 비유한 것임

③ 팔경八景과 십경十景의 설정 원칙

산수가 좋은 곳은 구곡九曲이나 팔경八景이 설정 되어있는 곳이 많다. 동일인이 설정하기도 하고 지역마다 팔경을 설정하기도 하고 구곡을 설정하기도 한다. 구곡을 비슷하게 설정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한다. 팔경이나 십경十景은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서 보이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보이지 않는 지역까지 광범위 하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여덟 개의 경景이 면面을 이루고 있어 면의 중심이 산수문화다.

팔경은 구체적인 명칭은 있으나 그 위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대체적으로 지명 자연물 그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거기에서 행하는 인위적 행위에 대하여 8개의 명칭을 설정한다. 둘째,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보고 설정한다. 셋째, 선인들과 대학자는 친구들과 팔경시를 함께 지었다.

3. 나가는말

이상 파주팔경坡州八景, 임진팔경臨津八景, 파주십경坡州十景, 내소정의 팔경시來蘇亭 八景詩, 파주읍십경坡州邑十景을 적어보았다. 팔괘八卦, 팔선八選, 팔절八節, 팔경八景 등 여덟의 숫자를 기본으로 하는 시詩와 천간天干은 십선十選, 십절十節, 십경十景, 등 열의 숫자를 기본을 삼고, 또한 곡曲은 구곡九曲으로 아홉의 숫자를 기본으로 삼고 시詩를 지었다고 본다.

위의 팔경과 십경, 구곡 등의 시들은 지은이를 알 수 없고, 내소정의 팔경시來蘇亭 八景詩만 지은이를 알 수 있다. 파주는 성현들이 많은 고장으로서 대학자와 문인이 많이 배출된 곳이기에 파주의 절경과 관련하여 걸작시가 매우 많으리라 생각된다. 다음 기회에 파주 명인名人들의 시를 추려 적기로 하고 이만 나간다.

향 토 의 맥

< 제 언 >

임진강에서 전쟁용사를 위한 추모행사를....

신 우 석 (파주문화원 감사)

임진강..... 역사 속에서 누누이 흐르는 임진강은 파주 시민의 젓줄이다. 파주의 역사 속에서 고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투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임진강에는 전투에 희생된 엄청난 수의 병사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 우리 후손들을 망연히 내려다 보고 있지 않는가? 그 어느 때는 느닷없이 그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듯 환청이 들리는 듯 하다.

파주 임진벌에는 매년 수많은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각종 행사는 늘 요란스럽게 치르고 있지만 막상 임진강 흐르는 물과 그 주위 숲 속에 묻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행사는 없는 것 같다. 동족상잔의 6.25전쟁 와중에 피난민과 더불어 적군과 아군이 싸우다 무참히도 수장되어 있는 임진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여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영혼들을 위로할까를 생각해보았는데, 우선은 파주시에 있는 각 종교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방법을 찾아보고, 의견이 근접하면 영혼달래기 합동 기도회나 법회, 예배 등의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종교단체장들을 모시고 취지에 대하여 논의하다 보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6.25전쟁 기념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행사는 여러 종교를 가진 파주 시민이 한 장소에서 마음을 모으는 화합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행사가 될 것이다. 단, 이 행사는 문화적인 면에서 참여와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유감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 행사가 오랜 기간 전통으로 지속되어 대대손손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져서 콰이강 행사와 같은 세계적 문화행사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워 행사에 임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 유엔군들도 다시한번 한국의 임진강을 기억하고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니 그들의 참석 하에 행사를 한다면 그 얼마나 뜻이 있고 관광수입도 있을까 생각해본다.

신들의 정원, 앙코르와트

강 근 숙(문화관광해설사)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천공항, 저녁8시20분 출발 예정인 비행기는 10시가 넘도록 뜰 줄을 모른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160석 정도의 캄보디아 비행기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거린다. 우리 일행은 날이 갈수록 부식되고 훼손되어가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캄보디아 유적을 보러 나선 길이다.

점심때 밥 한 술 뜨고 나왔는데, 그 시간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비행기 안에 갇혀 있으려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다. 폭우가 그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술렁이는데, 한쪽에서는 밥부터 달라고 야단들이다. 승무원은 자기네 잘못인양 번갈아 사과를 하고 곧이어 식사를 내왔다. 서 있는 비행기 안에서 기내식을 먹고 나니, 사람도 바람도 잠잠해졌다. 10시 40분에 비행기는 이륙을 서둘렀다.

비행기의 좌석은 버스보다 비좁다. 막내 올케는 창가에 앉았고 나는 그 뒷자리인데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왔다. 이번 여행은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기도 하거니와 올케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 더 의미가 있었다. 비행기가 밤하늘을 날기 시작한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별빛을 보며 모든 것이 감사했다. 모처럼 여행이라고 여비를 보태주는 친구도 고맙고, 딸아이 혼사 준비로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잘 다녀오라며 용돈을 챙겨주는 미순이도 고맙다. 이렇게 막내올케와 미지의 세계로 훨훨 날아가고 있으려니, 병치레 잦은 오빠 곁에서 여행 한 번 못 가는 큰 올케에게 미안하다. 언젠가는 올케언니와 함께 멋진 여행을 해야지 생각하며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졸다 자다 깨어보니,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있었다. 5시간 이상 걸려 도착한 캄보디아 씨엠립 공항, 후덥지근한 기온이 온몸을 휩싼다. 넓은 마당을 지나 공항대합실로 가는 길에는 열대식물들이 건물보다 더 높이 서 있었다. 시골 버스 터미널 같은 실내로 들어가니, 희미한 불빛아래 검은 얼굴의 공항직원들은 손님도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다. 이곳은 우리와 2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다. 새벽까지 잠을 못자서일까. 옷차림도 단정치 못하고 의자 뒤에 매 놓은 망사그네에 다리를 뻗고 자는 사람도 있었다. 현지 입국 비자를 내는 절차는 꽤 까다로웠다. 여행사 사장은 잠도 못자고 비행기에서 일행 모두의 것을 작성했는데, 양식이 틀렸다고 다시 쓰라고 한다.

현지시간으로 4시쯤, 가이드와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짐을 찾아가지고 호텔로 가서 두 사람씩 방을 배정 받았다. 호텔은 2층으로

천장은 높았고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많이 있었다. 막내올케와 2층 방으로 가서 문을 여는 순간 도마뱀이 쏜살같이 달아난다. 침대 두 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방에는 2인용 응접세트와 텔레비전, 작은 냉장고가 있고 화장대위에는 거북여행사 사장이 보낸 과일바구니가 우릴 반긴다. 에어콘을 틀고 커텐을 열어젖히니 바로 아래 작은 수영장이 보인다. 짐을 풀어놓고 별 넷짜리 호텔에서 낯선 밤을 묵는다.

두어 시간이나 잤을까. 7시에 모닝콜이 울린다. 잠이 부족했지만 준비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침식사는 뷔페식이다. 여행객을 배려함인지 나물에 밥, 국이며 계란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얼른 손이 가지 않는다. 안남미로 지은 밥은 끈기가 없어 흰죽과 김치를 가져왔는데, 김치가 버터에 버무린 것처럼 느끼하고 밍밍하다. 과일은 짐짐하고 커피는 왜 그리 쓰기만한지. 벌써부터 맛깔스런 김치 한쪽이 그립다.

식사를 하고 앙코르와트를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여행사에서 선물로 스카프와 물통 주머니를 나누어 주었다. 이곳에선 모자와 물병은 필수다. 유적지를 관람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찍고 패스를 만들어 목에 걸었다. 이것은 관람할 때마다 보여줘야 하는데, 잃어버리면 40달러를 주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잘 간수하라고 당부를 한다.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앙코르와트

차에서 내리니 바로 앞에는 인공호수가 있고, 호수 위에는 돌로 축조한 긴 다리가 보도로 이어졌다. 입구부터 사원 본당까지 탑으로 둘러싼 회랑(回廊)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다섯 개의 탑은 사원이라기보다 성(城)을 연상케 한

다. 중앙 탑문까지는 폭12m, 두께5m로 사암(砂巖)으로 만든 다리가 무려 250m나 뻗어 있는데, 이 다리는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구분 짓는 통로 역할을 한다.

앙코르와트는 프랑스의 동물학자 앙리무어에 의해 알려졌다. 앙리무어는 탐험 중 혹독한 열병을 이기지 못하고 1861년 10월 29일 마지막 일기를 썼다. 같이 간 동료 프라이는 그를 적당한 장소에 묻어주고 그가 기록한 탐험일지를 가지고 왔다. 그것은 후대에 소중한 자료가 되었고, 전 세계에 여행가나 탐험가들이 이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크메르문명을 찾아갔다. 앙코르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원으로 관광객이 몰려드는 유명한 곳이 되었다. 초기에 이곳을 다녀간 프랑스인

들이 앙코르와트에 반해 그 감동을 표현하며 '앙코르! 앙코르!'를 연발하여 그 뜻이 노래나 연주에 감동을 받았을 때 재청하는 '다시 한 번'의 뜻으로 변하였다고 하는 말이 있다. 12세기 자신의 삼촌을 죽이고 왕이 된 수리야 바르만 2세가 즉위 초부터 지은 것으로 그 앞에 서면, 규모와 섬세함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앙코르와트의 거대함에 압도당한다.

천여 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건축을 했을까. 50km나 떨어진 곳에서 돌을 옮겨다 매일25000~3000명의 인원이 꼬박 37년이란 긴 세월을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니,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을까. 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서쪽으로 나 있다. 사원 대부분이 생명과 창조를 뜻하는 동쪽을 향하고 있으나 앙코르 와트만은 예외로 죽음을 뜻하는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힌두교 장례 절차의 의례와 연관된 것이기도 하고 왕의 사후세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사원을 디자인한 사람은 비스바카르만이며, 왕인 스리야 바르만 2세가 죽은 후에 완성 되었다.

돌길을 따라 1층 회랑에 들어서면, 먼저 보이는 것은 벽면에 빼곡한 조각들이다. 이곳 회랑에 새겨진 모든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이야기와 힌두교 신화인 '라마야나' 그리고 힌두교 창세신화인 '우유의 바다 휘젓기' 전설을 담고 있다. 염라대왕이 인간을 심판하는 장면과 37개의 천국과 32개의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제 2 회랑에 들어서면 압사라 부조(浮彫)들로 가득하다. 아름다운 옷과 온갖 보석을 장식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춤을 추는 천상의 유희들, 왕은 내세에도 혼자가 아니다. 유희들이 시중을 들며 신을 즐겁게 해주려 춤을 추고 있다. 참배 길에는 황토색 천을 걸친 승려들이 한가로이 거닐고, 목 잘린 불상 앞에는 향이 무더기로 타고 있다.

힌두교 사원이었다가 나중에는 불교 사원으로 바뀐 앙코르와트, 자세한 건설 내막과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기둥의 숫자나 창문의 수, 그리고 조각 배치 등 모든 것이 천문학적이며 뜻 깊은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한다. 승려와 압사라가 밟고 다녔을 돌 위에 서서, 당대 인간이 꿈꾸던 우주관을 느껴보고 오래된 역사책을 읽는다.

위를 향해보면,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폭이 좁고 가파른 계단이 보이는데, 이것이 제 3 회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다. 신의 세계인 제 3 회랑, 이곳을 오르려면 몸을 숙이고 계단을 기어가듯 손을 짚으며 올라가야 한다. 신전을 오르는 계단이 이렇듯 가파른 이유는, 이곳이 신의 세계라는 것을 인간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듯하다. 당시에도 이 계단을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은 왕과 몇몇 승려뿐 이었다고 한다.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계단에서 추락사고가 잦아 난간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일본 기술자에

맡겨져 보수공사가 한창인 신의 계단을 아쉽게도 올려다보기만 하였다.

거대한 벽면을 역사적 사건들로 가득 메운 부조를 감상하며 걷다가 일행과 멀어졌다. 덜컥 겁이 나서 발길을 옮기는데,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갓 난 아기를 안고 애처롭게 처다본다. 맨발에 다 떨어진 옷을 걸친 아이는 허기져 있고, 저만치 떨어져 아이들을 지켜보는 어미는 더 지쳐 보였다. 그러나 내겐 돈이 없었다. 막내 올케가"형님은 맘이 약해서 안돼요"하며 지갑을 빼앗아갔다.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볼 때마다 지갑을 열었을지도 모른다.

정치적 혼돈과 끝없는 가난을 겪어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로 1186년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었다가, 1940년 일본에 점령 되었다. 일본 패전 후, 프랑스연합내의 한 왕국으로 독립 하였으며 1953년 완전 독립을 이루었다. 24년 동안 6번이나 국기가 바뀌었지만, 그 중심에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앙코르문명이 있었다. 인간이 빚어낸 최고의 산물이라는 앙코르와트, 캄보디아 국기에는 앙코르와트가 새겨져 있다. 그 많은 관광객이 내는 관람료의 75%가 베트남으로 가고 25%는 군사경비로 쓰고 있어, 돈벌이가 없는 이들은 생계를 위해 어린자식을 관광지로 내몰아 앵벌이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원 동문 정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팜나무가 늘어선 길을 가다가, 가이드가 나무에 얽힌 얘기를 한다. 30여 년 전, 폴포트에 의해

200여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할 때 총알도 아깝다고 팜 나무로 목을 그어 죽였다고 한다. 나무줄기를 만져보니 톱날처럼 날카롭다. 섬뜩하다.

점심은, 한국인이 10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는 식당으로 갔다. 손님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이곳에 온지 하루밖에 안됐는데 김치와 된장찌개가 차려진 밥상이 너무 반갑다.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바빠서인가 고국에서 온 손님에게 인사 한마디 없다. 밥을 먹고 나와 주위를 둘러보니, 맞은편에 간판도 없고 문도 없는 이발소가 있었다. 흙바닥에 낡은 의자가 놓여있고 벽에는 젊은 남녀의 사진들이 붙어있다. 거기서 머리를 깎는 사내아이가 꼭, 그 옛날 어머니가 보자기를 두르고 머리를 깎아주던 동생 모습 같았다.

여성의 성(城)이라 불리는 반데스레이 사원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조각 하나하나가 예술이다. 훼손된 곳이 많아 지금 한창 보수공사중인 이 사원은 인도에서 붉은 사암을 가져다 순전히 승려의 힘으로 지었다는데, 사원 전체가 한 송이 붉은 꽃 같았다.

입구 양쪽에는 남신상과 여신상이 있고,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링가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요니가 곳곳에 있었다. 이것은 다산(多産)과 풍요(豊饒)를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 화려한 나뭇잎 장식과 장미꽃 장식으로 덮여 있는 기둥과 벽면의 조각,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한 여인의 성체가 동양의 비너스라 할 만큼 아름답다.

정글에 묻힌 타 프롬

산짐승이라도 뛰어나올 것 같은 밀림에는 나뭇잎으로 모자를 만들어 쓴 아이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있다. 우리를 반기는가 싶어 손을 흔들고 사진을 찍었더니, 갑자기 '원 달라 원 달라'하며 달려온다.

타 프롬은 12세기 후반 자야바르만 7세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만든 사원이다. 그 당시 승려가 오천여명이나 있었고, 압사라가 70여 명 있었다 한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기

화려하고 섬세한 반데스레이

위해 방의 네 벽에 구멍을 뚫고 보석을 넣었다는 방에는 지금도 수많은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다. 벽마다 난 창으로 햇살이 비추면 온종일 빛을 발했을 보석들, 그 보석들은 1431년 태국 사람들이 다 빼가고, 어머니를 위한 효심만이 전설처럼 남아있다.

타 프롬은 다른 사원과 달리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정글에 묻힌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안젤리나 졸리가 출연한 영화 <툼레이더> 촬영지로 더 알려진 이 사원은 거대한 스펑 나무가 사원을 휘감고 있다.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사원을 점령한 무법자처럼 보인다. 더 자라지 못하게 억제주사를 놓았다는데, 스펑 나무와 타 프롬 사원은 원수를 사랑하듯 이미 한 몸이었다. 날이 저물어 어둑한데 빗방울까지 떨어지니 스펑 나무가 괴물처럼 느껴진다. 금방이라도 휘감아 올 것만 같이 으스스하다. 세월이 가면 나무도 돌을 점령하고, 또 세월이 가면 이끼 낀 돌만 남을 것이다.

첫날 일정을 끝내고 발 맛사지를 받으러 갔다. 온종일 걸어 피곤한 발을 부드럽게 만져주니 잠이 쏟아진다. 열댓 살쯤 됐을까. 가무잡잡한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 캄보디아 소녀는 정성스럽게 맛사지를 한다. 우리 아이들 같으면, 가방 들고 이 학원 저 학원으로 공부나 하러 다닐 나이인데, 묵묵히 삶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어른스러웠다.

둘째 날, 호텔 앞에는 툭툭이가 마당 가득 대기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개조해 뒤에 사람이 탈 수 있게 만든 툭툭이는 택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운전사가 입은 조끼에는 Taxi 라고 적혀 있고 뒤에는 번호까지 찍혀있다. 운전사는 "빨리빨리"하며 활짝 웃는다. 빨리빨리는 이미 세계 공통어가 되었다.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가라고 했는데도 툭툭이는 신나게 달린다. 같이 탄 올케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간다.

도로에 차는 별로 많지가 않은데 어쩌다 지나가는 버스 문에는 '자동문'이라고 쓰여 있다. 우리나라 중고차를 사다가 글씨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쓴다는데,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선망의 대상인지도 모른다. 이곳

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오토바이와 툭툭이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오토바이가 있는 집은 잘 사는 편이다. 그래서 시내에는 중고 오토바이 상점과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아서 파는 곳이 가장 많다. 아이를 서너 명씩 오토바이 앞뒤에 태우고 하나가 되어 달려가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행복하다.

시내를 벗어나자 툭툭이는 더 빨리 달린다. 도로에는 차선도 건널목 표시도 없다. 어쩌다 지나가는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면서 씽씽 달린다. 이곳에서는 사람이 조심해야지 사고가 나도 자동차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가끔씩 비쩍 마른 소가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데, 그럴 때는 차가 돌아가거나 기다린다. 들에서 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팬티만 입은 아이들이 놀다가 우릴 보고 손을 흔들어댄다.

인공 저수지 로레이

이 사원은 인공 저수지에 세워진 최초의 수상사원이다. 야소바르만 1세가 부모와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 지었는데, 저수지가 농토로 바뀌면서 사원이 훼손되었고 지금은 불교사원이 들어서 있다. 예불시간인가보다. 원두막 같은 곳에서 20여명이 모여 향과 꽃을 꽂아놓고 기도를 하고, 바로 옆 현대식으로 지어진 새 건물은 단청을 칠하고 있다. 잠시 후, 예불을 마친 사람들이 나와 물을 마신다. 뚜껑도 없는 넓은 통에 받아놓은 물, 우리 같으면 빨래도 하지 않을 그런 물은 그네들은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물이 나오는 곳이 보이지 않는데, 얽기 설기 엮어지은 집에서 아낙은 불을 지피고 남자는 물고기를 다듬고 있다.

피미아나카스 사원

머리 아홉 개 달린 뱀 여인의 전설이 있는 이곳은, 10세기말 자야바르만 5세에 의해 힌두 스타일로 3단의 피라밋 형태로 지어졌다. 왕궁 내에 황금 탑이 있었고 그 탑에는 머리 아홉 개 달린 뱀의 정령이 살고 있었는데, 매일 밤 왕은 뱀이 둔갑한 여인과 동침을 했다고 한다. 왕은 인간 여자와 동침하기 전에 반드시 뱀 여인과 동침해야 하며, 만약 하룻밤이라도 지나치면 재앙이 닥쳤다고 한다.

건국신화에 나오는 뱀신인 나가신이 물의 상징이듯, 한 나라의 통치자와 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이 있어야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농사가 잘되어 국가가 안정되었다. 물이 중요한 만큼 물의 상징인 뱀을 신성하게 여겼

을 것이다. 해가 지면 뱀의 정령을 만나러 왕이 올라갔다는 황금의 방, 그 곳을 보고 싶어도 계단이 좁고 급경사라 올라갈 자신이 없었다. 사원 옆에는 옷과 여러 가지 용품을 팔고 있었고, 가운데다 야자열매를 쌓아놓고 마시라고 한다. 달짝지근한 야자수로 목을 축이고 옷 구경을 했다. 아이들이 자기의 것을 사달라고 달려들어 고를 수가 없었다. 면 티 하나에 3달러 ,두 개에는 5달러다. 비싸지도 않고 색이 고와 올케와 나는 야자 값을 치르듯 이것저것 골랐다.

다음 코스로 가는 도중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도로공사 중이었는데, 그들의 하루 임금이 7000리엘(Riel)이라고 한다.1달러가 4000리엘이니 하루의 임금이 2달러가 못되는 돈이다. 아이들이 쫓아와서 달라고 애원하는 원 달라는, 우리에겐 단돈 천원에 불과 하지만 그들은 보름을 살 수 있는 돈이라 한다.

성채의 도시 앙코르 톰

앙코르 톰은 건축물이 아니라 도시의 이름이다. 당시 그 일대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 도성은, 1200년 무렵 자야

바르만 7세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수도 부근에 동서남북 각각 3km 성벽을 쌓아 건립했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사방에 하나씩 있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승리의 문까지 다섯 개가 있다. 우리는 복원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남문 앞에서 발을 멈췄다. 왼쪽엔 선신 오른쪽엔 악신의 모습으로 석상이 나란히 나열되어 있다. 오랜 세월에 훼손이 심하여 근래에 보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짝이 맞지 않아서 우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선신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나는 악신에게로 가서 손을 잡았다.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지만 악하지만은 않아 보였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교각을 지나 남문으로 들어갔다. 코끼리테라스는 예전에 왕궁이 있던 자리이다. 건축왕 자야바르만 7세 때 목조로 지어졌던 왕궁은 사라지고, 그 후에 주로 국가 행사장, 외국사신 영접, 그리고 문제해결의 장소로도 이용 되었다.

당시 중국의 사신으로 여행한 주달관의 기록에 의하면, 성 입구의 문지기들은 죄인과 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성안에 둥근 지붕으로 된 귀족의 집은 동향인데, 왕은 이곳에서 하루 두 번씩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호화스런 옷을 입고 국사를 처리하였다고 한다. 테라스 외벽에는 코끼리와 압사라가 새겨져 있고 계단 양끝에는 머리 셋 달린 코끼리가 코로 연꽃을 모으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계단으로 올라가 중앙에 서 보았다. 수많은 병사들을 내려다보며 호령했을 왕의 단상, 어디선가 위엄 있는 목소리가 들려 올 듯하였다.

바이욘 사원에서

버스를 타고 1,5km 정도 가면 바이욘 사원이 나온다. 우리는 그 앞에서 한참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이 거대한 성을 정령 사람들이 만든 것이란 말인가. 이 사원은 우주의 중앙인 메루산을 상징 하는데, 대승불교 신봉자인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해 불교사원으로 건축 되었다. 12,000m에 달하는 사원의 벽면에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조각들이 가득 부조(浮彫)되어 있다.

앙코르 톰 중앙에 위치한 신전으로 사방 가득 웃는 얼굴이 새겨져 있고, 2층도 조각이 가득하다. 3층으로 올라가 고개를 돌리니, 사방에 가득한 부처님 미소가 있다. 원래는 54개의 상이 있었는데 현제 남은 것은 37개 뿐 이라 한다. 그 모습이 부처의 얼굴이라는 설과 자야바르만 7세의 얼굴이라는 설이 분분하다. 누구의 얼굴이면 어떤가.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자비롭고 신비로운 바이욘 미소에 둘러싸여 여기가 천상이 아닌가 착각을 하기도 했다.

일몰의 명소 프놈파켕

노을이 장관이라는 프놈파켕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집체만한 코끼리가 서 있다. 사원 앞까지는 한참을 걸어야 하는데 코끼리를 타고 가려면 15달러를 내라고 한다. 더러는 코끼리를 타는 이도 있고, 산책삼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30도를 웃도는 더위에 산을 오르려니 숨이 턱에 찬다. 앞서가는 열댓 살 된 아이들은 긴 머리에 브릿지를 하고, 잠옷처럼 레이스 달린 옷을 입었다. 청바지도 샌달도 최신형이다. 이것이 이곳 아이들 유행이

라 한다.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않다. 어느 곳이나 빈부의 차이는 있듯, 이성 친구와 놀러 다니는 아이들 옆에 손님을 쫓아다니며 목이 타도록 물건을 파는 또래가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높이 62m의 바켕 산 위에 세워진 사원으로 중심에 성소(聖所)가 있고 사방에 4개의 탑이 있다. 제일 높은 곳에 올라 성소를 들여다보니, 향내가 자욱하다. 원래 108개의 탑이 있었으며 이 사원을 모태로 앙코르 와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높은 곳에 있어서 일몰의 명소로 꼽힌다는 프놈바켕, 노을을 보려고 해지기를 기다렸지만 구름이 많아 볼 수 없다는 가이드의 말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선물을 사려고 돌아 다녔다. 어두워지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색을 구별하기가 어려웠고, 그 흔한 비닐봉지도 없어 선물로 산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구겨 넣어야 했다.

저녁식사는 압사라 민속춤을 보면서 '스끼'라는 음식을 먹었다. 신들을 기쁘게 하는 춤사위 압사라, 유희들이 손과 발을 들어 보이는 모습이 어찌나 유연한지 뒤로 젖힌 손끝이 팔에 닿을 것 같다. 공연도중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가이드는 끝까지 보아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렇게 좋은 공연을 왜 보다말고 나가는 것일까. 공연이 끝난 뒤, 너무 아쉬워 우리일행은 무대 위로 올라가 그들과 사진을 찍었다.

외지에 가면 그곳의 밤 문화가 궁금해진다. 첫날부터 나가고 싶었는데, 여자들이 다니면 위험하다고 했다. 불빛 하나 없는 씨엠립 밤거리는 긴 잠속에 빠진 듯 조용하다. 일행은 차를 타고 인종시장이라 불리는 로데오거리로 향했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관광객으로 거리는 북적거렸고,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길가 선술집에서는 애주가들이 술잔을 부딪치고, 불빛이 환한 2층에서는 아가씨가 "Young man, Young man" 하며 젊은 남자들을 불렀다. 어느 도시나 술과 여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곳에 밤의 여인이 있다는 것은 뜻밖이었다. 일행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거리 구경을 하면서 기다렸다.

외국인을 위해선지 컴퓨터가 있는 상점도 있고, 술집도 외국인만 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었다. 거리 한쪽에는 7.8명이 앉아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자세히 보니 장애인들인데 30년 전, 폴포트에 의해 죄 없이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나와 연주를 하는 것이라 한다. 가게마다 기웃거리며 실컷 구경을 하다 결국은 두 군데로 나누어 들어갔다. 젊은 층은 안젤리나 졸리가 다녀가서 유명해졌다는 술집 The Red Piano로 가고, 나는 나이 드신 분들과 맞은편으로 갔다. 마주보이는 피아노에는 손님이 제법 많다. 그 여배우가 앉았던 자리와 마신 술은 몇 배가 비싸다는데, 오늘은 누가 그 자리에 앉아 호기를 부리고 있을까. 기대를 가지고 나간 밤거리 구경은 가이드가 낸 작은 맥주 두 병으로 목을 축이고 일찌감치 호텔로 돌아왔다.

그냥 잠자리에 들기는 너무 섭섭했다. 주당들의 맘을 아는 이윤희 전문의원은 위험을 무릅쓰고 밤중에 혼자 나가 '앙코르 맥주'를 한 보따리 사가지고 왔다. 거북 여행사 유태원사장과 윤영혜씨 부부, 그리고, 선종엽, 권효숙, 유순희 해설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틀 간 유적지를 보고 느낀 점도 많았고, 할 말도 많

았다. 과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무엇을 보여줘야 하며, 내세울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역사가 찬란하다고 하나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밤이 깊도록 앙코르에 취했다.

캄보디아 사람들

셋째 날은 현지인이 사는 모습을 보러 갔다. 일 년에 세 번 수확을 한다는 논에는 모가 한 뼘 정도 자라 있었고, 밭에는 토란잎이 너풀거린다. 집주변에는 바나나 나무와 키가 큰 야자나무 두어 그루가 서 있다. 한적한 시골 풍경이다. 손님이 왔다고 온 식구가 나와 인사를 한다. 가이드가 뭐라고 했는지 17살짜리 그 집 딸은 야자나무를 오른다. 끈 하나를 의지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 야자를 따는 모습을 우리는 고개를 젖히고 올려보았다.

금방 따온 야자수를 마시고 집 구경을 했다. 좁은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 방으로 들어가니, 땅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원두막처럼 높이 지어 나무 사이를 띠여 놓은 것은 바람을 통하게 하고, 날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 방 한쪽에는 작은 텔레비전도 있고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여러 장 붙어 있다. 6.70년대 우리가 살던 모습이다. 방금 야자를 따온 처녀는 시집 간 언니의 사진을 가리키며 자랑을 한다. 잠깐 만났지만 헤어지면서 아쉬워하던 그 순박한 눈빛들,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나름대로 편안해 보인다.

바라이 저수지

물을 막아 댐을 만들고, 농사를 짓게 한 저수지 웨스트바라이는 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가로 8km 세로 2km라니 호수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크기도 크려니와 위에서 보면 직사각형으로 수로를 만들어 물을 관리했던 캄보디아는 분명 문명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다.

버스가 서자 아이들이 몰려와 팔찌와 부채 따위를 들이대고 길을 막는다. 물가에는 쉴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놓았고, 빨래도 널어 놓았다. 아이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졸졸 따라다닌다. 애절한 눈빛이 미안해서 돈이 없다고 두 손을 펴 보였더니, "가방에 있잖아요" 한다. 진땀을 빼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 아니었다. 한사람한테만 집요하게 따라붙어 사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 "잘 있어" 하고 버스에 올랐는데도 "잘 있지 못해요."하며 끝

까지 따라 와서 결국은 팔고 만다.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우리말을 저렇게 잘할까. 어느새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면 작은 플라스틱 접시에 프린트를 해서 그 사람 앞에 내민다. 한창 공부하고 어린양이나 부릴 나이에 장사에 나선 아이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저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북한식당에서

'평양 랭면'이라는 간판을 보니 정말 북한식당이구나 실감이 난다. 캄보디아와 북한은 가장 친한 형제국이라 한다. 제 형제는 외면하고 남하고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보는 듯 기분이 떨떠름하다. 홀에서 일하는 처녀들은 나이가 스물 안팎으로 모두 색동저고리에 깡통치마를 입고 높은 샌달을 신었다. 외국인은 없고 거의가 우리나라 사람들로 그 넓은 식당을 메웠다. 이 먼 나라에 와서 그래도 내 민족이라고 찾아온 사람들이다.

상이 차려지고 무대에 불이 켜졌다. 그런데, 이제껏 음식을 나르던 처녀가 무대 위로 뛰어가서 마이크를 잡는다. "고국에서 오신 여러분 반갑습네다." 하고 인사를 하더니, 노래방 기기의 연주에 맞춰 '반갑습니다' '강원도 아리랑'을 부른다. 화면에는 가수 이름과 가사가 나온다. 노래방에 온 것 같다. 다음에도 홀에서 일하던 처녀가 무대로 올라가 바이올린을 켜고 아코디언 연주를 하였다. 이어지는 몸짓이 격렬하고 선정적이다. 가이드가 이 공연은 꼭 봐야한다고 허풍을 떨어 30불씩이나 주고 왔는데, 냉면 맛도 그렇고 공연도 장날 약장수 같다.

위대한 호수 톤레삽

호수로 가는 길에는 허름한 집들이 개울가에 늘어서 있다. 집집마다 문에는 부적 같은 붉은 천을 걸어 놓았고, 그 아래에는 쓰레기가 널려있다. 좁은 길 옆 시커먼 개울물에는 연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톤레삽은 티베트에서 발원하여 7개국을 거쳐 남지나해로 흘러가는 메콩강물이 유입되어 형성된다. 건기에는 메콩강물이 베트남을 지나 델타 삼각주를 거쳐서 곧바로 남지나해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나 우기에는 수량이 너무 많아 남지나해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델타삼각주에서 역류하여 톤레삽으로 흘러 들어와 거대한 호수를 형성한다.

경상남도 2배 넓이의 동양 최대의 담수호로 풍부한 어업자원을 갖고 있는 톤레삽은 호수가 아니라 바다 같이 물이 많은데도 흙탕물이다. 그 위를 미끄러지듯 보트를 타고 지나간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열 살도 안 된 아들이 아비를 돕는다. 긴 막대기를 들고 보트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땅에 집고 뱃머리를 돌리는 폼이 의젓하다. 맞은쪽에서 오는 보트에 탄 가족들은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아 기분이 좋은지 우리를 향해 후하게 손을 흔든다. 1년

에 100만 톤의 고기가 잡히는 풍요로운 호수에는 잉어, 청어, 메기, 담치 등 800여종 이상의 어류가 살고 있다.

왼쪽 방죽에서부터 원두막 같은 허술한 집들이 이어지면서 수상촌이 시작된다. 한국선교 연합회에서 세워준 한국학교에는 태국기가 휘날리고, 흰색 상의에 감청색 하의를 입고 보트를 타고 집으로 가는 학생들도 보인다.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캄보디아인이 아니다. 그중 약 30%는 베트남 난민이고

참족도 있다. 전쟁이 잦았던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아직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선상촌이지만 베트남 난민들은 눈에 띄게 가난한 살림을 하고 있었다.

수상촌을 지나니 드넓은 호수가 나타난다. 즐거움을 만끽하는 관광객을 태운 배들이 오고가는 사이로 찌그러진 양은대야를 타고 오는 아이가 있었다. 예닐곱이나 됐을까. 아이는 필사적으로 물살을 가르며 달려와 뱃전을 잡고 손을 내민다. 그 옆에 두 아이를 태우고 과일을 들이밀며 애원하는 여인이 또 있었다. 누가 이들의 가난을 구제할 것인가. 고달픈 그들의 삶이 안타까워 목이 메었다.

수상카페 앞에는 팔뚝같이 굵은 구렁이를 목에 감고 아이가 씩 웃으며 우리를 맞는다. 징그러워 멀찌감치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알고 '원 달라 원 달라'하며 쫓아온다. 옥상으로 올라가니 호수위에 떠있는 수상가옥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호수가 범람하면 선상가옥으로 변신하는 2000여 가구에는 12,000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배위에서 황톳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흘려보낸다. 식수는 사다 먹는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겐 이 물이 곧 식수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고 어린 시절부터 장사를 해도 그들은 자기네가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한다.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 라고 시원한 바람이 일러준다. 배 위에서 그들도 나도 흔들리고 있었다.

킬링필드

캄보디아는 1970년대,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200여만 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들이 폴포

트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되었다. 크메르루즈가 캄보디아를 장악하고 공산화 한 뒤, 정치범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지식인과 주민들, 허리 위로 올라오는 어린아이 까지도 가두고 온갖 고문을 한 뒤 죽었다. 수도 프놈펜에는 킬링필드 당시의 고문현장을 느낄 수 있는 '투올슬랭 박물관이 있고, 시엠립에는 작은 킬링필드가 있다.

위령탑 '와트마이'안에는 죄 없이 희생당한 이들의 유골을 봉안해 놓았다. 바로 옆 벽에는 고문도구와 장면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끔찍한 것은 차관의 부인이라는 여인의 머리를 묶어 고개를 숙이지 못하게 고정 시켜놓고 그 앞에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사진이다. 여인은 안고 있는 자식만은 제발 살려 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살려두지 않았다. 그 어린아이를 무슨 죄목으로 죽였을까. 희생자들의 참혹함이 생생하게 느껴져 몸서리가 쳐진다. 꿈 많은 여학생들이 공부하던 뚤술렛 중학교를, 폴

포트는 자기 민족을 고문하고 죽이는 장소로 이용했다. 죽이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만들어 놓았다 한다. 지도자를 잘 못 만난 민족은 그렇게 죄 없이 죽어갔다. 억울한 영혼들에게 작은 꽃 한 송이 바치지 못하고 나오는 길에, 두 여학생을 만났다. 옷차림도 깔끔하고 우리말도 잘하는 학생은 한국학교를 다닌다고 했다. GNP가 5.600백 불에 불과하고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마지막 날은 여유롭게 쇼핑을 하라고 한다. 보석상에 가서 목걸이도 사고, 몸에 좋다는 상황버섯차도 마셨다. 면세점에도 들러 이것저것 사다보니 주머니가 비었는데, 또 라텍스 상점 앞에 차를 세운다. 귀빈대접을 받으며 라텍스가 왜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침대에 앉고 눕고 하였다. 푹신하고 편안해 잠이 올 것만 같다. 친절하게 설명해준 그 여인은 가이드의 안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값만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없어, 아내에게 낯이 안 선 가이드는 노골적으로 성질을 부렸다. 우리는 귀한 시간 뺏기고 가이드 눈치를 보면서 식당으로 갔다.

저녁은 삼겹살이다. 상추, 쑥갓, 미나리가 우리의 것과 똑같고 소주와 쌈장까지 입에 맞아 식사가 즐거웠다. 그런데, 가이드는 한쪽에서 고개를 돌리고 밥을 먹는다. 왠지 안돼 보였다. 혼자서 밥을 먹으며 본분을 잃었던 순간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3박 5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비행장으로 가는 길,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이곳은 4월 말부터 다섯 달 동안 비가 내린다는데, 우리는 운 좋게 비를 만나지 않았다. 그동안 수고한 가이드에게 악수를 청했더니, 민망스레 웃으며 "안녕히 가세요."한다. 출국할 때는 여행사 사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권을 보자고도 않고 쉽게 통과하였다.

밤 11시 20분 비행기에 올랐다. 피곤함이 몰려와 눈을 감으니 '원 달러'를 외치며 달려들던 아이들이 잘 가라고 손을 흔든다. 짧은 기간 동안 보고 느낀 그들의 삶,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겐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다. 세월이 가면 사람들도 캄보디아도 발전하여 지금의 순수함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와서 변한 모습을 보고 싶다.

얼마나 왔을까. 내려다보니 칠흙 같은 밤, 온 세상이 캄캄한데 희끄무레한 선이 보인다. 저게 뭘까. 시간이 지날수록 굵고 선명해진다. 바닷가인가. 파도 같기도 하고 물안개처럼 보이기도 한다. 먼동이 트는 것처럼 점점 훤해지더니, 성냥 꼬투리만한 불빛 하나가 보인다. 불빛은 순식간에 타올랐고 눈이 부셔 바라볼 수가 없었다.

아, 그것은 우리를 향해 솟아오른 뜨거운 태양이었다.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렀다. 내 인생의 시간표에 이런 순간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던가. 그 황홀함은 내 생에 가장 경이로운 감동의 순간이었다. 앙리무어가 밀림을 헤매다 35살 젊은 나이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기고간 말이 떠오른다.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져라. 우리의 인내와 노력은 반듯이 보상 받을 것이다. 안녕, 안녕, 부디 나를 잊지 말아다오. 모두 안녕.' 우리에게 남기고 간 그 말이 이 순간 가슴에 와 닿는다. 뜨겁고 강하게 떠오른 태양을 안고 돌아가는 길, 비행기 아래로 낯익은 산과 들이 보이고 날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는 따뜻한 집들이 조그맣게 내려다보인다.

2008 율곡문화제 백일장

시 … 초등부 운문 장원

초등학교 5학년 강시환

저금통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

딸랑거리는 동전이나
빳빳한 종이 돈만
먹고 싶은 것이 아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야망과
엄마. 아빠의 애틋한 사랑과
테레사 수녀님의 투철한 봉사정신

그리고
자운서원에 깃든
아름다운 가을도 담고 싶은 것이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시 … 중등부 운문 장원

삼광중학교 3학년 3반 조의현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나의 눈을 여행한다.
사랑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세상이 보인다.

나의 코를 여행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는다.

나의 귀를 여행한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나의 심장을 여행한다.
두근거리는 설레임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향기로운 내음을 맡으며
정겨운 소리를 듣고
설레이는 심장을 가진
나를 사랑한다.

2008 율곡문화제 백일장

시 … 고등부 운문 장원

삼광고등학교 1학년 박효은

황혼

새벽녘
노인은 거친 손으로
그윽히 떡을 빚어냈다.
갓 쪄낸 떡은
닳고 닳은 보따리에 포근히 담겼다.

부슬부슬 비가 온다.
언제나처럼 간이역은
덩그라니 놓여 있다.
역장 없는 간이역을
오늘도 노인 홀로 지킨다.

노을이 붉게 진 저녁
늙은 열차가
지친 몸을 내려 놓았다.
덜렁덜렁 덜커덩,

하얗게 센 머리엔
허옇게 눌은 떡이
어지러이 놓여 있다.

노인은 언제나처럼
노을을 지고 돌아간다.
노인의 구부정한 그림자는
세월을 인내하며 길게 여울진다.

2008 율곡문화제 백일장

산문 … 중등부 산문 장원

법원여자중학교 3학년 2반 최수빈

가장 아름다운 여행

내가 중학교에 들어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한 나날은 여정에 속하고 친구들과 선생님께 보고 배운 인품은 견문. 지금 내가 중학생으로서의 절정의 시기에 있는 바로 이 순간의 느낌을 감상이라고 하고 싶다. 나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

처음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 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그 때부터 그 아이의 홀로서기는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학교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아이의 모습은 홀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과 비슷해보였다. 학교에 걸어가며 '저기 보이는 건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파는 집', '저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점' 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었을 그 아이. 그 아이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나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떡 사장이 될 거야', '내가 문구점 사장이라면 2층짜리 멋진 가게를 만들어야지!' 그 아이의 꿈은 순수했다. 그 아이의 순수함으로 여행의 첫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어릴 적보다 더 깊은 꿈을 꾸게 되었다. '내가 떡볶이 체인점을 낸다면 식탁은 사람들의 키에 맞춰서 만들고 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벽지는 노란색으로 하고, 오는 사람마다 덤으로 2배씩 주는 가게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던 그 아이. 이제 그 아이는 더 이상 이곳에 없다. 그 아이는 이제 희망없는 청소년이 되었다. 이제 떡볶이집 사장이 되겠다던 그 아이는 이제 없다. 여태까지의 과정을 나처럼 밟아오신 부모님의 신세한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닌 것이다.

중학생이 된 지금, 그 청소년은 공부와 친구라는 문제로 항상 고민한다. 그 청소년은 목표지 없는 여행객이 되었다. 조만간 객사할지도 모른다. 언제나 공부해야 되고 언제나 친구들을 배려해야만 했던 그런 이론적인 일들에 지친 상태이다.

이제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갈까 한다. 나는 다시 순수해지기 위해 이름 모를 길을 걷는 것 보다는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걸어가는 것이 덜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다. 그 청소년은 길을 틀어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길은 그 청소년에게 너무 힘들었다. 다시 돌아가다 보면 항상 나를 배려해주던 친구들, 내가 좋아하던 선생님도 다른 아이들 보다 신경써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 항상 내가 실수하면 혼내기만 하셨던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우시는 모습, 내가 사탕먹다 목에 걸렸을 때 살려주신 우리 큰 고모까지 눈 앞에 떠오른다.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서 나는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멀리 걸어온 길은 너무도 멋진 여행이었다고.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여행이 언제나 함께였다고 값진 여행을 한 것에 감사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제 나는 다시 여행을 떠날 것이다. 다시 꿈을 꾸고 좌절하기를 반복하겠지만 그 여행이 값지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번에는 더 멀리 여행하고 다시 돌아와 보지 않아도 정말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여행객이 될 것이다.

2008 율곡문화제 백일장

산문 … 고등부 산문 장원

파주고등학교 2학년 이주용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꿈을 가져라.

나는 어렸을 때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작은 시련을 겪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평화로웠던 우리 집은 분열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원래 인천에 살았던 나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큰아버지네 집에서 살게 되었다. 부모님께서는 나와 하나뿐인 동생에게 "잠시동안만 여기서 지내렴. 엄마, 아빠가 금방 데리러 올게"라는 말을 남긴 채 어디론가 떠나셨다. 그 당시 어렸던 나는 그 말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 다음날, 나는 큰아버지네 집에서 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했고 집에서도 어제까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큰엄마, 큰아빠와 살게 되어 너무 슬펐다. 물론 큰아빠, 큰엄마는 나와 동생에게 잘해주셨다. 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같이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학교 가는 것도 싫었고,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긴 했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집이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었다. 집에서 나의 생활은 자유롭지 못했다. 큰아빠와 큰엄마께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지만 대체로 나와 동생에게 무관심하셨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도 오시지 않으셨고 옷도 사주시지 않았으며 빨래도 안해 주셨다. 이와 같이 나의 삶은 하루하루가 시련과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무의미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다. 즉, 삶의 목표인 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난 큰엄마, 큰아빠가 크게 싸우셔서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래서 '에휴, 오늘은 그냥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아파트 놀이터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혀 만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 바로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셨던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아래층에 사신다고 하셨고 나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문산에 전학 온 배경과, 집, 학교에서의 생활을 자초지종 털어놓았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나를 선생님의 집으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주용아. 네가 집, 학교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꿈이 없기 때문이란다. 꿈은 삶의 역경을 헤쳐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단다. 꿈은 시련과 고통을 잊게 해주기도 하고 자신이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주기도 하지. 지금 당장 네가 되고 싶은 장래희망이라든지, 이제부터는 삶이 나아질 것이라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등 이런 꿈을 가져라. 꿈은 사소한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거란다. 경제적 어려움은 결코 큰 고통이 아니란다. 그것은 네가 평범한 다른 친구들과 달리 혼자서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란다. 오히려 너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시련과 고통을 겪기 마련이야. 너는 단지 그 시련이 일찍 닥친 것 뿐이란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너의 꿈을 가져라. 알았지? 그럼, 파이팅!"

선생님께서는 말을 끝마치신 뒤 마지막으로 "내일 학교에서 꿈이 있는 주용이의 모습을 기대할게."라고 말씀하신 뒤, 나를 집 앞에 까지 데려다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처음으로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詩題 시제: 人皆可以爲堯舜

施賞區分 시상구분: 장원壯元

聯首
自古東方道學明 자고동방도학명
예로부터 동방에 도학이 밝으니
四書習得大賢成 사서습득대현성
사서습득 하여 대현을 이르네

聯頷
修身德業傾心力 수신덕업경심력
수신덕업은 심력을 기우리고
處世經綸盡志誠 처세경륜진지성
처세경륜 지성을 다하도다

聯頸
卓犖文章鄒魯訓 탁락문장추로훈
탁락문장은 추로훈이요
隆崇敎化洛閩聲 융숭교화락민성
융숭교화 락민의 소리로다

聯頸
人皆可以爲堯舜 인개가이위요순
인간이 모두 요순이 된다면은
國泰民安萬代亨 국태민안만대형
국태민안 하니 만대에 영화로다

번역飜譯

성명姓名: 육근학 陸根學

주소住所: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247-1 大田廣域市 東區 孝洞 247-1

第21回 栗谷文化祭 全國漢詩白日場

장 원

육근학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2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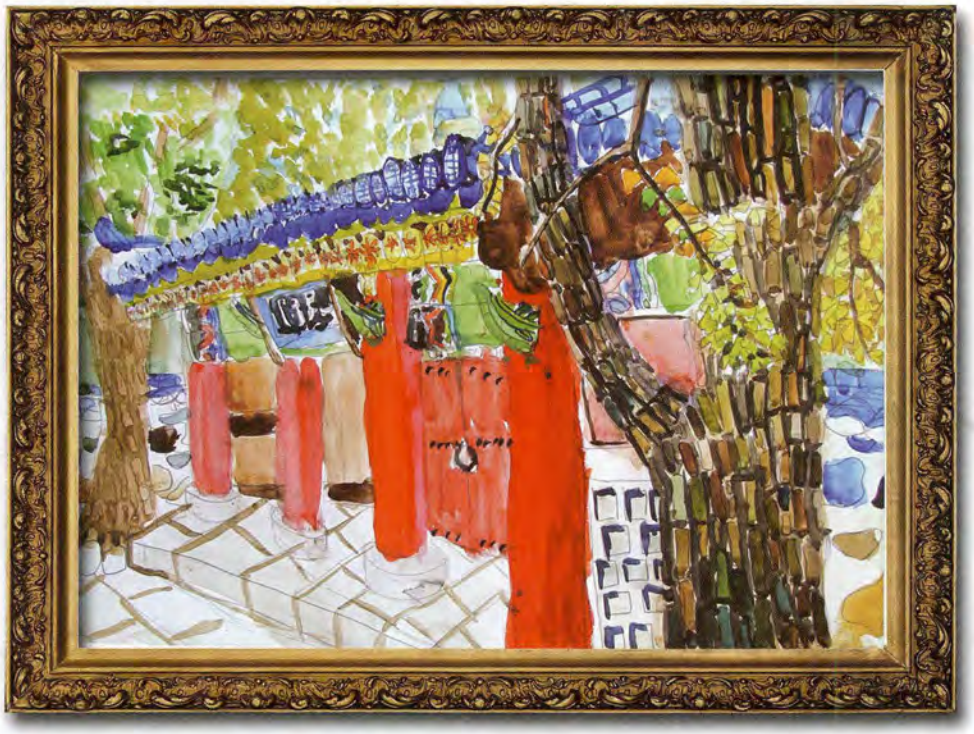
2008 제21회
율곡문화제 사생대회 수상작

금 상

법원여중 2-2 김유진

2008 제21회

율곡문화제 사생대회 수상작



금 상

봉일천초교 2-5 조성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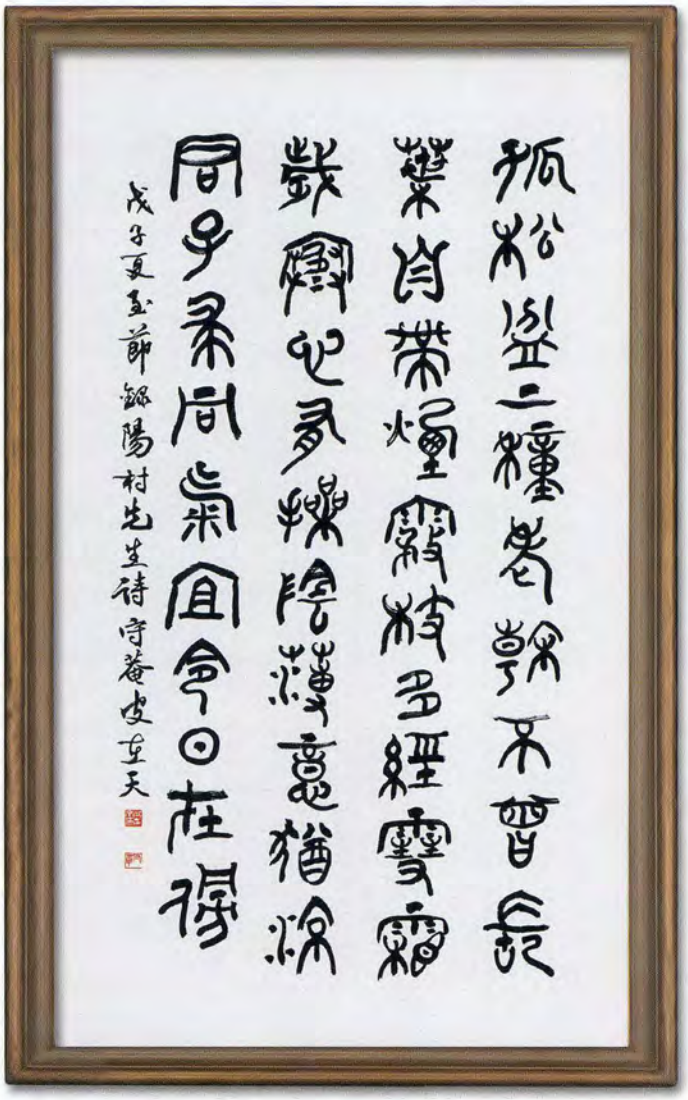
2008 제21회

율곡문화제 사생대회 수상작

금 상

파주송화초교 5-5 안수빈

2008 전국율곡서예대전 수상작



한문 대상

피재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 예일세띠앙아파트 103동 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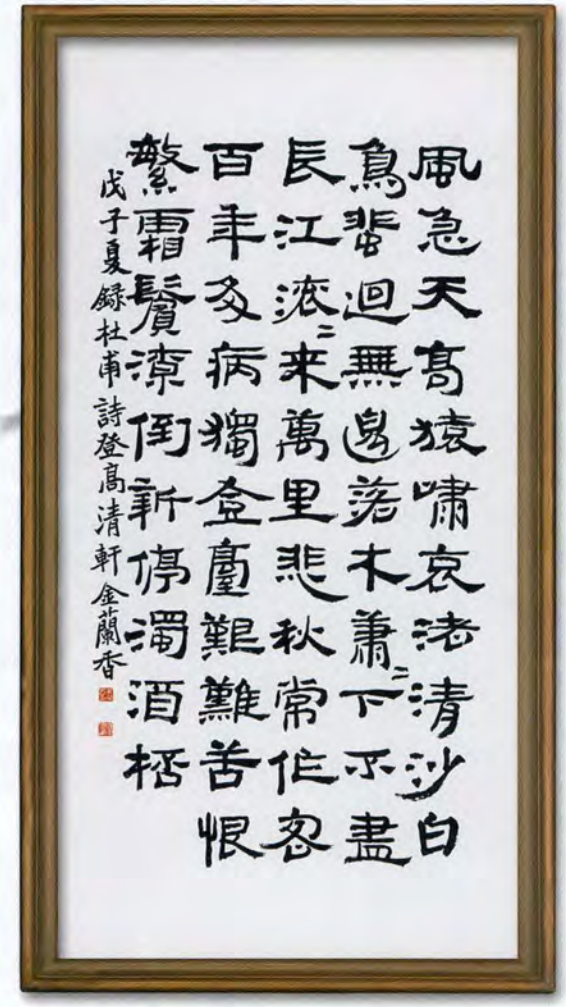
2008 전국율곡서예대전 수상작

문인화 최우수상

박은준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11 경동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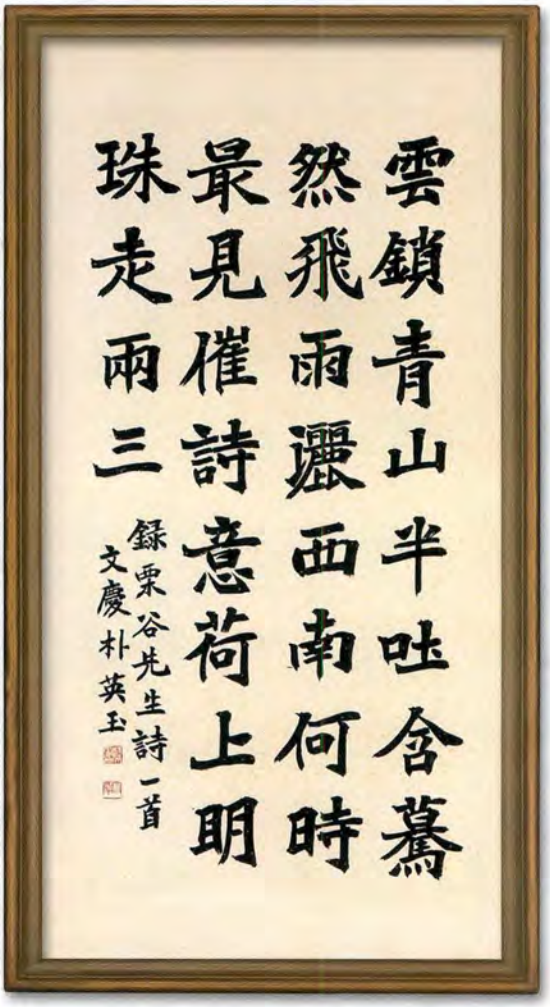
2008 건국율곡서예대전 수상작



한문 우수상

김난향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2가 34-12 201호



한문 우수상

박영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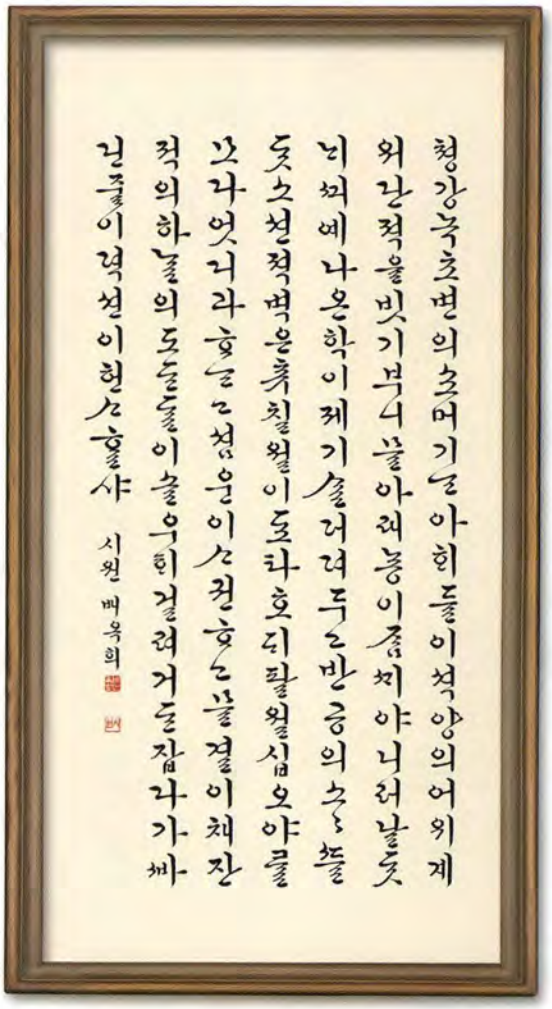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문지리 170

2008 전국율곡서예대전 수상작

문인화 우수상

박소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주공아파트 1217-404



한글 우수상

배옥희

서울 동작구 사당2동 극동아파트 102-1102

파주문화원 문화가족 모집

• 향토문화 보존계승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하는 파주문화원에서는 파주지역 문화 발전과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문화가족을 모집합니다.
파주문화원 문화가족이 되시면 각종 문화원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파주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사 자료 수집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과 향토문화의 자료를 보존 · 계승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해당 자료 : 고문서, 전적류, 문집류, 고지도, 문중보관문서, 교지류, 일반향토자료, 행정자료, 교육자료, 유적, 전설, 민담, 민요, 지방유래, 전통놀이 그 외 각종 사진류 및 영상자료 등

파주문화 원고모집

"좋은 책은 좋은 원고에서 나옵니다"
매년 발간되는 「파주문화」에 기고해 주실 참신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 집필 장르 : 자유선택 (파주의 역사와 문화 관련 내용)
• 집필 분량 - 특별기고 : A4 5장 이상 - 향토의 맥 : A4 3장~4장
• 원고 마감 : 매년 10월 말일
• 보내실 곳 - E메일 접수 : pajuculture@hanmail.net
- 우편접수 : 파주시 아동동 산 31번지 파주문화원 우편번호 413-020
- 내방접수 : 파주문화원 사무실
• 문의 전화 : 031-941-2425, 031-948-2688
• 원고 보내실 때 유의점
가.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은 신작이 더 좋습니다.
나. 작품 말미에 반드시 소속과 성함 등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급하게 연락드릴 연락처나 핸드폰 번호도 꼭 적어주세요.

2008년 제22호
파 주 문 화

인쇄일 : 2008년 12월
발행일 : 2008년 12월
발행인 : 민태승
발행처 : 파주문화원
(031)941-2425
(031)948-2688
인 쇄 : 승림 D&C
(02)2271-2581